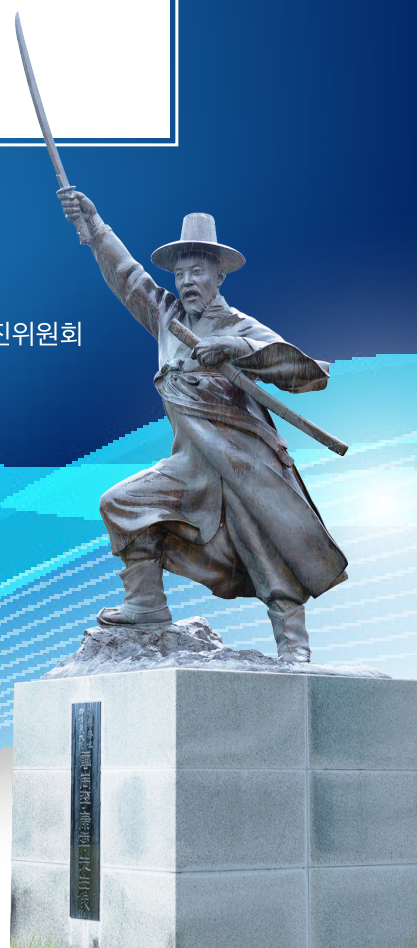


의 병 대 장 이 강 년 선 생 조 명 을 위 한 학 술 연 구 의 최 종 보 고 서

운강이강년 의병대장 순국110주년기념 학술대회 기결

- | 주 최 (사)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사)순국11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 후 원 국가보훈처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 | 주 제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운강 이강년



운강이강년 의병대장 순국110주년기념 학술행회



운강이강년의병대장 1858년~1908년



서울 강남구 삼성로 508 LG트윈텔2차 1607호
TEL 02)508-5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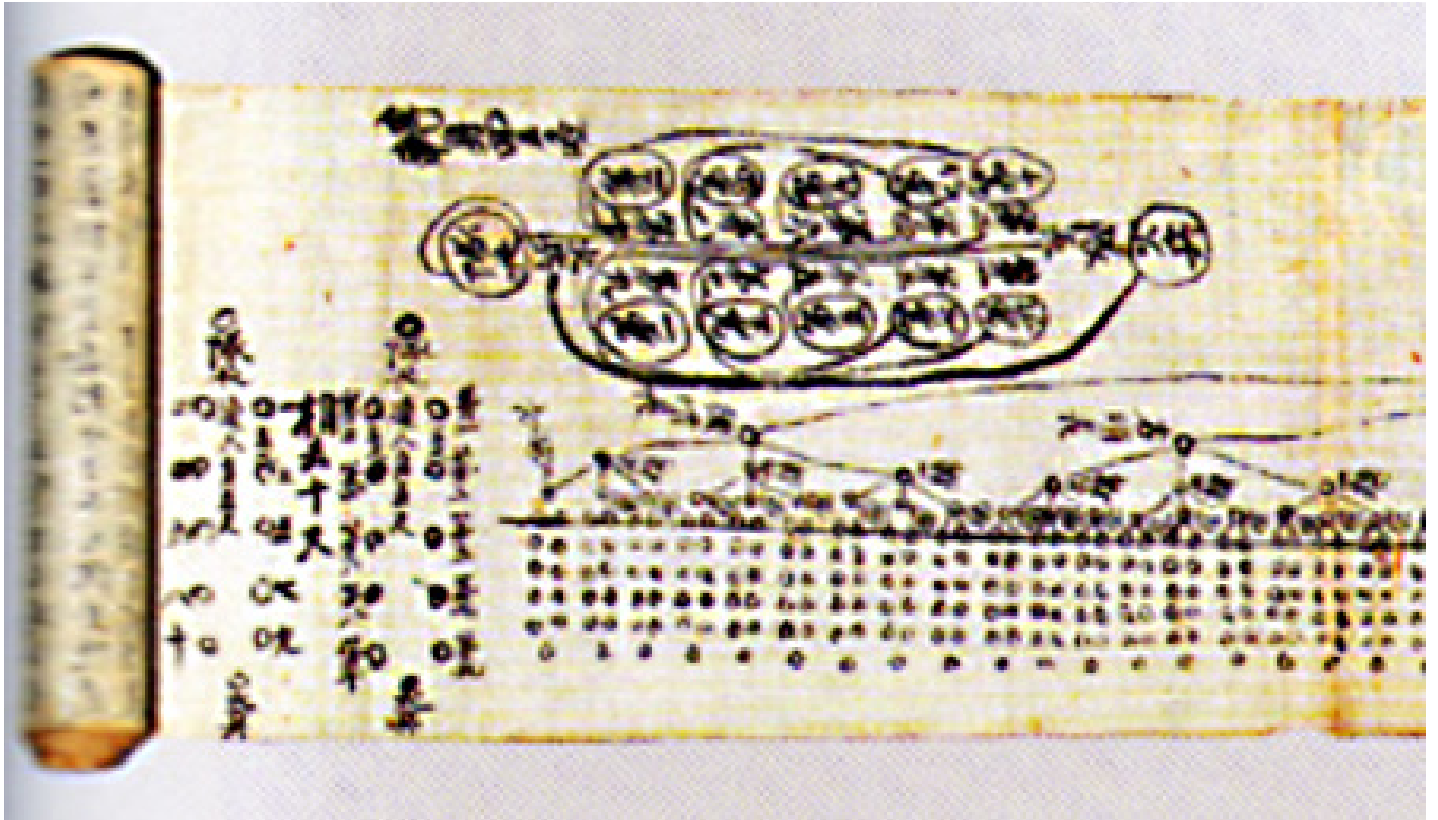
운강이강년기념관
운강이강년의병대장순국11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경북 문경시 가은읍 대야로1683(완장리 96)
TEL 054)550-6415

운강이강년의병대장순국110주년기념학술대회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운강 이강년

초판인쇄일	2018년 12월 19일
펴낸곳	사단법인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
주소	서울 강남구 삼성로 508 LG트윈텔2차 1607호
전화	02) 508-5399
팩스	02) 508-3999
홈페이지	www.ungang.org



대한제국 황제 이희(고종)의 공식 초상화 (일월오봉도)



운강이강년의병대장 순국110주년

Contents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운강 이강년



속오작대도(東五作隊圖) 일본군과의 의병전쟁을 전개했을 당시 의병부대 진법 전개 및 작전에 활용한 도해도

제1부

대회사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회장직무대행 **이순규**

기념사

순국11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고영조 · 현한근**

축사

국가보훈처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이용기**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축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교일**

축사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이원**

축사

순국선열유족회장 **김시명**

축사

청권사 이사장 **이갑재**

헌사

시인 **이영식** / 대독 **이순희** 유족

제2부

제1주제

고종의 거의말지와 국민전쟁

발표

김종욱 교수(동국대학교)

토론

배영대 중앙일보 문화선임기자

제2주제

고종황제와 이강년의병장

발표

오영섭 교수(연세대학교)

토론

엄찬호 교수(강원대학교)

제3주제

운강 이강년의 도체찰사 제수와 순국과정 연구

발표

이태룡 소장(의병정신선양중앙회)

토론

전영복 교수(건국대학교)

종합토론

좌장 : **최기영**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대회사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회장직무대행 이순규



안녕하십니까?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 증손으로서 현재 기념사업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순규입니다. 그동안 본회를 이끌어 오셨던 최경원 회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정이 생기셔서 새로운 회장이 선임될 때 까지 제가 부득이하게 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는 운강께서 순국하신 지 110주년 되는 해입니다. 순국 110주년을 기리기 위해 문경시에서는 그동안 별도의 기념사업회를 구성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5월 중부지역 공도대회와 6월 1일 의병의날 행사, 한시백일장을 운강 순국 1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문경시에서 유치했던 것입니다. 특히 의병의날 행사는 정부기념행사로 행정자치부장관을 비롯하여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후 9월 10일 지역 유림 중심의 향사와 운강께서 순국하신 10월 13일에는 기념관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한데 이어 사당인 의충사에서 전주이씨 효령대군파종회인 청권사 이갑재 이사장 집전으로 기신제를 모신 것은 운강께서 순국하신 후 최초의 일로 무엇보다 뜻 깊은 행사였다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고윤환 문경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110주년 기념사업회 고영조, 현한근 공동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권사 이갑재 이사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운강 순국 110주년 기념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중요한 행사라 생각합니다. 이 행사를 이끌어 주실 좌장 최기영 교수님을 비롯하여 주제발표를 맡아주실 김종욱, 오영섭 교수님과 이태룡 박사님, 그리고 종합토론패널로 참여하시는 엄찬호, 전영복 교수님과 배영대 선임기자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경청해 주실 내빈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의 13년에 걸친 의병항쟁과 순국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인식을 새로이 하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대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회장직무대행 이순규

기념사

순국11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고영조·현한근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의 뜻깊은 순국 110주기를 기념하는 학술대회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문경에 이어 올해는 순국11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발표와 토론을 맡아 준비하여 주신 여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문경에서는 2년 전부터 110주기 추모사업 추진 모임을 갖고 운강 의병대장의 정신을 드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운강선생께서 의기를 더 높인 농암장터 개바위공원 정비에서부터 갈평 전승기념비 정비와 전승기념공원 조성, 최초 전투지인 고모산성 표지판 정비, 기념관 뒤편 묘역조성, 학술대회 개최 등의 일을 해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의병사에서 볼 수 없는 운강 의병대장의 진법인 속오작대를 시민들과 함께 재현한 것이 새롭기도 했습니다. 특히 순국110주년을 맞는 올해는 지난 6월 1일 제8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식과 10월 13일 추모문화제가 운강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운강선생은 자기 한 몸을 평생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에 있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눈감고 모른 척할 수 있는 시대에 살았으며, 특히 같은 시대를 산 많은 사람들이 시류에 편승한 것처럼 일제에 협력하여 당대에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런 좋은 여건과 환경을 견어차고 맨 몸으로 오직 나라 지키는 가시밭길에 들어섰고, 끝내 일제에 의해 순국하심으로써 불멸의 영웅이 되셨습니다. 뻔히 죽는 길인 줄 알면서 나설 수 있는 용기 너무나 가슴을 떨리게 합니다. 지금 이 시각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면 우리 누군들 선생님의 뒤라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태어나시고 자란 이 땅에서 이러한 선생의 기백과 정신을 기리고, 이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학술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선생께서 남기신 나라를 사랑하는 의로운 정신과 행동이 세세연연 자주 독립과 평화 통일로 이어져지길 바라며, 후손들에게 기본을 지키고 서로를 배려하며 가정에는 효도가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운강이강년의병대장순국11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고영조·현한근

축사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이용기



친애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의병운동의 선봉장이셨던 이강년 선생과 조선후기 의병활동을 재조명하기 위한 학술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술회의를 마련해 주신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최경원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민중이 스스로 일어나 외적에 대항하여 싸웠던 의병은 우리의 반만년 역사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유민의 국가부흥을 위한 의병투쟁부터 일제에 투쟁한 항일의병에 이르기까지 의병들의 활약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조선 후기 의병활동의 중심에 서 계셨던 운강 이강년 선생의 순국 110주년을 맞아 선생에 대한 업적과 의병활동의 의의에 관해 고찰하는 자리입니다.

이강년 선생께서는 일찍이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동학군에 투신하였고, 의병항쟁에 있어 긴요한 전략자원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 하셨습니다. 특히 1905년 일본이 불법적인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국권탈취를 했을 때 의병을 일으켜 제천, 인제, 영양 그리고 봉화 등 여러 전투에서 빛나는 전과를 올리셨습니다.

또한 선생께서는 자기 수양과 학문연구에도 힘쓰셨는데 그 중에 의병 전술서인 「속오작대도」를 만들어 훗날 전투에서 크나큰 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오늘 학술회의에서 이강년 선생의 의병 활동과 순국과정에 대한 연구발표를 통해 우리는 선생의 생애에 걸친 구국정신과 나라에 대한 충정을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오늘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선생처럼 나라가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순국선열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과 침략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헌신에 대한 우리 후손의 보답이자 감사함을 표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운강 이강년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민족의 독립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이강년 선생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바치며, 오늘 학술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이 용 기

축사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채홍호

운강 이강년 선생 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후원하는 ‘운강이강년의병대장순국110주년기념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회 이순규 회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하여 이강년 의병장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의병전쟁을 전개한 양상과 고종황제로부터 도체찰사에 제수되어 대규모 의진을 이끌다가 체포되어 순국한 과정을 발표해주실 3명의 연구자님들과 토론을 이끌어 주실 사회자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국운이 기울어가던 구한말의 의병장인 운강 이강년 선생은 충절의 고장인 문경 출신으로 1880년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으나 1884년 갑신정변 때 낙향하였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로 인한 을미사변 때는 가산을 털어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이어 제천으로 유인석을 찾아가 유인석 의병부대의 유격장으로서 문경·조령 등지에서 활약하였습니다.

1905년 일본은 고종을 협박하여 불법적으로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외교권 등 국권 탈취에 나섰습니다. 1907년 군대 해산 등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을 수수방관만 할 수 없던 선생은 유인석과 함께 다시 한 번 의병을 일으켜 민궡호 의진과 연합하여 제천전투에서 500여 명의 적을 대파하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은 고종황제는 1907년 선생을 도체찰사에 임명하였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침략정책이 더욱 노골화하여 헤이그특사사건으로 고종이 강제로 선위하고 정미칠조약으로 한국군대가 해산 당하자 영춘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켜 때마침 원주진위대를 이끌고 봉기한 민궡호 부대와 합세하여 충주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후 가평·인제·강릉·양양 등지에서도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1908년 용소동·갈기동·백담사·안동서벽 전투 등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청풍의 까치성 전투에서 체포되어 51세로 순국하셨습니다.

의병은 나라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급할 때 국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민중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외적에 대항하여 싸우는 구국 민병입니다. 그래서 의병전쟁은 특별한 역사적 의미로 다가옵니다.



첫째, 의병전쟁의 주도층인 유생과 농민은 일제 침략자와 그에 협력한 소수의 집권자들에 대한 최대의 저항자로서 항일민족세력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구실을 하였습니다. 당대의 의병전쟁은 일제 36년 동안에 전개된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뿌리로서 그 의미가 자못 컸습니다.

둘째, 3·1운동, 그리고 1920년대와 1930년대에 줄기차게 전개된 독립운동이 모두 한말 의병전쟁을 비롯한 항일운동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3·1운동은 100년 전 전체 인구의 10%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참여했으며, 그 결과 독립선언서에 따른 민주공화제를 표방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셋째, 의병전쟁이 항일민족운동의 두 전략 노선인 독립전쟁노선과 독립평화노선 가운데 전쟁노선에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계몽주의적 평화노선이 자주 독립의 첩경이라 확신했던 독립협회·애국계몽운동 등 문화운동의 계열에 맞선 독립전쟁노선은 의병전쟁에서 시작되어 독립군·광복군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안중근을 비롯한 한말 무장투쟁과 대한광복회·의열단·애국단 등의 국내외 항일 무장투쟁 역시 독립전쟁의 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독립전쟁에 참여한 항일독립운동가들은 적든 많은 의병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일제와의 어떤 타협주의도 배격한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는 바로 의병전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일제의 침략에 항거해 18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초기의병부터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병탄한 1910년까지 우리나라 의병전쟁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윤강 이강년 의병대장 순국 110주년을 맞이하여 선생의 충절의 정신과 항일투쟁의 숭고한 위업을 기억·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의미 있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채 흥 호

I 윤강이강년의병대장 학술대회 자료집 인쇄 건에 대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자료집 앞표지와 뒷표지 순서가 뒤바뀌어 편집되어 인쇄되었습니다.
학술대회에 참가하신 분들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축사

국회의원 서영교



『운강이강년의병대장순국110주년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운강 이강년”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사)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이순규 회장직무대행과 (사)순국11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고영조·현한근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기념사업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제발표에 기여하여주신 학계 및 언론계의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일처럼 아름답고 숭고한 것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상황이 분명한데도 목숨을 기꺼이 내놓는 것이야말로 거룩하고 숭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강선생이 바로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대한제국의 혼란한 시대상황에서 근대화를 위한 고종황제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끼어드는 외세의 간섭과 탐관오리들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도 참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강년 의병부대의 전투기록을 살펴보면, 끊임없는 전투와 고난의 행군의 과정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군뿐만 아니라 추위와 굶주림과 맞서는 투쟁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강년 의병대장은 언제나 전투와 행군의 최전선에 있으면서 병사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그러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병사들에게 존경받고 엄정한 군령도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강년 의병대장의 리더십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대한제국시절의 의병전쟁부터 일제강점기의 광복군의 역사와 나라사랑정신은 하나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학술대회가 자라나는 청소년 및 모든 국민들에게 전달되어, 이강년 의병대장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온 나라에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뜻한 연말연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서울중앙(갑) 국회의원 서영교

축 사

국회의원 최교일



선열(先烈)들이 지켜온 순결하고 유구한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 또 한 해의 역사가 오롯이 보태어지는 연말을 맞아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 순국 1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학술대회를 준비해주신 (사)운강이강년선생 기념사업회 이순규 회장 직무대행과 (사)대한황실문화원 이 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주제발표에 임해주신 사계의 전문가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 한 해도 우리가 걸어온 길은 녹록치 않았습니니다. 앞으로의 길도 순탄하다 할 수 없습니다. 경제 불황, 양극화 문제, 계층 간 갈등, 무역분쟁, 북핵문제 등 참으로 커다란 위협과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순국선열들이 보여준 ‘대의명천 살신성인’의 정신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리는 운강 이강년의병대장 순국 11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그 의미가 각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강년 의병대장께서는 구한말의 불리한 환경하에서도 국권회복을 위해 처절하게 싸우셨고 선생의 의병투쟁은 우리나라 무장독립운동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선생께서 목숨 바친 항일 의병투쟁의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과 살신성인의 발자취는 마땅히 연구되고 선양되어 후세에 길이길이 계승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천만 민족이 장차 나와 같은 죽음을 당할 것이니 이것이 제일 원통하도다.”

일제의 교수대 위에서 남긴 선생의 마지막 탄식 속에서 우리는 선생의 비분강개와 애절한 동족 사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생께서 용인할 수 없었던 것은 일제와 같은 외세의 간섭과 나라를 팔아먹는 탐관오리들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전합니다. ‘이강년 의병대장과 같은 순국 선열들의 비원(悲願)이 영글고 영글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움직이고 이끌어 가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어느 역사가의 말이 새삼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모쪼록 오늘 학술대회가 운강 이강년의병대장의 기백과 지고지순한 나라사랑의 참 뜻을 되살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 연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국회의원 최교일

축사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이원



고종황제 증손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이원입니다.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 순국110주년기념 학술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병대장 운강 이강년의 삶은 대한제국의 자주독립과 신민국을 추구하기 위해 고독하게 싸우셨던 고종황제폐하의 삶과 맞물려있습니다.

대한제국기를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동안 개인의 일신영달과 자기 가족들만의 안위를 추구하는 일들을 포기하고 오직 나라의 독립을 위해 고군분투하셨던 수많은 광복지사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강이강년 의병대장은 그 어떤 광복지사들보다도 가장 모범적인 광복지사로 서의 표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에 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고종황제께서 주도하셨던 국권회복투쟁이 민족사관적인 관점에서 재조명된다는 점과 고종황제의 국권회복투쟁이 독립군과 광복군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 그리고 평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될 수 있게 된 커다란 주춧돌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연구과제가 된다 확신합니다. 논문의 발표를 맡아 주신 김종욱 교수님, 오영섭 교수님, 이태룡 박사님 그리고 본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사)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와 (사)순국11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관계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한 시간을 내시어 '운강이강년 의병대장 순국110주년기념 학술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학술대회가 성공되기 바라며 앞으로도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와 '순국11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더욱 더 발전되길 축원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사단법인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황사손 이원

축사

순국선열유족회장 김시명



안녕하십니까? 순국선열유족회장 김시명입니다.

오늘 순국선열 운강 이강년 장군 학술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기념사업회 이순규 회장직무대행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유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 그리고 발표해 주시는 김종욱 교수님, 오영섭 교수님, 이태룡 박사님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시는 배영대 기자님, 엄찬호 교수님, 전영복 교수님 감사합니다.

운강 장군께서는 효령대군의 18대손으로 일찍이 무관으로 벼슬에 나가셔서 나라의 동량이 되고자 하였으나 일본이 나라를 위협하고 갑신정변으로 국내정치의 난맥상이 드러나자 장군께서는 벼슬을 버리시고 의병을 모집하여 스스로 대장이 되어 안동 제천을 비롯한 강원도, 충청도, 경상북도를 주무대로 하여 대일 의병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자세한 활동 내역과 전과는 오늘 학술회의에서 여러 박사님들이 밝혀 주시겠지만 3·1운동 100주년을 벽두에 두고 2018년 마지막 달에 이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순국선열은 3,458분입니다. 이분들의 평균 사망년도를 계산해 보면 1,919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년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인 동시에 순국선열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3·1운동은 순국선열들이 전 국민을 이끌어서 결단한 세계적, 세기적 대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운강, 왕산같은 의병장들이 앞장선 의병활동이 3·1운동의 밑바탕이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 고종황제의 인산이라는 사건이 3·1운동이라는 세기적 사건의 발화점이 되었습니다. 3·1운동에서 우리 민족은 독립선언을 하였고 이 독립선언의 결과로 여러 곳에 임시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나라는 일제의 마수를 벗어나 독립하였습니다.

3·1운동이 가져온 이런 역사의 순서적 이행을 망각하고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순국선열보다 상해 임시정부를 앞세워서 정부가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으로 타이틀을 정한 것에 저는 유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원래 광복 70주년인 2015년에 국가보훈처장과 서울시장의 협약하여 순국선열 현충사를 크게 지어서 3·1운동 100주년에 준공하여 이 순국선열 현충사에서 대규모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홀연 임시정부가 끼어들어서 순국선열을 물리치고 임시정부가 그 자리를 차지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3·1운동의 순서적 역사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 임시정부 요인들에 의하여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오해를 심어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저는 유감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학술회의가 의병장들의 활약으로 국민을 깨우쳐 3·1운동의 밑거름이 형성된 것과 3·1운동에 의하여 한민족의 독립열망이 세계에 알려져서 결국 세계가 한민족의 독립을 승인하게 되었다는 순서적 역사 사실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운강 이강년의병장이 우리 대한민국에 끼치신 공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자는 제안을 하면서 발표자 여러분과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12월 19일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회장 김시명

축사

청권사 이사장 이갑재



오늘,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의 순국110주년기념학술대회를 맞아, 이순규 회장직무대행님과 발표자님들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뜻 깊은 행사가 열리게 된 데 대하여, 운강 선생과 같은 효령대군파 50만 후손들의 대표자로서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그리고 행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께서는 1907년 정미의병 때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거병하시어 '도창의대장'에 추대되신 후, 여러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시면서 일제에 맞서 싸우시다 장렬히 순국하시었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는 1962년 건국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으며, 문경시에서는 2002년 "운강이강년기념관"을 설립함으로써, 구국의 일념으로 거병하신 선생의 업적을 대대로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운강 선생을 추모하는 행사가 이곳 문경에서 다양하게 열려왔지만, 특히 금년에는 선생의 순국 11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까지 개최됨으로써 선생과 같은 효령대군 후손인 저희들로서는 감회가 매우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부끄럽게도 저희 후손들로서는 그동안 선생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못해왔으나, 다행히도 금번 순국110주년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작으나마 주어진 소임을 실천함으로써 선생의 빛나는 업적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입니다.

오늘,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의 순국110주년기념학술대회를 맞아, 기념사업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발표자님들, 그리고 행사 관계자 분들 모두와 함께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진행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사단법인 청권사 이사장 이갑재

헌 사

시인 이영식 / 대독 : 이순희 시인 (이강년선생 증손)



운강 이강년 의병장을 위한 헌사

하늘과 땅 사이
옳을 의義 한 자字 있음을 알아
굳게 가슴 속에 간직하고
양심이 격동함을 참을 수 없어
의의 깃발 들고 분연히 일어섰음이어
태양을 삼키는 꿈을 빌어 태어난
공공은 기골장대하고 학문 또한 깊어
경사經史에 통달하였으며
병신년(1896) 이래 13년간
구국의 성전, 의병을 일으켜
항일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음이어
내 집보다 국가의 존망을 앞세우고
창을 베게 삼아 분투하였으니
불꽃처럼 살다 가신 운강 이강년,
그 이름은 역사 위에 일월처럼 빛나고
나라사랑의 뿌리가 되었음이어
공의 행장行狀을 귀히 펼쳐 읽을 때마다
이 나라 만민의 사표師表이며
만세萬歲에 길이 빛날 구국의 상징
크고 거룩한 나무를 우러르게 되거나
운강 이강년, 의로운 님이시어
초개처럼 몸 바쳐 난적亂賊을 치던
의병들의 자발적 호국정신을
한 뿌리인 우리가 이어받게 하시고
만물 위에 공의로 뜻을 펼쳐서
능히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
세세만년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역사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이영식

2000년 「문학사상」 등단. 한국시문학상, 2012년 올해의 최우수예술가상 수상.
현재 초안산시발전소 소장. 시집: 「휴」, 「희망온도」, 「공갈빵이 먹고 싶다」.

“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중섭니다.
일본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죽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

어느 의병의 외침
(메켄지, 『조선의 비극』에서)





제1부

대회사

운강이강년선생기념사업회 회장직무대행 **이순규**

기념사

순국11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고영조 · 현한근**

축사

국가보훈처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이용기**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교**

축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교일**

축사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이원**

축사

순국선열유족회장 **김시명**

축사

청원사 이사장 **이갑재**

헌사

시인 **이영식** / 대독 **이순희** 유족

좌장 : **최기영**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최기영 교수는 서강대학교 사학과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며, 한국근현대사학회장(2000년~2003년) 및 한국사상사학회장(2009년~2010년)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한국근대사이다. 주요 저서로는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가의 삶과 투쟁』, 일조각, 2015, 『애국계몽운동 II : 문화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한국 근대 계몽사상 연구』, 일조각, 2003, 『식민지시기 민족지성과 문화운동』, 한울아카데미, 2003, 『한국근대계몽운동연구』, 일조각, 1997, 『대한제국시기 신문연구』, 일조각, 1991 등이 있다.



제2부

제1주제

고종의 거의밀지와 국민전쟁

발표

김종욱 교수(동국대학교)

토론

배영대 중앙일보 문화선임기자

제2주제

고종황제와 이강년의병장

발표

오영섭 교수(연세대학교)

토론

엄찬호 교수(강원대학교)

제3주제

운강 이강년의 도체찰사 제수와 순국과정 연구

발표

이태룡 소장(의병정신선양중앙회)

토론

전영복 교수(건국대학교)

종합토론

좌장 : 최기영 서강대학교 사학과 교수

고종의 거의밀지(舉義密旨)와 국민전쟁

- 대한제국 국군에서 대한민국 국군까지

김종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SSK패치워크문명연구팀

목 차

I. 들어가며/19

II. 고종의 거의밀지와 신존왕주의/22

1. 거의밀지(舉義密旨)와 항일봉기(抗日蜂起)/22
2. 신존왕주의(新尊王主義)와 자유·독립국가/25
3. 고종과 동학농민전쟁, 그리고 ‘아관망명’/28

III. 대한제국의 근대화와 ‘갑진왜란’/31

1. 대한제국의 근대화와 국군/31
2. ‘갑진왜란’과 러일전쟁/32
3. 고종황제의 독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여론전/35

IV. 고종황제의 거의밀지와 국민전쟁/38

1. ‘을사늑약’과 국민전쟁의 준비/38
2. 대한제국 군대 해산과 ‘국민전쟁’ 개시/41
3. 고종태황제의 독립전쟁 준비와 독립군·광복군의 항일전쟁/46

V. 마치며/49

I. 들어가며

- 고종의 항일독립의 발자취를 찾아서

고종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극단에 위치해 있다. ‘망국의 군주’라는 평가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흥행 이후 그래도 일제에 맞서 ‘결연히 싸운 군주’로 새롭게 해석되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어느 것이 진실이든 이런 극단적 평가를 받는 국왕도 드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조선일보』 칼럼은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고종의 길’ 사업을 반대하는 글을 실었다. 이유는 이렇다. “나라 빼앗긴 군주 이름을 내건 길이 세계 어디에 또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국민세금 들여 만드는 길이라면 고종에 대한 ‘연민’ 수준을 넘어서 “망국의 원인을 되짚으며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는 현장”으로 만들라는 주문이다. 거기에 더해 고종이 왕가(王家)를 황가(皇家)로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국가를 지키는데 실패했다면 맹비난한다.¹⁾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가져온 기사이며, 야박하기 그지없는 내용이다. 우리가 잊고 있는 것, 기록되지 않은 것, 전달되지 않은 것, 흔적을 없앤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역사를 왜곡했고, 우리는 그 질곡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백성의 신음소리와 비명소리, 동학농민·의병·해산국군의 아우성·분노·함성, 이들의 전투와 투쟁 등은 언어화되지 않았고, 민중적 혁명철학(개벽사상·일군만민신화·신존왕주의)은 또렷하게 언명되거나 이론화되지 않았으며, 고종과 400-500명에 달한 별입시들 간의 수많은 비밀보고와 비밀지령은 기록조차 되지 않았고, 고종이 무수히 발령한 밀명과 밀지, 그리고 소수의 의병전투 등은 문자로 기록되었으나 식민시기를 통과하면서 민가의 곳간바닥과 일제의 창고 속에서 적잖이 훼손되거나 망실되어버렸다. 또 친일괴뢰와 일제앞잡이들의 불계음도(不軌陰圖)와 흉계, 극비음모와 밀정행각 등은 기록은커녕 아예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고 공개·발설된 적도 없으며, 비밀리에 기록된 적이 있더라도 식민지시대를 통과하면서 거의 다 일제에 의해 위조되거나 인멸되었다. 이런 식으로 사료 더미는 지극히 비대칭적으로 빠져어져 있다.²⁾

우리는 이런 왜곡의 지점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시작이며 우리가 밝혀야 할 것들이다. 고종은 1894년 일제에 의한 경복궁 침탈부터 1919년 일제에 의해 ‘독시(毒弑)’ 당할 때까지 근 25년 이상 나라의 독립과 백성의 자유를 위해 항일과 근대화에 앞장섰다. 고종은 25년 동안, 국난에 처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제의 포로상태에서도 ‘거의밀지(擧義密旨)’를 통해 항일전쟁을 전개했고, 국모의 처참한 죽음을 뚫고 목숨을 건 망명으로 항일정부를 수립했고, 나라의 공고한 독립을 위해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개칭했으며, 나라의 근대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백성의 자유와 번영을 실천했고, 일제의 두 번째 침탈에 맞서 다시 ‘거의밀지’를 통해 국민전쟁을 추진함으로써 일제의 병탄 야욕을 1910년까지 막아냈으며, 마지막 외교적 호소와 망명정부 수립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전개하다가 일제에 의해 독시되었다. 고종은 나라의 주인인 백성들³⁾, 경

1) “[동서남북] ‘고종의 길’은 실패한 길이다.” 『조선일보』, 2018년 11월 21일.

2) 황태연,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파주: 청계, 2017), 71~72쪽.

3) 고종은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고 백성은 나라에 의지하는 것이니, 백성이 편안하면 나라가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

향각지에서 일어선 의병, 대한제국 시기 육성된 국군과 함께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쳤다.

나라가 망하는 데는 거룩하게 망하는 길이 있고, 더럽게 망하는 길이 있다. 일반 백성들이 의를 붙들고 끝까지 싸우다가 복몰(覆沒)하는 것은 거룩하게 망하는 것이요. 일반 백성과 신하가 적에게 아부하다 핏에 빠져 항복하는 것은 더럽게 망하는 것이다.

- 김구, 『백범일지』

1894년 동학봉기에 실패하고 피신해 있던 열아홉 살의 김구에게 고능선(高能善)이라는 시골선비가 들려준 이야기다. 이 노선비는 ‘일반백성들이 의를 붙들고 끝까지 싸우다가’ 망하는 것은 ‘거룩하게 망하는’ 길이고, ‘일반백성과 신하가 적에게 아부하다 핏에 빠져 항복하는 것은’ ‘더럽게 망하는’ 길이라며, 나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밝히고 있다. 고종은 나라의 독립을 여생을 싸웠다. 그래서 임병찬(林炳贊)은 일제 헌병 대대장 수간춘명(水間春明)에게 다음과 같이 당당하게 추궁한 것이다.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사람은 죽지 않는 사람이 없다. 지금 한국의 병세(兵勢)가 일본에 미치지 못하여 반드시 망할 것이니 임금과 신하가 성을 등지고 한 번 싸워서 나라가 망하고 사람도 죽으면 진실로 유감이 없을 것인데 어찌 그 벼슬을 보존하기 위하여 감히 그 임금을 폐한단 말이나.¹⁾

이 발표문은 ‘고종의 항일독립 발자취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1894년 ‘갑오왜란’부터 1945년 해방까지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으로 나아간 파란만장한 항일전쟁 과정에서 고종의 역할은 어떠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동학은 민중종교로서 인간존중과 남녀평등의 가치를 전 사회에 전파했고, 1894년 동학농민전쟁에서 신분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국가를 위해 투쟁했으며, 일본의 침략에 맞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리고 항일전쟁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한제국 국군과 경향 각지의 의병들과 독립군들에 의해 광복이 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3·1운동은 200~300만 명에 육박하는 동학교도(천도교인)들이 주도하여 전개하였다. 구한말 국민의 형성은 동학의 보국안민 사상과 신존왕주의를 통해 가능했다. 동시에 고종과 민 왕후의 목숨을 건 노력도 재평가되어야 한다. 민 왕후의 죽음을 통해 대한제국은 부활했고, 고종의 죽음을 계기로 3·1운동이 촉발하고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상해임시정부에 의해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우리 역사는 백성과 국왕의 불굴의 반일 항전과 근대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 속에서 해방과 광복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²⁾ 그 항일의 여정에는 수많은 민초와 의병들의 삶과 죽음이 스며있다. 목숨으로

하면 백성도 편안하다(夫國依於民, 民依於國 民安而國安, 國安而民亦安)”라는 ‘민국상여(民國相與)’ 이념을 제시했다. 『高宗實錄』, 고종 40(1903, 광무7)년 3월 15일(양력). 그리고 고종은 폐위된 이후 1909년 3월 15일 ‘서북간도와 부근각지 인민들에 대한 칙유’에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民惟邦本)라고 했으니, 이것은 나 1인의 대만이 아니라 실로 오로지 그대들 만백성의 대한이라는 것이니라!”라고 민국(民國)이념을 선언했다. 『諭西北間島及附近各地民人等處』(1909년 3월 15일), 『宮中秘書』(李王職實錄編纂會, 1927), 왕실도서관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1) 임병찬, 「돈헌문답기」,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엮음, 『獨立運動史資料集: 義兵抗爭史 資料集(第2輯)』 (서울: 고려서림, 1971·1984), 119쪽.

2) 김종옥, 『근대의 경계를 넘은 사람들: 조선 후기, 여성해방과 어린이 존중의 근대화 이야기』(서울: 모시는 사람들,

지키려 했던 나라와 삶으로 맞이하고 싶었던 독립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51년의 대장정에서 고
종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2018), 21~22쪽.

Ⅱ. 고종의 거의밀지와 신존왕주의

1. 거의밀지(舉義密旨)와 항일봉기(抗日蜂起)

1894년 7월 23일 일제의 경복궁 점령으로 시작된 ‘갑오왜란’ 이후 일어난 항일봉기는 고종이 거의를 촉구한 밀지에서 시작되었다. 일제가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억류·유폐하고 친일정권을 수립함으로써 고종의 왕권은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며, 일제는 고종의 왕권을 강취했다. 따라서 고종은 일제의 침략에 맞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상실되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고종은 비밀리에 밀지 등을 통해 백성의 거국적 봉기와 거의를 촉구한 것이다. 항일봉기를 촉구하는 고종의 밀지는 별입시(別入侍)들에 의해 전달되었다.

별입시는 “국왕과의 긴밀한 면의(面議)를 통해 기밀정무의 논의·수립을 하는 사람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국왕의 신경망과 수족 같은 존재로 발전”했으며, 별입시라는 비공식 직함을 가진 “인물들은 공식적 정부기구를 우회하여 별도로 임금을 직접 독대하여 보고하고 의정(議定)하고 명을 받았다.”¹⁾ 고종은 상당히 많고 다양한 계층의 별입시들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현에 따르면 “위로는 공경대부에서부터 아래로는 종이나 장사꾼들에 이르기까지 끌어들이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들은 대부분 ‘별입시’라고 불렸는데, 이때 별입시가 400~500명에 이르렀다.”²⁾ 모든 별입시가 밀지를 전달한 것은 아니지만, 별입시들에 의해 전달된 고종의 밀지는 항일투쟁의 핵심증표였다.

동시에 별입시 중 판서급(2품) 이상의 고위직을 역임한 명망 있는 전직관리들은 자신들이 직접 지방으로 낙향하거나 수하들을 보내 재야세력과 연대하여 거의를 추진했다.³⁾ 그래서 오영섭은 “한말 의병운동은 재야세력만의 자발적·독자적 항일민족운동이 아니라 중앙의 고종세력과 긴밀한 연계 하에 조직적·연합적으로 추진된 항일민족운동”으로 정의했다. 이 별입시 밀사들은 “① 고종 명의를 밀지나 당부나 권고를 재야세력에 전달하여 그들에게 거의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고, ② 전국 각지를 유력하며 거의촉구 활동을 폈으며, ③ 직접 군사를 모집하여 의병장에 올라 항일전을 치르기도 하였고, ④ 대규모 연합의진의 전략·전술과 재정 조달을 책임지는 총독장·모사장·참모장·중군장·참모·종사” 등의 직책을 맡아 항일봉기와 전쟁을 수행했다.⁴⁾ 따라서 의병들의 거의는 대부분 고종의 밀지 또는 밀지에 준하는 다양한 방식의 전달을 통해 시작되었다.⁵⁾ 이런 고로 용일(容日)주의자였던 정교(鄭喬)는 “각지의 의병은 모두 임금의 밀지를 받고 일어났다”고 한 것이다.⁶⁾

고종과 별입시들의 연계에 의한 거의 전략·전술은 일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다.

1) 황태연, 『갑오왜란과 아관망명』(파주: 청계, 2017), 119쪽.

2) 황현 저, 김종익 역, 『오하기문』(고양: 역사비평사, 1994), 43쪽.

3) 황태연,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122쪽.

4)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서울: 선인, 2007), 28쪽.

5) 밀지는 보통 밀지·밀칙·밀조·칙령·의대조·애통조 등으로 불린 문건들이다. 앞의 책, 66쪽.

6) 정교 저, 이철성 역, 『대한계년사(2)』(서울: 소명, 2004), 160쪽.

그래서 일제는 ‘궁금숙청’(宮禁肅淸, 잡인출입을 막아 궁금)을 통해 고종과 별입시의 만남 자체를 근절하려고 했던 것이다. 예를 들면, 1906년 6월 28일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만나서 세 가지 안건을 보고했는데, 첫째, 궁궐을 엄숙히 단속하여 깨끗이 바로잡는 조치를 실시하는 일, 둘째, 의병이 함부로 날 뛰는데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해 밝히는 일, 셋째, 궁내부에서 소장하는 마패(馬牌)와 유척(鑰尺)을 김승민(金升旼)이 어찌된 영문으로 몸에 지니고 있었는가 하는 일 등이었다.¹⁾ 이 모두 별입시와 항일의병에 관련된 것이었다.

또한 주한공사관기록이나 통감부기록에 의해서도 고종과 별입시들의 다양한 항일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일이 “궁중의 사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든다는 보고²⁾,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의병에 대해 “궁중잡배들의 수령으로서 황제의 신임이 두텁다고 소문난 민형식(閔炯植) 등의 사주”로 일어난 듯하다는 보고³⁾, 충청북도에서 일어난 의병에 대해 “적의 수괴는 민종식(閔宗植, 민형식의 재종아우), 그 참모는 구완희(具完禧)”라는 보고⁴⁾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일제는 “근래 궁중잡배들의 출입이 빈번하여 이대로 버려둔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한국 황제에게 진상하여 그 동의를 얻어 궁궐 외문을 단속”한 것이다.⁵⁾

의병에 대한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 박은식(1859~1925)은 의병을 “국가가 위급할 때에 의리로 즉각 일어나 조정의 징발령을 기다리지 않고 종군한, 적개심에 불타는 사람들”로서 ‘민군(民軍)’이라 했다.⁶⁾ 이런 정의라면 고종시대에 봉기한 의병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다. ‘갑오왜란’ 이후 일어난 의병 대부분은 고종과 근왕세력(勤王勢力)의 거의밀명에 따랐고, 정교가 언급했듯 “각처 의병은 모두 밀칙을 받고 일어났기” 때문이다. 즉, 왕의 밀지가 없다면 거병의 명분이 확보되지 않았다. 기우만(奇宇萬, 1846~1916)은 1896년 정월 의병을 일으키려 했으나, 의병을 사적으로 일으킬 수 없어 염려하던 중 의암 유인석(柳麟錫)이 고종의 조서를 받들고 경기도 내에서 창의했다는 격문이 오니 그때야 비로소 거병을 추진했다.⁷⁾ 기우만은 “옛날에 의병을 일으키는 데는 위로는 임금의 애통조가 있었”⁸⁾다고 언급함으로써, 의병투쟁에서 왕의 밀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왕의 명령 없이 병장기를 들고 군사를 모으는 행위는 반역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왕의 밀지는 무단거병을 모반대역죄로 간주하는 유교적 형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증표인 것이다. 동시에 왕은 밀지를 통해 자신이 지닌 행정적·경제적·군사적 권능의 일부를 재

1) 정교 저, 김우철 역, 『대한계년사(8)』(서울: 소명, 2004), 49쪽. 김승민은 함경남도 함주 출신으로 1906년 비서감(秘書監)으로 있을 때, 항일의병과 내통했다는 밀칙사건으로 2년간 복역했다.

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권, 一一. 保護條約 一~三, (155) ‘韓日協約 파기 상소 운동자에 관한 件’(1905년 12월 2일) 林 公使→小村 大臣, 桂 外務大臣

3) 『統監府文書』 3권, 二. 往來電合綴, (45) ‘忠淸南道 폭도 궁중잡배 首領 閔炯植의 使噓說 사실 탐색 중’(1906년 05월 22일), 長官→統監.

4) 『統監府文書』 3권, 二. 往來電合綴, (54) ‘洪州城 폭도 진압작전에 관한 보고’(1906년 05월 26일), 鶴原 長官→東京 伊藤 統監.

5) 『統監府文書』 3권, 二. 往來電合綴, (143) ‘宮闕 外門 단속과 宮內 질서유지 조치 件’(1906년 07월 03일), 統監→西園寺.

6) 박은식 지음(1920), 김도형 옮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서울: 소명출판, 2008), 71쪽.

7) 엄찬호, 「高宗의 對義兵 密勅研究」, 『한일관계사연구』 7권(1997), 15쪽.

8) 기우만, 「湖南義兵將列傳-金翼中傳」, 『獨立運動史資料集(第2輯)』, 956쪽.

야의병장에게 위임하여 효과적으로 적을 방어하도록 한 것이다.¹⁾ 일례로 이석용(李錫庸, 1878~1914)은 고종황제의 밀지를 받지 않고 일어났다하여 주변의 유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²⁾ 고종도 자신의 밀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고종은 ‘아관망명’ 직후, 친 일내각을 혁파하고 직할정치를 실행하면서 의병활동 중단을 명했다.³⁾ 이 해산령으로, 1896년 2월 18일 이후의 유인석·이소응 등 위정척사세력의 성리학적 유생부대는 ‘비적’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갑오년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국왕의 밀지도 없이 봉기한 성리학유생들의 ‘창의군’·‘민보군’도 ‘비적’인 것이다.⁴⁾

따라서 1894년 ‘갑오왜란’부터 대한제국 전후에 거병한 ‘의병’은 “문민이나 해산군인이 국왕으로부터 비밀리에 또는 공개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그리고 사전·사후 직간접적으로 거의 명령을 수명(受命)함으로써 그 국민적 공의성(公義性)을 인정받아 ‘왕의 군사’가 된 군인들”이다.⁵⁾ 그래서 1907년 봄 제천에서 거병한 이강년 의병은 “우리는 고종 황제의 밀칙을 받았으니 우리 군사는 천졸(天卒)이라”⁶⁾고 천명한 것이다. 즉 자발적으로 봉기를 했더라도 사전·사후의 거의밀지·밀유·밀칙 또는 공개 교지를 받아야만 ‘천졸’의 자부심을 갖고 ‘의병’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⁷⁾

또 주목해야 할 것은 1910년 국치 이후, 고종의 밀칙을 받는 것이 어려웠던 의병들은 고종태황제가 사용한 용어를 통해 부대의 이름을 ‘독립군’ 또는 ‘광복군’으로 칭했다는 점이다. 고종은 ‘독립의군부’를 조직하라는 밀지에서 ‘광복’과 ‘독립의군부’라는 용어가 등장한다.⁸⁾ 이처럼 의병은 고종의 거의밀지를 통해 봉기의 정당성과 명령권을 확보했다. 전투를 위한 의병모집, 자금모금 등의 근본원천도 밀지였다. 즉, “재야세력의 항일운동이 고종세력의 지원과 협조를 통하여 정통성과 적법성을 확보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운동의 강렬성·연합성·전국성·지속성이 담보”되었던 것이다.⁹⁾

1)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104쪽.

2) 앞의 책, 86쪽.

3) “천도(天道)가 부정한 자에게 재앙을 내려 난신(亂臣)은 처단당하고 남은 수괴들은 이미 다 귀양 갔으니 이는 실로 하늘에 있는 조종(祖宗)들의 말없는 도움에 의하여 나라의 운수를 역만 년 연장한 것이다. 너희들 백성들은 지방에 있어 이 기쁜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하였거나 혹은 떠도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지금까지도 해산하여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부(內部)에 칙명을 내려 관원을 따로 파견해서 너희들 백성들에게 상세히 알리게 하니, 지금의 형세를 헤아리고 짐의 고충을 살피어 즉시 서로 이끌고 물러가서 원래의 생업에 안착하라. 조정에서 인의(仁義)의 도(道)로 너희들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니 너희들 백성들은 기꺼이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너희들이 망설이고 머뭇거리면서 의병을 일으키던 초심(初心)을 바꾸어 교화(教化)를 방해하는 그릇된 습성을 보인다면 이것은 너희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다.” 『高宗實錄』, 고종 33(1896)년 2월 18일(양력).

4) 황태연,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126쪽.

5) 앞의 책, 125쪽.

6) 權用佾(權淸隱), 「丁未倭亂倡義錄: 權淸隱履歷誌」, 『창작과 비평』(1977 겨울호), 215쪽.

7) 황태연,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128쪽.

8) “오로지 그대들만 믿는바, 그대들은 이를 체득하고 힘을 모아 광복하라. 무릇 관작과 상이 있을 것을 산하에 맹세하노라. 이에 혈조를 내리니 독립의군부를 조직하라. 그대들은 모름지기 많은 재사들을 규합하여 백성을 이끌고 진취를 기약하라. 그 공을 아름답게 아리라. 오호! 지실하라. 당일로 계하여 독립의군부 총무총장을 명한다(攸特唯爾爾等其體戮力光復 凡在爵賞誓指山河! 玆降血詔 組織獨立義軍府. 爾等須糾合多士 將率百姓 克期進取. 膺奏厥功. 嗚呼 知悉. 當日啓下 命獨立義軍府總務總長).” 이구영 편역, 『湖西義兵事蹟』(제천: 제천군문화원, 1994), 835쪽.

9)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22쪽.

2. 신존왕주의(新尊王主義)와 자유·독립국가

임술민란(1862년) 이후부터 민중들의 권력의지는 ‘경사(京師) 직향(直向)’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신존왕주의’로 전환되었다. 서울로 직향해서 권귀(權貴)를 물리치고 왕을 중심으로 ‘개벽 세상’을 꿈꾸었던 것이다. 신존왕주의는 “임진·병자 양란에 대한 기억 속에서, 그리고 이양선의 출몰과 영불연합군에 의한 북경함락(1860)으로 표현된 서세동점의 문명 위기 속에서 청국·일본·서양에 대한 강한 방어 의식”과 임술민란 과정에서 백성들이 절실하게 느낀 국왕의 눈귀를 가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중앙 권귀에 대한 강력한 원한 속에서 수령·이향과 세도가문의 세도정치체제를 배격하고 왕권의 회복과 강화를 통한 국왕친정체제의 확립과 국정혁신, 그리고 신분타파 등을 현실적 요구로 반영하면서 나타난 시대적 사상이다.¹⁾

따라서 한국적 신존왕주의는 외세의 침탈을 방어하는 ‘보국안민(保國安民)’과 문명적 위기를 극복하는 ‘민중적 조선중화론’을 통해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고, ‘구본신참’에 입각한 개벽세상을 국왕과 백성의 연합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다. 국왕을 중심으로 세우려면 권귀·세도집단을 물리쳐야 하는데 그것은 신분철폐를 통해 가능하다. 즉, 봉건적 신분질서를 혁파하고 자유유롭고 해방된 백성이 왕을 중심으로 독립을 유지하면서 나라의 근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그 시대의 정치사상이었다. 신존왕주의가 신분철폐와 근대화를 실천하는 사상이라면, 그것은 혁명성과 근대성을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감록』의 역성혁명적·왕조교체설적 개벽사상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인 ‘개벽’만 취하고 “역성혁명적 왕조교체설과 도참설적 요소를 털어내고 현존하는 국왕의 권위를 높이는 존왕의식과 이렇게 높여진 왕권을 이용하여 권귀·세도정치를 전복하고 신분체제를 타파하는 ‘존왕개벽’ 또는 ‘존왕멸귀(尊王滅貴, 임금을 높여 권귀를 타도함)의 새로운 혁명이념”이 된 것이다.²⁾ 고종은 이에 응답하여 1882년 서북인(西北人), 송도인(松都人), 서열(庶孽), 의원(醫院), 역관(譯官), 서리(胥吏), 군오(軍伍)들도 일체 현직(顯職)에 통용하게 하여 인재등용의 문을 넓히고 신분의 벽을 부분적으로 허물었다.³⁾ 4년 뒤인 1886년 드디어 노비해방절목을 공포하여 신분을 완전히 철폐했다.⁴⁾ 이미 동학은 1860년대 초반부터 사실상의 신분평등사회를 실천했다. 『도남서원통문(道南書院通文)』(1863.12.1.)은 당시 동학교도들을 “하나같이 귀천의 차등을 두지 않고 백정과 술장사들이 어울리며 얹은 휘장을 치고 남녀가 뒤섞여서 흠어미와 흠아비가 가까이 하며 재물이 있든 없든 서로 돕기를 좋아하니 가난한 이들이 기뻐한다”고 묘사했다.⁵⁾

이처럼 백성과 국왕은 신분을 철폐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연합체제의 구상을 신존왕주의를 통해 실천했다. 그 와중에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침공은 ‘보국안민’의 기치 아래 백성과 국왕의 연합항전이 실천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의 침공 이전 동학교도들은 「무장포고문」(1894.3.20.

1) 황태연,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158쪽.

2) 앞의 책, 160쪽.

3) 『高宗實錄』, 고종 19(1882)년 7월 22일.

4) 『高宗實錄』, 고종 23(1886)년 3월 11일.

5) “一貴賤而等威無別 則屠沽者往焉 混男女而帷薄爲設 則怨曠者就焉 好貨財以有無相資 則貧窮者悅焉.” 崔承熙 編, 『韓國思想史資料選集: 朝鮮後期篇』(서울: 亞細亞文化社, 1986), 440쪽.

[음]을 통해 조선왕조의 폐정(弊政) 개혁을 위한 봉기를 촉구했다. 그 내용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지금 우리 임금님께서서는 어질며 효성스럽고 자애로우며, 귀신과 같은 총명함과 성인과 같은 예지를 갖추셨으니, 현명하고 정직한 신하들이 보좌하여 돕기만 한다면 요(堯) 임금과 순(舜) 임금 때의 교화(教化)와 한(漢)나라 문제(文帝)와 경제(景帝) 때의 다스림에 도달하는 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키는 것처럼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신하라는 자들은 나라의 은혜에 보답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한갓 봉록(俸祿)과 벼슬자리만 탐내면서 임금님의 총명을 가린 채 아첨만을 일삼고 있으며, …백성들은 나라의 근본인 바, 근본이 깎이면 나라 역시 쇠잔해지는 법이다. …우리 동학농민군들은 비록 시골에 사는 이름 없는 백성들이지만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이 땅에서는 나는 것을 입고 사는 까닭에 나라의 위태로움을 차마 앉아서 볼 수 없어서 팔도가 마음을 함께 하고 억조(億兆)창생들과 서로 상의하여 오늘의 이 의로운 깃발을 들어 잘못되어 가는 나라를 바로잡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 것을 죽음으로써 맹세하노니.¹⁾

학자들에 의해 ‘충군애국사상’으로 지칭되는 신존왕주의적 언어들이 나타나고 있다. 동학군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임으로 선언하면서, ‘성인과 같은 예지’를 갖춘 ‘임금’을 ‘현명하고 정직한 신하들이 보좌’하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 봉기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탐관오리들의 폐정을 엄단하고, 민본주의를 강화하자는 것이다.²⁾ 즉 민본(民本)과 존왕(尊王)의 결합을 통한 개벽세상의 도래가 동학군의 지상과제였던 것이다. 1894년 음력 3월 25일(양력 4월 30일) 동학농민군이 발표한 「사개명의(四個名義)」의 제4조에 “병력을 몰아 서울에 입경해 권귀를 진멸하고, 기강을 크게 떨쳐 명분을 입정(立定)하고, 이로써 성훈(聖訓)을 따르게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제3조에 “왜이를 축멸해 성도를 맑힌다(逐滅倭夷澄清聖道)라고 밝혔다.³⁾

이는 ‘성도(聖道)’인 ‘성군의 왕도(王道)’와 ‘성훈(聖訓)’인 ‘성군(聖君)의 유훈(諭訓)’을 뜻하므로, 농민군은 서울로 직행해서 권귀를 없애고 고종과 함께 개벽세상을 만드는 것이 봉기의 명분이었다. ‘성훈’과 ‘성도’를 동학 제1대 교주 수운 최제우 또는 제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을 뜻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동학농민군의 지휘자 전봉준은 1895년 3월 2일 공초에서 “이씨가 오백년에 이르러 망한다고 운운하는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모든 사람이 이 예언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그것이 어떤 뜻인지는 알지 못한다. 역시 이와 같은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우리 임금을 폐하고서 또한 누구를 받들겠는가?”⁴⁾라고 답한 것을 봤을 때, 동학농민군은 고종과 함께 개벽세상을 만들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래의 내용을 통해 전봉준이 추구한 개벽세상을 추정할 수 있다.

일본병을 물리치고 간악한 관리를 내쫓고 임금 주변을 말끔하게 한 뒤에 어떤 선비를 기둥으로 세워

1) 박매수, 『사료로 보는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서울: 모시는사람들, 2009), 252~253쪽.

2) 이영재, 『근대와 민』(서울: 모시는사람들, 2018), 216쪽.

3) 정교, 『대한계년사(2)』, 24쪽. 정교, 『大韓季年史(上)』, 74쪽(卷之二 高宗皇帝, 建陽元年). 『한국사료총서』 5집,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三月 二十五日 … 四個名義, 一曰不殺人不殺物, 二曰忠孝雙全濟世安民, 三曰逐滅倭夷澄清聖道, 四曰驅兵入京盡滅權貴 大振紀綱立定名分 以從聖訓.” 황태연의 번역을 인용했다. 황태연, 『한국근대화의 정치사상』(파주: 청계, 2018), 470쪽.

4) 『大阪朝日新聞』, 1895년 3월 3일 「全祿斗の申供」. 『동학농민혁명자료총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정치를 집정하게 하고(何人か柱石の士を押立て政治を執らしめ) 우리는 곧장 고향으로 돌아가 본업인 농업에 종사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국사(國事)를 몽땅 일인(一人)의 세력가에게 위임하는 것은 폐해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명사들이 협력해서 합의제(合議法)로 정치를 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¹⁾

전봉준은 ‘임금 주변’의 일본병과 간악한 관리를 일소(一掃)하고, ‘어떤 선비를 기둥으로 세워 정치를 집정’하는 ‘합의제’ 정치를 실현하는 것이 봉기의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경복궁을 강제 침공하고 왕을 포로로 만든 일제를 몰아내고, 일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김홍집 ‘친일괴뢰내각’을 타도하여, 임금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한 뒤에 고종을 중심으로 ‘의정부 합의제’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²⁾ 고종의 중심성은 고종이 동학군에 내린 밀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그대들은 선왕의 조정으로부터 교화 속에 내려온 백성들이니 선왕의 은덕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숭상 보존하고 있도다. 조정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저들에게 붙어서 안에는 의논할 자가 한 사람도 없으니, 외롭고 외롭게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통곡할 따름이다. 방금 왜구들이 범궐하여 화가 종사에 미쳐 명이 조석에 달렸다. 사태가 이에 이르렀으니 만약 그대들이 오지 않으면 박두하는 화환을 어찌하랴. 이에 교시하노라.³⁾

고종은 절박하게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촉구한 것이다. 전봉준은 이 밀지를 농민군 지도자들과 회람하면서 고종의 ‘옥체(玉體)’를 걱정하고 있다. “대궐로부터 밀교(密敎)가 와 있습니다. 초모사 이건영을 보내 여기에 도착해서 뜻을 같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왜인에게 누설되면 화가 옥체에 미치므로 내밀하게 숨기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의룡·윤판·화중 형네들 회람.”⁴⁾ 이것만 보더라도 전봉준의 신존왕주의적 또는 충군애국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외에도 고종은 1894년 8월 동학교도와 삼남유생, 전직 관리, 보부상 두령 등에게 밀지를 내려 의용군을 소모하여 봉기하라는 뜻을 전한다. 또한 전 승지 이건영을 통해 호남에서 소모(召募)를 촉구하는 밀유(密諭)를 보내고, 지방수령에게는 이 소모사들에게 재정지원을 하라는 밀유도 동시에 보냈다.⁵⁾ 그리고 삼남의 부자들에게도 동학군과 거의할 것을 촉구하는 밀지를 내렸다.

이렇듯 당대 백성들은 신존왕주의적 시대사상에 근거하여 고종을 중심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개벽세상을 꿈꾸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려는 나라를 침탈한 일제를 몰아내는 ‘보국안민(保國安民)’의 기치 아래 봉기했다. 동시에 고종은 밀지를 통해 나라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봉기할 것을 촉구했다. 백성과 고종은 1894년 ‘갑오왜란’부터 끈질기게 백성의 자유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항일항전의 길에 온 몸을 내던졌다. 그러나 신분이 철폐되어 자유롭고 평등한 백성의 나라(民國)를 백성과 고종이 연합하여 만들어가려는 꿈은 일제의 침탈로 무참히 무너져 버렸다.

1) 『東京朝日新聞』, 明治28年 3月 6日 「朝鮮時事」; 『大阪朝日新聞』, 明治28年 3月 6日 「東學首領と合議政治」. 『동학농민혁명자료총서(22-2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 황태연, 『한국근대화의 정치사상』, 474쪽.

3) “即遣三南召募使李建永密示爾等. 爾等 自先王朝 化中遺民 不忘先王之恩德 而至今尚存. 在朝者盡附彼 裏內無一人 相議 焚々獨坐 仰天號哭而已 方令倭寇犯闕 禍及宗社 命在朝夕. 事機到此 爾若不來 迫頭禍患 是若奈何 以此教示.” 『東學文書』, 「義兵召集密諭」. 『동학농민혁명자료총서(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4) “自大內有密敎 送召募使李建永到此邊同義 而此說泄於倭 則禍及玉體 慎慎秘密. 義龍月波和仲 兄宅 輪回.” 『駐韓日本公使館記錄』, 三.各領事館其他往復 一, (6) ‘東學黨事件에 대한 會審顛末 具報’(1895년 9월 2일) [別紙 第2號 (1-2): 同伴 密旨의 漏洩防止 指示文], 一等領事 內田定槌→井上馨.

5) 『東學文書』, 「義兵義金召募密諭(三)」, 『동학농민혁명자료총서(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 고종과 동학농민전쟁, 그리고 ‘아관망명’

일제의 ‘경복궁 무력침공’은 일개 ‘정변’이나 단순한 ‘범궐사건’이나 ‘1일’ 전쟁이 아니라, 국제법 위반이자 명백한 침략전쟁이다.¹⁾ 일본 학자 와다 하루키도 1894년 일제의 경복궁 침공을 ‘일조전쟁(日朝戰爭)’이며, 청일전쟁은 ‘조선전쟁’으로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조선을 노린 전쟁’, ‘조선에서의 전쟁’이 명확한 성격 규정이라는 것이다.²⁾ 나라를 지키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이 발생했다. 오지영의 『동학사』에 의하면 전후 피해자가 3~4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고, 『천도교창건사』는 ‘피살자’ 수를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조경달은 전체 희생자 3만 명 이상에 부상 후 사망자를 더하면 5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 추정했다.³⁾ 이를 종합하면 1894년 7월부터 1895년 2월까지 근 7개월 동안 동학·의병 등 재야척왜세력과 애국관군의 총 전사자는 2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근 7개월 동안 매일 1,000명 이상의 조선 백성이 나라의 독립을 위한 의병전쟁에 목숨을 바친 것이다.⁴⁾ 이 얼마나 슬픈 죽음이며 거룩한 희생이란 말인가.

그러나 이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동학농민군과 의병은 일제에게 패배한 이후 1910년까지 나라가 어려울 때면 분연히 일어나 지속적인 항쟁을 전개했다. 을미왜변, 단발령, 을사늑약, 정미7조약, 군대해산, 병탄에 이르기까지 기꺼이 의병의 이름으로 항쟁의 전장에 투신했다. 이런 사실은 윤치호(尹致昊)의 일기에서도 확인된다. 윤치호는 을미의병이 “대부분 동학의 잔당들”이라 적고 있다.⁵⁾ 친일파인 윤치호답게 ‘동학의 잔당들’로 표현했지만, 동학농민전쟁이 을미의병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07년 8월 1일 군대가 해산당한 이후 동학군은 한국군 장병들과 합류하여 독립군과 광복군으로 발전했다. 1894년의 농민군이 세대를 이어가며 1945년 해방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을사·정미의병에는 동학농민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동학교도들이 의병장 역할을 했다. 이 사실은 윤강 이강년 선생의 의병활동에서 확인된다. 윤강은 1894년 가을, 30대 중반의 나이에 농민들을 조직하여 봉기했다.⁶⁾ ‘불패신화의 윤강’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농민군에 투신했고, 윤강의 휘하에는 “농민군으로 활약하며 심산유곡을 누볐던 많은 농민들은 다수가 훗날 다시 이강년 휘하에서 의병항쟁에 가담하여 보급조달·지형탐색·현지정보망 구축 등 군사작전에 크게 기여했다.”⁷⁾ 이처럼 의병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지도자는 대부분 유생들이 담당했으나, 그 기본 대열을 구성한 것은 농민 대중이었다.⁸⁾ 을미의병 당시 “의병을 선도한 유생집단은 항일전쟁을 직접 수행하자니 다수의 자원병들을 필요로 했고, 농민군은 일찍이 자신들이 전개했던 제2차 동학혁명운동의 기본노선과 일치되는 반일·반제국주의 목표를 위해 보다 광범하고 다양한

1) 이영재, 『근대와 민』, 221쪽.

2) 와다 하루키 저, 이경희 역, 『러일전쟁과 대한제국』(서울: 제이앤씨, 2011), 31쪽.

3) 吳知泳, 『歷史小說 東學史』(京城: 永昌書館, 昭和15年[1940]), 154-155쪽. 李墩化, 『天道敎創建司』(서울: 천도교중앙총리원, 1943), 69쪽. 조경달 저, 박맹수 역, 『이단의 민중반란』(서울: 역사비평사, 2008), 329쪽.

4) 황태연,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238쪽.

5) 국사편찬위원회 편, 『尹致昊日記』(서울: 탐구당, 1975), 1896년 3월 10일.

6) 구완희, 「한말의병장 이강년의 생애와 윤강집」, 『지역문화연구』 6권(2007), 96쪽.

7) 황태연,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242쪽.

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편, 『의병항쟁사』(서울: 국사편찬위원회, 1984), 63쪽.

기반확정이 필요”했다.¹⁾

고종은 일제와 친일괴뢰내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국제법상 외국영토나 다름없는 ‘치외법권 지역(extraterritorial area)’인 러시아공사관으로 망명을 기획하고 결행했다. ‘아관파천’이라 불리는 고종의 러시아공사관으로의 이어(移御)는 실제 망명이었으며, 일제에 대한 최대의 반격이었다. 와다 하루키는 ‘아관망명’을 ‘쿠데타’로 표현하며, “고종은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러시아 공사관에서 스스로의 정치를 시작”한 것으로, ‘청일전쟁 승리에 대한 최대의 반격’으로 규정한다.²⁾ 러시아 자료에 의하면, 아관망명에 대해 백성들이 열렬히 환영했다는 전한다. 그 이유는 고종이 일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으며, 조선의 미래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³⁾

이 망명을 파천이라 지칭한 것은 바로 일제였다. 아관망명 이틀 후인 1896년 2월 13일,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파천’했다고 보고했다.⁴⁾ 러시아는 “국왕의 이전 또는 이어”로, 김윤식은 ‘아관 이어’로, 황현은 “주상의 출어(出御)와 천거(薦居)”로, 헐버트는 ‘망명(asylum)’으로, 『코리안 리포지터리(한국회보)』는 이차(移次)로 묘사했다.⁵⁾ 일본과 친일파만이 왕이 도망갔다는 ‘파천’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종도 이것을 망명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역괴난당들의 흉모궤계가 그 정황이 감춰질 수 없게 됨에 가로막고 누르는데, 그 방도가 혹시 잘못될까 우려해서 외국에 이미 행해지는 관례대로 임시방편을 써 잠시 왕태자를 이끌고 대정동에 있는 아라사공사관에 잠시 이어했다.⁶⁾

고종은 “외국에서 이미 행해지는 관례대로 임시방편을 써…잠시 이어했다”고 한 것으로 볼 때, 망명·비호권이 만국공법상 보장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외국의 관례대로 망명을 통해 김홍집 친일괴뢰내각을 없애고 항일정부를 수립하려 했던 것이다. 이 계획은 거의밀지와 보부상 동원령 등을 통해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고종은 1895년 12월 13-15일(음력)경 춘천유생 이소응(李昭應)과 유인석(柳麟錫)에게 거의밀지를 내렸다. 그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오호! 슬프다. 내 죄가 크고 악이 가득하여 황천이 돕지 않아 나라의 운세가 기울어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도다. 이로 인해 강성한 이웃나라는 틈을 엿보고 역신들이 정권을 농단하고 있다. 하물며 나는 머리를 깎고 면류관을 훼손했으니 4천 년 예의의 나라가 나에 이르러 하루아침에 건양의 땅으로 변해버렸다.…영의정 김병시를 도체찰사로 삼아 중외를 진정·무마시키고, 전 진사 계국량을 감군지휘사로 삼아 칠로(七路)에 근왕군을 두되, 호서를 충의군, 관동을 용의군, 영남을 장의군, 해서를 효의군, 호남을 분의군, 관서를 강의군, 관북을 용의군으로 삼노라. 처음 의병을 일으킨 선비를 모두 소모사에 임명하면 비밀

1) 황태연,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243쪽.

2) 와다 하루키, 『러일전쟁과 대한제국』, 39쪽.

3) 「러시아공사관의 무관 스트렐비츠키 대령의 보고(1987.10/23 러시아 국립군사·역사문헌보관소, 분류 448, 보관목록 10, 80-100번)», 와닌 유리 바실리예비치 외 역음, 이영준 옮김, 『러시아 시선에 비친 근대 한국: 을미사변에서 광복까지』(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45쪽.

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8권, 一. 諸方往復, (14) [俄館播遷 후 組閣].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5) 러시아해군문서(PTABMΦ)Ⅱ, 23, 서가417, 목록1, 사건1340, 리스트16906; 金允植, 『續陰晴史(上)』, 391쪽, 『한국사료총서』 제11집.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上及太子移御貞洞俄館”; 황현, 『매천야록(중)』(서울: 명문당, 2008), 116-117쪽; Homer B. Hulbert, *The History of Korea*, vol. 2 (Seoul: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5).

6) “逆魁亂黨의 凶謀詭計가 情節이 莫隱함이 防遏制伏하는 方의 或疎虞함이 慮하여 外國에 已行한 例로 權宜를 用하여 朕이 王太子를 率하고 大貞洞에 在한 俄羅斯國 公使駐館에 暫御.” 『高宗實錄』, 고종33(1896)년 2월 13일.

병부는 당연히 (별입시 밀사에게) 소지시켜 보낼 것이다.¹⁾

이 밀지에 의하면 ‘역신’인 김홍집 내각이 정권을 농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거의의 목적은 역신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즉, 고종과 이범진은 “전국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경복궁과 도성경비 목적의 친위대를 전국으로 분산”시키고, 이 틈을 이용해 러시아공사관으로 망명하려는 계획을 위해 거의밀지를 내려 보낸 것이다.²⁾ 각지로 보내진 거의밀지에 따라 이소응 의병부대가 서울로 진격전을 전개했다. 서울진격에 대해 김홍집 내각은 2월초 춘천의병 진압을 위해 ‘친위대’를 급파했고 계속 병력을 보내야만 했다. 그래서 춘천에 파견된 훈련대는 700여명이었고, 이로 인해 왕궁수비를 맡은 훈련대는 1,008명으로 줄어들었다. 동시에 고종은 보부상과 의병을 동원한 경복궁의 무력탈환과 국왕구출을 통한 ‘무력적 망명책’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충청·황해도 출신의 보부상은 아관망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궐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작전을 세운 것으로 보이며, 상경한 보부상만 수천 명에 달했다. 또한 경기도 여주에 거주하는 민씨들에게 의병을 일으키게 했고, 전 탁지부대신 심상훈(沈相薰)과도 연계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이 의병들은 왜군의 전진선 감시대를 습격해 여주 남북에 있는 100여 리 간의 전선을 절단했다.³⁾

일본 공사관기록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일에 출정부대는 두 갈래 길로 춘천에 진격해서 폭도의 대부대를 격파해 아주 그곳을 점령했습니다. 이리했는바 이범진 등의 이 방면 계획은 이로써 실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또 이범진 등은 러시아군대를 인천으로부터 불러들이고 이를 배경으로 해서 왕성 안에 수비병이 적은 것을 틈타 국왕의 유출책(誘出策)을 강구한 것으로 추측됩니다.”⁴⁾ 춘천의병의 서울 진격투쟁, 러시아군대를 불러들인 것이 바로 고종의 망명을 위한 작전이었다.

1) 「애통한 조서(哀痛詔)」, 이정규 편, 「창의견문록」, 99-100쪽(한문원문 647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獨立運動史資料集: 義兵抗爭史(第1輯)』.

2) 황태연, 『갑오왜란과 아관망명』, 584쪽.

3) 앞의 책, 592쪽.

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三. 機密本省往來 一·二, (9) ‘親露派 李範晉 등의 음모에 대한 보고’(1896년 2월 17일).

Ⅲ. 대한제국의 근대화와 ‘갑진왜란’

1. 대한제국의 근대화와 국군

대한제국의 수립과 함께 이 제국의 핵심임무는 ‘광무(光武)’, 빛나는 무력을 만드는 것과 나라를 근대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종황제의 중대임무는 대한제국의 국군을 육성하는 것이고, 새로운 문명과 외세에 맞서 근대화를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하는 것이었다. 대한제국은 1897년 10월 12일 창건되어 12년 10개월 17일 동안 존립한 근대적 입헌군주국이었다.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었으며,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근대국가”였다. ‘유약한 군주’, ‘망국의 군주’가 황제였던 대한제국을 근대국가라고 주장하면 뜬금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신분해방이 완료되고, 경제가 부흥하고, 군사가 현대화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항일의 힘을 길렀던 ‘국내망명국가’였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 정조가 기획한 신분철폐의 조선은 정조의 아들 순조에 의해 ‘공노비 철폐’로 실천되었고, 고종에 이르러 법·제도적으로 완전한 신분철폐가 달성되었다. “양반제도가 타파된 대한제국에서 군주와 만민이 중간의 양반사대부를 제치고 직접 서로를 마주하고 소통하는 일군만민(一君萬民) 체제가 수립”된 것이다.¹⁾ 광무개혁 기간 동안 이루어진 실질적인 신분해방 조치를 통해 서자, 중인, 병졸, 하급장교, 변방의 양민·천민 출신들이 명문가문 후예들을 밀쳐내고 근왕세력에 참여하는 사태가 벌어졌다.²⁾ 천민 출신 길영수(백정)·이유인, 서얼 출신 김영준, 평민 출신 이기동·이용익·주석면, 중인 출신 이근택·이인영·이학균·현상건·현영운 등이 고종 황제의 근왕세력 주요인물들이다. 이 근왕세력은 이근택을 제외하고 고종황제에게 끝까지 충성을 바쳐 싸우다가 죽거나 해외로 망명해 고종의 지령을 받고 독립운동을 계속한 항일투사들이었다.³⁾ 그래서 1909년 3월 15일 태황제로 발령한 밀칙에서 “나 1인의 대한이 아니라 실로 오로지 그대들 만백성의 대한”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대한제국은 아시아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로 발돋움했다. 1987년 대한제국의 수립이 후부터 시작된 군사력 강화조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제국의 실제 병력 수는 1901년 초를 기준으로 시위부대(5192명)·호위대(735명)·친위대(4324명)의 서울 중앙군 병력(1만 251명)과 진위대 병력(1만 8,582명)을 합쳐 2만 8,833명이었고, 여기에 전국의 포군과 무관학교생도 및 교관들을 더하면 3만 명을 상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 또한 각종 해외 신식무기를 수입하여 보급했으며, 총기와 화포를 자체 제작했다.

이런 고로 군사예산은 1896년 전체 예산에서 군부예산이 21.38%였고, 1901년에 전체 예산의

1) 황태연,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39쪽.

2) 한영우, 「대한제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서울: 푸른역사, 2006), 36쪽.

3) 황태연,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591~593쪽.

4) 앞의 책, 640~641쪽.

41%, 1902년에는 38.3%, 1903년에는 39.5%에 달했다. 액수로 따지면, 군사예산은 1896년 102만 8,401원에서 534만 9,521원으로 약 5.2배 증가했다.¹⁾ 이것은 나라의 독립을 지키려는 고종의 절박한 노력이었으며, 그래서 대한제국의 연호가 ‘광무(光武)’였던 것이다. 따라서 대한제국은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병력을 가진 나라였다. 이런 전투력이 있었기에, 1900년 울릉도와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고, 1903년 8월에는 북간도를 행정체계에 편입하여 그야말로 4천리 강토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²⁾

이와 함께 1898년 5월 무관학교관제에 관한 칙령 제11호 반포를 통해 간부양성에 착수했다. 이 무관학교를 통해 임관된 장교의 수는 1904년까지 총 476명이었다. 이들은 이후 “1907년 전 후에 일제에 의한 강압적 군대감축 과정에서 조기에 해고되거나 정미년 8월에 해산된 한국군 장병들을 이끌고 의병장과 의병부대 지휘관이 되어 ‘정미년 국민전쟁’을 지휘하고, 1910년 이후에는 ‘민족의 간성(干城)’으로서 독립군과 광복군의 독립전쟁을 이끌게 된다. 특히 1920년대 독립전쟁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동휘, 김좌진, 지청천, 이갑, 박승환, 오의선, 남상덕 등 이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독립운동의 주인공들이었다.³⁾ 고종은 독립된 나라를 위해 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알고 있다. 그래서 “나라에 군대가 없으면 그 나라는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짐은 미리 면밀한 방비에 유념한 지 여러 해가 되었다”고 언급한 것이다.⁴⁾

경제적 근대화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런 결과들은 일제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일본공사 하야시곤스케(林權助)는 아오키슈조(青木周藏) 외무대신에게 “무릇 상업상 당국(當國, 한국)의 지위는 타동적(他動的)이나마 스스로 일전(一轉)의 기운을 만나, 즉 단순한 상업시대에서 공업시대로 들어서는 데 이르러 한두 동양국가들과의 관계로부터 나아가 세계적 경쟁 영역에 임하고” 있다는 비밀보고를 타전했다.⁵⁾ 대한제국의 경제수준이 세계적 경쟁 영역에 도달하고 있다는 보고임을 알 수 있다. 4년 후인 1904년 10월 「한국 외국무역 최근개황」 보고서에서 하야시는 “한국의 무역은 해마다 다소 소장(消長)이 있지만 발달의 추세가 현저”하다는 보고한 것으로 볼 때, 경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세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 양적으로도 1896년에 비해 1904년 정부예산은 3배 증가했고, 무역 총량은 1901년에 비해 1910년 세 배 성장했다.

2. ‘갑진왜란’과 러일전쟁

고종황제의 대한제국을 통한 나라의 독립 유지와 근대화는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1894년 갑오왜란과 같이 1904년 일제의 갑진왜란에 의해 중단되었다. 러일전쟁은 대한제국을 점령하

1) 서인한, 『대한제국의 군사제도』(서울: 해안, 2000), 139~140쪽.

2) 황태연,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44쪽.

3) 앞의 책, 664~668쪽.

4) “國無兵，國非其國矣。 朕留神於綢繆之備，有年矣。” 『高宗實錄』, 고종 40(1903, 광무7)년 3월 15일(양력)

5)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4권, --, 本省往來信, (3) ‘韓國에 있어서의 事業에 관한 卑見具申’(1900년 2월19일), 林→青木.

6) 황태연,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50쪽.

려는 의도 속에서 진행된 것으로, 와다하루키는 러일전쟁이 ‘조선전쟁’에서 시작되었다고 규정한다. 일본 군사사(軍事史) 전문가 후지와라아키라(藤原彰)는 “러일전쟁의 최대전리품으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조선병합은 격심한 민족적 저항에 직면해 4년에 걸친 군사행동을 수반하게 되었다.…그것은 분명 식민지화를 위한 전쟁”이라고 설명한다.¹⁾

고종은 일본이 러시아에게 교섭을 제안하는 것이 전쟁을 유도하는 것임을 간파하고 행동을 개시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개시한다면, 러시아 편에 서겠다는 생각이었다.²⁾ 그러나 이런 계획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고종은 1904년 1월 21일 한국 외부대신 명의로 각국에 러일전쟁 시 엄정한 전시중립을 지키겠다고 통보했다. 그 내용은 “한국정부는 황제 폐하의 명에 의해 두 열강 간에 실제로 도출될 회담의 결과가 무엇이든 가장 엄정한 중립을 지키는 것을 확고한 해결책으로 채택했음을 선언”한다는 것이다.³⁾ 러시아는 “대한제국 정부는 평화적 결말을 이끌어 내려는 러·일 협상 당사자 간에 불화를 고려하여, 고종 황제의 칙령에 따라 러·일 간의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을 확고하게 결정하였음을 선언”했다.⁴⁾ 이런 대한제국의 중립선언에도 불구하고 만약 일본이 이를 위반할 경우 고종은 공개적으로 러시아와 동맹국임을 선언할 생각이었다. 중립을 선언하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대한제국의 독립을 유지하려는 전략이었다.

일제의 의도가 대한제국의 점령이었으므로, 러일전쟁 개전 이틀 전인 1904년 2월 6일 한국정부에 아무런 통고도 없이 우리 영토를 침공했다. 중립을 선언한 대한제국 영토를 침략한 것이다. 이것은 러시아황제에 대한 정보보고에서도 확인된다. 1904년 1월 5일 극동총독 알렉세예프는 “일본의 대한제국을 점령해 보호국화 하려는 의도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는 보고였다. 더 확실한 증거는 1903년 10월 1일 왜군 참모본부의 「러시아와의 전쟁발발 시 일본군의 대한제국 점령안」 수립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 그러므로 일제는 한국 점령을 실제 목표로 하는 러일전쟁을 위해 군사력을 최대한 강화하는 조치를 실행했다. 일제는 러일전쟁 이전인 1903년 보병 156개 대대(15만 6,000명), 기병 54개 중대, 포병 106개 중대(1개 중대 6문), 공병 38개 중대를 구축했다.⁶⁾ 일제의 군사력은 세계 4위 수준이었으며, 우리 군사력(보병 총 병력 3만여 명)에 10배 이상이었다.⁷⁾

일제는 1904년 2월 6일 아침 마산포에 1만 5,000명의 육전대가 상륙해서 이 지역을 강점하고 마산전신국을 강취했다. 이것이 바로 갑진왜란의 시작이다. 10년 만에 다시 벌어진 침략이었다. 2월 20일까지 4만 5,000여명의 일본군이 한국에 침투했고, 봉천선을 공격하기 위해 일본군을 10만 명까지 증강시킬 계획이었다.⁸⁾ 2월 9일 일본병은 서울로 밀고 들어갔고, 고종은 이날 밤늦게

1) 후지와라아키라 저, 서영식 역, 『일본군사사』 (서울: 제이앤씨, 2013), 163쪽.

2) 1903년 12월에 현상건(玄尙健)이 뻬제르부르크에서 니콜라이 II세를 알현하였을 때에, 현상건이 황제에게 고종 황제의 친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대한제국은 일본과 러시아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전적으로 러시아를 신뢰할 것이며, 러시아의 육군과 해군에게 가능한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다.” 박종효 저, 『激變期の 한·러 關係史』(서울: 선인, 2015), 544쪽.

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8권, 一二. 日韓議定書, (30) '韓國中立聲明에 관한 件'(1904년 1월 21일), 고무라→코시.

4) 박종효, 『激變期の 한·러 關係史』, 541쪽.

5) 박종효 편역, 『러시아국립文書保管所 소장 韓國관련 文書要約集』(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 2002), 612쪽.

6) 후지와라아키라, 『일본군사사』, 145-145쪽.

7)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44쪽.

비밀리에 주한 러시아공사 빠블로프에게 심복을 보내 “일본인의 사실상의 포로가 되었으며 권력을 행사할 모든 기회를 박탈”당했음을 알렸고, 러시아의 승리를 기원하면서 러시아 군대에 협조하겠다고 전했다.¹⁾

포로상태에서도 고종은 나라의 독립을 위한 군사적·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했다. 고종은 “러시아군이 고종의 기대대로 한국영토로 들어와 도처에서 한국점령 왜군과 싸우게 된다면 고종은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한국 정규군과 비정규군(의병)의 전체 군사역량을 총동원하고 러시아군과 연합해 왜군과 싸울 각오와 계획이 있었다.”²⁾ 고종은 1903년 8월 중순 러시아황제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러시아 군대를 도와서 전쟁을 수행할 계획이었다. 즉, 한·러 연합항전의 타진하고 이를 통해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짐은 의당 사람을 시켜 일본 군사의 수, 그들의 거동과 의도가 어떤 것인지 탐지하고 정사해서 귀국 군대의 원수에게 알려 귀국 군대의 세력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백성에게 신칙해 적병이 오는 날 미리 재산과 곡식을 가져다 옮겨 숨기고 바로 산곡 사이로 몸을 피하는 청야지책(淸野之策)을 쓰도록 할 것입니다.³⁾

러일전쟁이 발발하면 대한제국은 러시아를 위해 전쟁정보를 제공하고, 러시아군을 지원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돕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1904년 7월 15일 러시아 전문에 “고종황제 스스로가 비밀리에 일본에 항거하는 봉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동년 10월 7일 만주군 총사령관 쿠로빠트킨이 람즈도르프 외상에게 보낸 편지에 이범진(李範晉, 1852~1911)이 보낸 서신을 언급하며 “러시아군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으며 고종황제는 때를 보아 일시에 항일 민중봉기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⁴⁾

그러나 소위 서울의 개화지식인이라 불리는 자들은 대동아주의적 동양평화론을 주장하고 러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면서 러일전쟁의 개전을 환호했다. 그야말로 ‘난신적자(亂臣賊子)’들이었다. 친일개화파 윤치호, 유길준, 김윤식 등은 ‘영광스러운 일본인들’, “조선 안의 병참의 부담은 스스로 담당해도 좋다”, “이번 전쟁은 세계 초유의 의전(義戰)”이라는 등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이 죽어가는 전쟁을 일제의 관점으로 환영했던 것이다.⁵⁾ 항일의 영웅인 안중근도 이런 태도를 가졌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그는 “한국인은 일본의 승리를 마치 자국이 승리한 듯이 기뻐하고 이에 의해 동양의 평화는 유지되고 한국은 독립될 것이라고 기뻐하고 있었다.”⁶⁾

반대로 지방의 백성들은 일제의 침탈에 맞서 항일전쟁을 도처에서 감행했다. 일본군의 통신기관과 군수수송에 타격을 가하거나 의병을 일으켰다. 동시에 일제의 전시 토지수탈과 부역동원에도 저항했다.⁷⁾ 그러나 고종은 지금 전면전을 벌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거의밀지를

8) 1904년 2월 20일 파리주재 러시아 군사무관 라자레프 대령이 빼제르부르크에 보낸 암호 전문. 박종효 저, 『激變期の 한·러 關係史』, 568쪽.

1) 박종효 저, 『激變期の 한·러 關係史』, 564쪽.

2)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32쪽.

3) 홍용호 편역, 『러시아문서 번역집(IV)』 (서울: 선인, 2011), 63쪽.

4) 박종효 저, 『激變期の 한·러 關係史』, 577쪽.

5)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63~65쪽.

6) 『한국독립운동사자료』 6권 〈안중근편 I〉, 四八. 公判始末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내리지 않고, 러시아군에 대한 소극적 지원만 했다. 이 판단은 옳았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군은 일본과의 전면전을 위해 한반도 진입을 하지 않고 만주에서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고종은 러시아군이 한반도에 진입하여 전쟁을 개시할 때, 러시아와 연합으로 일제에 맞설 생각이었다. 그래서 러시아에 ‘청야지책’과 ‘민중봉기’ 계획 등을 알린 것이다. 대한제국의 국군인 정규군과 이미 동학농민전쟁 이후 확인한 의병인 비정규군의 결합을 통해 한반도 도처에서 백성의 힘을 믿고 민중봉기를 일으키려던 계획이었으나, 러시아는 한반도로 진격하지 않았다.¹⁾

3. 고종황제의 독립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여론전

이러는 와중에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가 강제 조인되었다. 이것은 일본에 의한 한국의 ‘보호국화’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따라서 고종은 외교적 노력²⁾을 기울이는 한편, 점차 전략을 수정하여 거의밀지를 통한 국민전쟁에 착수한다. 우선, 고종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중재로 1905년 8월 9일부터 열릴 예정인 러시아와 일본 간의 포츠머스강화회담을 한국 운명을 가를 계기로 보고, 러시아황제에게 일본의 협상압박에 잘 버텨 한반도에서 양보를 하지 말고 한국의 독립을 보전케 해달라고 호소하는 대러시아 친서외교를 펼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미수호조약 제1조의 ‘거중조정’ 의무를 근거로 중재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에 대한 청원외교를 전개했다.³⁾

고종의 친서를 휴대한 이용익은 러시아황제를 만나러 출발했으나 태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8월 말에야 상해에 도착해 친서를 타전했으나 이미 포츠머스협상이 종반전에 접어들 때였다. 미국에는 한국의 독립을 대변해줄 것을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청원하는 밀지를 이승만에게 주어 전달토록 했으나, 주미공사 김윤정의 거부와 테프트-가쓰라 밀약을 알고 있는 루즈벨트의 외면으로 실패했다.⁴⁾ 일제는 을사늑약을 강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고종은 헐버트(Homer B. H. Hulbert)를 대미특사로 파견하고, 미국의 거중조정 의무조항을 환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헐버트가 미국에 도착하기 전에 한국의 외교권을 없애버리는 보호국조약을 강취함으로써 이 외교적 노력도 수포로 돌아갔다.

7)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67쪽.

1) 고종은 친서를 통해 러시아황제에게 “왜군으로부터 나라를 방어할 군대를 가급적 빨리 보내 이들을 한국에서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다. 러시아군사문서(PIBMA), 서가846, 목록16, 사건31898, 리스트223-223o6. Pavlov, “The Russian ‘Shanghai Service’ in Korea, 1904-05,” *Eurasian Review* (Vol. 4, Nov. 2011), 4쪽.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85쪽에서 재인용.

2) “근래 황제는 각 대신과의 면회를 피하고 이용익 등 잡배의 출입하는 자가 있는 등의 변조로 타산하고 황제가 上海에 있는 李學均, 玄尙健 무리를 교사하여 일본의 위압을 피하기 위하여 밀사를 열국에 파견해서 한국의 보호를 청탁하기 위하여 이용익으로 하여금 위임장을 조제시켰다고도 하며 그 일과의 걱정으로 본 공사에게 內報하였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5권, 九. 本省往機密 一·二, (15) 李容翊 귀국 후의 태도와 관찰사 임명의 건(1905년 02월 22일), 林 公使→外務大臣 男爵 小村壽太郎.

3)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112쪽.

4) “현재 某 외국에 있는 한국인 李承晩이라는 자로 하여금 조만간 열릴 평화회의를 기회로 미국에 건너가 그 나라 정치가에게 현재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매우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여 열국, 특히 미국의 호의를 얻어 한국의 독립을 유지케 하도록 진력하게 하려는 비밀 협의가 궁중에서 행해져 이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의 비용을 지출할 약속이 대략 내정되어 있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6권, 一. 本省往電 一~四, (171) [미국에서의 세계평화회의에 李承晩을 참가시키도록 하는 궁중밀의 건](1905년 07월 13일) 林 公使→東京 桂 大臣.

을사늑약에 맞서 고종은 목숨을 걸고 싸웠다. 빠블로프 공사의 보고서에 의하면 “박제순에게 조약문에 날인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실패하자 일본인 스스로 날인했다. 이후 이토는 보호조약이 성립되었다고 말하였다. 고종 황제는 죽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국새의 날인과 서명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을사늑약은 “일본 스스로 준비한 보호조약문에 외부대신 관인을 약탈하여 날인하고 고종에게 서명을 강요하였는데 고종은 끝까지 서명을 거부하였으므로 무효였던 것이다.”¹⁾ 고종은 “그 조약을 승인하는 것은 대한제국을 멸망시키는 것”이며, “만약에 필요하다면, 나라를 위해 죽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며 끝까지 거부했다. 비극적이게도 약탈해온 국새로 이토 자신이 늑약에 날인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참정(총리)의 승인도, 황제의 비준도 다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무효”라고 생각했다.²⁾ 또한 ‘강박에 의한 계약은 무효’라는 원칙은 사법과 국제공법의 공통된 원칙이라는 점에서 을사늑약은 원천 무효인 것이다.³⁾

을사늑약 이후 새로운 침로를 모색하던 고종은 1907년 개최된 헤이그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황제의 특사단을 파견하여 을사조약이 늑약임을 폭로하는 외교전을 추진했다. 한국 민의 자유를 위해 일본에 일격을 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⁴⁾ ‘헤이그특사단’은 국제 언론을 상대로 여론전에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궁지로 몰아넣었다.⁵⁾ 그러나 특사단 파견은 고종의 폐위와 군대해산으로 이어졌다. 이토는 헤이그사건 이후 고종 퇴위를 작정하고 군대를 파견하여 궁성을 포위하고 이완용 등을 불러 세 가지를 요구했다. 그것은 첫째, 고종황제의 행동을 대한제국 각료회의에서 심의할 것, 둘째, 고종 황제가 일본 천황 앞에 나가 사죄하고 1904년 11월의 보호조약을 비준하게 할 것, 셋째, 고종 황제를 퇴위시킬 것 등이었다. 서울에 체류하던 이토와 외상 하야시는 1907년 7월 19일 고종황제에게 퇴위하지 않을 경우 대한제국과 전쟁을 시작하겠다는 협박을 가했다.⁶⁾ 더 이상 황제의 자리를 버티기 어려웠던 고종은 순종에게 양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한제국을 강점하려는 일본의 의도 속에 전개된 러일전쟁은 을사늑약으로 나타났고, 고종이 을사늑약을 막기 위해 포츠머스강화회담을 활용한 대한제국의 독립 유지의 외교적 노력은 러시아와 미국의 배신을 확인한 과정이었으며, 전 세계에 대한제국의 독립을 촉구하려던 헤이그특사 파견은 고종의 퇴위와 대한제국 국군의 해산으로 귀결되었다. 동시에 헤이그특사사건은 본격적인 항일 독립전쟁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중대한 사건이기도 했다.

다른 한편, 고종은 『독립신문』을 창간한 적이 있었고⁷⁾, 일제가 갑진왜란과 러일전쟁을 일으켜

1) 박종효, 『激變期의 한·러 關係史』, 616쪽.

2) 앞의 책, 626~627쪽.

3)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147쪽.

4) F.A.매킨지 지음(1920), 신복룡 역주, 『한국의 독립운동』(서울: 집문당, 1999), 110쪽.

5) “한국특사들은 국제 언론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국제평화클럽 회의에서 일본인들의 박해행위의 진상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으며, 그들이 진짜 한국 황제의 특명을 받고 왔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폭로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옹호하는 회원국은 없었지만 그들의 노력이 일단 일본에 대한 유럽의 여론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여하튼 미리 짐작했지만 일본의 한국점령이 그리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대외정책문서(АВПРИ), 서가 “외무부관방”, 목록170, 사건77, 리스트60-61. <No.69 차르이코프가 이즈볼스키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서한>(1907. 6. 28./7. 11., 헤이그), 260-261쪽. 외교통상부,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독립운동』, ‘부록’.

6) 박종효 저, 『激變期의 한·러 關係史』, 647쪽.

7) 『독립신문』 창간과정에 대해서는 황태연,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693~711쪽 참조.

전시중립을 침해하고 전국을 점령하자, 이러한 일제의 만행과 불법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황실과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창간을 진행했으며, 그것이 바로 『대한매일신보』였다.¹⁾ 일본은 베델(Ernest Bethel)의 단독 창간으로 파악했으나²⁾, 베델과 창간을 준비하다 그만둔 코웬(Thomas Cowen)의 서신에서 궁정의 비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확인된다.³⁾

을사늑약 이후 『대한매일신보』만이 유일하게 대한제국과 고종의 입장에서 사실을 보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 사례로, 일본공사관 기록에 의하면 “대가 없이 전국에 배포되기 때문에 그 세력이 지방 벽지 먼 곳까지 미쳐 근래 강원도, 기타 지방에 일어난 의병이라 칭하는 폭도는 이 신문의 시가에 기초하여 격문의 초고를 써서 무뢰한을 모아 양민을 약탈”한다고 보고하고 있다.⁴⁾ 또한 황현에 의하면(1906년 상황), “오직 『매일신보』만은 당당히 ‘의병’이라 일컫고, 논조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일본의 죄악상을 들춰내고 들은 대로 상세히 폭로하였다. 그러므로 『매일신보』를 서로 다투어 가며 구독하여 일시에 신문이 귀하게 되고 1년이 채 못 되어 매일 발행하는 부수가 7, 8천부에 이르렀다.”⁵⁾ 여하간 고종은 이 신문의 창간을 통해 “정보·언론계에서 정열적 항일투쟁을 전개하고 대한제국의 멸망기에 굳은 애국독립정신과 광복의지를 갖춘 ‘대한세대’를 기를 수 있는 유력한 정신적 무기를 마련”했다.⁶⁾

1)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195쪽.

2) “영국 신문 발행인은 고웬이 아니고 영국인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임. 처음에는 고웬도 함께 이곳에서 신문 사업을 하려고 하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 베델이 단독으로 신문을 발행하게 되었음. 그 비용은 내밀히 궁중에서 얼마간의 보조를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조사 중이라서 아직 확실하지는 않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3권, 二. 電本省往 一·二·三, (526) [영국인 베델의 신문 발간에 관한 조회 件](1904년 10월 13일), 林 公使→小村 外務大臣. 근 1년 뒤에도 베델이 창간한 이 신문사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국인 베델에게 은밀히 내탕금을 하사하여 그가 주재하는 韓·英 일간신문을 매수하여 주로 排日論을 고취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李容翊 무리로 하여금 러시아 관헌에게 모종의 운동을 시킨바 있는 것 같음.”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5권, 九. 本省往機密 一·二, (52) 궁중 내용 및 그 정리에 관한 의견 上申(1905년 09월 25일) 林 公使→桂 外務大臣.

3) “본인은 또한 이곳에서 한국의 궁정에서 많은 지원을 받게 될 『Korea Times』라는 명칭(이후 『The Korea Daily News』로 개칭·인용자)을 갖게 될 신문을 발간해 달라는 큰 주문을 받고 있는데, 그 신문은 ‘한국인을 위한 한국’과 ‘일본인에 대한 반대’를 정책으로 합니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2권, 一四. 機密本省來, (28) 韓國 宮廷에서 기관 신문 발행 계획에 관한 件(1904년 10월 07일), 外務大臣 男爵 小村壽太郎→在韓 特命全權公使 林權助.

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6권, 一. 本省往電 一~四, (235) 『코리아 데일리 뉴스』 주필 영국인 베델 축출에 관한 請訓(1905년 09월 26일), 林 公使→東京 桂 大臣.

5) 황현, 『매천야록(하)』(서울: 명문당, 2008), 157쪽.

6)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213쪽.

IV. 고종황제의 거의밀지와 국민전쟁

1. ‘을사늑약’과 국민전쟁의 준비

고종은 일제에 대한 반격으로서 거의밀지를 통한 거병의 촉구로 국민전쟁에 착수한다. 고종에게는 대한제국에서 육성된 국군과 거의로 단련된 의병이 있었다. 일제는 이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한제국 군대의 힘을 최대한 약화시켰다. 대한제국의 군인은 대략 3만여 명인데, 일제가 1904년 5월 31일 한국군의 병력총수를 1만 6000명으로 보고하는 것에서 1만 4,000여명의 병력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¹⁾ 1906년경 전체 병력은 절반 가까이 줄어 8,000명 남짓이었고, 국방부 예산은 1905년에 비해 1907년 절반가량으로 줄어들었으며, 예산 배분도 주로 일제에 충성하는 헌병 예산이 전체 예산(1909년 기준)의 74%를 차지했다.²⁾ 이런 조치로 인해 대한제국 국군이 해산당한 1907년 8월 전국의 실제 총병력은 7,475명에 지나지 않았다. 3만 대한제국군이 2년 반 만에 4분의 1로 격감한 것이다.³⁾ 그러나 역으로 갑진왜란 이후 줄어든 약 2만 명의 대한제국 국군이 항일전쟁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 이후 고종은 국군과 민군을 합친 전투 역량을 총 동원하여 ‘국민전쟁’을 개시했다. 고종은 “러일전쟁 기간 중에 러시아가 한반도에 군대를 진격시키지 않는 한 우리의 전투역량을 전쟁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왜군이 러시아와의 전쟁 속에서 최대한 전투역량을 소진당하기를 기다리며 우리의 전투역량을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했다.”⁴⁾ 그래서 1904년 봄 임병찬의 거의밀칙 요청에 대해 고종이 ‘일절 망동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1906년 3월에야 고종이 임병찬에게 거의밀지를 내려 보냈던 것이다.

고종은 을사늑약 이전부터 국민전쟁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하야시는 고종에 대한 ‘궁금숙청’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방에서의 의병이라든지 청년회의 정치 운동이라는 것이 과연 궁중의 지도에서 서로 기맥을 통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그들은 근래에 이르러 황제의 태도를 추측하여 이렇게 거동한 것임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함. 모든 폐해 비정(秕政)은 모두 궁중이 근원이라고 말해도 아마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임. 그렇다면 그 적폐 화근의 근원인 궁중을 우선 숙청하고 황제를 에워싼 잡배들을 쫓아내고 궁중의 질서를 엄숙하게 하지 않으면 시정개선의 실시는 결국 완전히 그 효과를 거둘 까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함. 이에 관해서는 그것이 부득이 다음 기회에서 다소 강압을 가하더라도 궁중의 주요한 지위를 모조리 우리 관리를 배치하고 한편으로 황제의 거동을 감시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궁중을 질서 있게 개혁하는 것이 가장 시기에 적절하고 또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함. 이렇게 해서 궁중의 전횡을 저지하고 잡배들의 출입을 막고 음모를 꾀한 각종 광태(狂態)를 부리는 길을 두절하여 비

1) 日本外務省 편, 「對韓方針并ニ對韓施設綱領決定ノ件」, 『日本外交文書』 37권 제1책(東京: 日本國際聯合協會, 1953), 문서번호 390, 명치37[1904]년 5월 31일.

2) 와닌 유리 바실리에비치 외 역음, 이영준 옮김, 『러시아 시선에 비친 근대 한국: 을미사변에서 광복까지』(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286~293쪽.

3)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156~157쪽.

4) 앞의 책, 150쪽.

이 당시 일본공사관 보고자료에, 거의의병과 고종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상당히 많이 드러난다. “하층 인민을 선동해서 소위 의병이라는 것을 각처에서 봉기시키려는 책략을 은밀히 궁중과 일본 반대 측에서 획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고²⁾, “지방 의병 같은 것도 궁중의 지도에 나섰다는 풍설”이 자자하다는 보고³⁾, 신순택과 조병세 등의 상소가 “궁중의 사주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든다는 보고⁴⁾ 등에서 알 수 있다. 또한 고종의 주도하에 의병이 봉기하고 있다는 보고도 계속 올라갔다. 충청남도에서 일어난 의병은 황제의 신임이 두텁다고 소문난 민형식(閔炯植) 등의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⁵⁾, 충청남도 ‘폭도’들은 민형식의 재종 아우인 민종식(閔宗植)이 ‘수괴’라는 보고⁶⁾ 등이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었는지 근 10개월 후에도 다시금 궁궐단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⁷⁾ 그리고 고종은 사실상의 수인(囚人)의 신세가 되었다.⁸⁾

고종은 이런 와중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거의를 촉구했다. 1905년 8월 고종은 궁내부 주사 김현준(金顯峻)에게 밀지와 3만 냥의 군자금을 주고 경남 거창으로 내려 보내 거의를 도모토록 했다. 김현준은 이강년·이규홍·이상희(상룡)·차성충·김상태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상우도·충청좌도 지역의 의병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⁹⁾ 또한 민경식·강석호·이봉래·민형식 등 최측근 별입시들을 밀지전달과 거의독려의 연락책으로 투입했으며, 호남의 연합의병장 최익현, 충청우도 연합의병장 민종식, 영남좌도 연합의병장 정환직 등에게 전달되었다.¹⁰⁾ 을사늑약 이후 현역 군인들도 거의 움직임을 보였다. 대구진위대 대대장 장봉환 참령은 부하장교들과 모의하여 근왕인사인 심상훈 전 참정으로부터 밀서를 받고 의병봉기를 계획했다.¹¹⁾

1905년 11월 22일(양력 12월 18일) 고종은 최익현을 도체찰사로 임명하고 7도의 의군을 일으키라는 「애통밀조(哀痛密詔)」를 내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5권, 九. 本省往機密 一·二, (52) 궁중 내용 및 그 정리에 관한 의견 上申(1905년 09월 25일) 林 公使→ 桂 外務大臣.
- 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6권, 一. 本省往電 一~四, (250) 일본의 한국보호조치에 대한 반대운동 건(1905년 10월 11일), 萩原→桂 外務大臣.
- 3)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6권, 一. 本省往電 一~四, (259) 內閣員의 內政肅正 奏請 件(1905년 10월 17일) 萩原→桂 外務大臣.
- 4)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권, 一一. 保護條約 一~三, (155) 韓日協約 파기 상소 운동자에 관한 件(1905년 12월 02일), 林 公使→北京 小村 大臣, 桂 外務大臣.
- 5) 『統監府文書』 3권, 二. 往來電合綴, (45) 忠淸南道 폭도 궁중잡배 首領 閔炯植의 使噓說 사실 탐색 중(1906년 05월 22일), 長官→統監.
- 6) 『統監府文書』 3권, 二. 往來電合綴, (54) 洪州城 폭도 진압작전에 관한 보고(1906년 05월 26일), 鶴原 長官→東京 伊藤 統監.
- 7) “근래 궁중잡배들의 출입이 빈번하여 이대로 버려둔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어제 2일 오후 알현 시 한국 황제에게 진상하여 그 동의를 얻어 궁궐 외문을 단속해야 한다는 뜻을 환산(丸山) 경무고문(警務顧問)에게 명하였음. 구금(宮禁) 내의 단속에 대해서는 위원을 설치하여 상당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도 역시 황제의 동의를 얻었음.” 『統監府文書』 3권, 二. 往來電合綴, (143) 宮闕 外門 단속과 宮內 질서유지 조치 件(1906년 07월 03일), 統監→西園寺 總理大臣 親展.
- 8) F. A. 매킨지, 『한국의 독립운동』, 109쪽.
- 9)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189~190쪽.
- 10)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164쪽.
- 11) 『駐韓日本公使館記錄』 24권, 六. 顧問警察事故報告, (42) 大邱鎮衛隊 행동에 대한 보고 移牒(1905년 12월 15일), 警務顧問 丸山重俊→特命全權公使 林權助.

… 나의 실낱같은 목숨은 아까울 것이 없지만 오직 종묘사직과 만백성을 생각해 이에 애통밀조를 내려 전 참정 최익현을 도체찰사로 삼아 7도에 보내노라.…각 군중의 인장은 모두 스스로 새겨서 사용하고 관찰사나 군수로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우선 파직처분을 내려 그들의 마음을 단일하게 만들라. 서울경기 1로는 짐이 그 군사와 더불어 사직을 위해 순사할 것이다. 옥새를 찍은 글을 비밀히 내리는 것이니 지실하라. 을사 11월 22일 밤 기보(서울경기-인용자)에서 발급함.(옥새)¹⁾

을사늑약이 강제 조인된 지 한 달 만에 내린 밀조였다. 고종은 ‘사직을 위해 순사’하겠다는 각오를 밀조에 밝히고 있다. 최익현은 1906년 5월 거의를 결심한다. 그러나 최익현은 의병을 일으켰으나, 오합지졸이었다. “수백 명의 오합지졸은 전혀 기율이 없었으며 유생으로 종군한 자들은 큰 관을 쓰고 넓은 옷소매의 의복을 입어 장옥(場屋, 과거시험장)에 나아가는 것 같았으며 총탄이 어떠한 물건인지 알지도 못했다.”²⁾ 을사늑약 이후 백성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경기·강원·충청·경상 각지에서 의병이 봉기했으나, 무기가 없고 기율이 없어서 일본군 수십 명만 만나도 패하는 수준이었다.³⁾ 최익현의 거병으로 고종이 거의밀지를 내려 일제와 싸울 것을 명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의병은 확산되었고 국민전쟁은 더욱 가열되었다. 그러나 최익현은 거병 이후 아무런 의미 없이 자진해산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고종은 계속 밀지를 통해 거의를 촉구했다. 내관 강석호를 통해 민종식에게 밀지와 10만 냥의 군자금을 내려보냈고, 정환직(鄭煥直)에게 대궐에서 직접 거의밀지를 주었으며, 김도현(金道鉉)도 1906년 5월 별입시 강창희(姜昌熙)를 통해 고종의 밀지를 받고 1907년에 거의했다. 1907년 4월 고종은 별입시를 통해 내려준 의복과 허리띠에 ‘거의(舉義)’ 두 자를 쓴 의대조(衣帶詔, 옷 속에 넣어서 내려 보내는 임금의 밀조)를 허위에게 보냈고, 이를 받은 허위는 9월 경기북부에서 거의했다.

유인석도 1907년 3월 박노천(朴魯天)과 한남수(韓南洙)를 통해 고종황제의 밀부(密符, 전시에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비밀병부)와 마패를 받고 거의했다.⁴⁾ 이후 국내의진을 동생인 유태석에게 맡기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해서 의군소모에 나섰다. 또한 이범윤은 1907년 2월 이전에 고종의 밀지를 받고 연해주 일대에서 의병을 규합했다. 그는 밀지 등의 권위를 활용해서 의병모집과 군비마련을 통해 3,000~4,000명의 의군을 편성했다. 아마도 고종은 1907년 이후 10만 한인이 사는 간도와 20만 한인동포가 사는 연해주를 항일투쟁의 거점으로 중시했을 것이고, 차후에 유인석과 이범윤에게 연해주망명정부 계획을 알렸다. 이런 노력은 1908년부터 100명 내외의 소부대로 국내에 진공해 유격전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이 되었다.⁵⁾ 이런 흐름 때문에 1908년 조선 전역에 거국적 봉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의 보고가 작성되었다.⁶⁾

1) 오준선 편, 「심남일실기」, 『獨立運動史資料集(第2輯)』, 927쪽. “…惟予一縷之命 猶不足惜 惟念宗社生靈 茲以哀痛密詔 以前參政崔益鉉爲都體察使 勸送七路…各軍中印 并自刻從事 觀察使·郡守 不從命者 爲先罷出待處分 唯一其心 畿輔一路 朕與其軍 殉於社稷. 璽書密下 以此知悉. 乙巳十一月二十二日夜出給畿輔(玉塞印)…”

2) 황현, 『매천야록(하)』, 98쪽.

3) 앞의 책, 50쪽.

4) 이정규, 「종의록(從義錄)」, 『獨立運動史資料集(第1輯)』, 69쪽.

5)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179~180.

6) [1908년] 5월 최근 러시아 국경지역에 거대한 조선 폭도 단체들이 형성되어 무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일본은 이 소문 때문에 동요하고 있었다. 이들이 무산과 함께 두만강 상류 지역을 점유하고 있던 많은 단체들과 연합해 조선 안으로 공격해 들어간다는 소문이었다.…조선민병대들은 나라 깊숙이 물러나 산과 숲속에 숨어들었다. 조선 사람들은 기꺼이 이들에게 양식들을 공급해 주고 있었다.…이 민병대원들은 출처를 모르는 곳으로부터 좋은 무기와 수백만 발의 탄환을 대량으로 공급받게 될 것이었다. 이 정보에 따르면 가을 조선 전역에 거국적으로 봉

1906년 서울주재 총영사 플란손의 보고서를 통해 국망의 상황을 타개하려는 고종황제의 절치부심의 노력을 유추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황제는 피에 굶주리고 파렴치하며 호전적인 적들과 맞서 조선의 독립을 지켜야만 하는 힘겨운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전의 친구들이 관계를 끊어 홀로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전 세계 사회의 공감을 얻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든 이 훌륭한 군주는 훗날 역사에서 공정하게 평가될 것이라 봅니다. 그는 흔치 않은 용기의 모범을 보여 주었고, 견고한 결의와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는 의무감, 그리고 백성을 향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이 나라에서는 수천 명의 권력자들과 보잘 것 없는 수만 명의 협잡꾼들이 들끓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황제와 황제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약탈했는데 때로는 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추방하기까지 했습니다.…이런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 황제는 흔들리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싸워 나갔고 이 세상에 정의가 존재함을 믿었습니다.¹⁾

2. 대한제국 군대 해산과 ‘국민전쟁’ 개시

헤이그특사사건 이후 고종의 퇴위와 정미7조약에 의한 국군의 해산은 국민적 공분으로 전환되었다. 바야흐로 국민전쟁이 개시된 것이다. 국민전쟁은 국군과 민군을 합친 전 전투역량을 총동원하는 국군·민군 일체의 전면항쟁을 의미한다.²⁾ 이제 의병을 의미하는 민군만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해산된 국군이 결합해 일제와 전면 전쟁을 전개하는 국민전쟁이 시작된 것이다.³⁾ 이 치열한 국민전쟁 때문에 일제는 1907년부터 3년 동안 그들의 숙원이었던 ‘한일합방’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외국신문도 이 과정을 ‘한국전쟁’으로 보도했다.⁴⁾

1907년 8월 1일 군대해산에 맞서 1연대 1대대장 참령 박승환(朴昇煥)이 자결했다. 그의 유서는 나라를 격동시켰다.

군인이 능히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신하로서 능히 충성을 다하지 못했으니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軍不能守國 臣不能盡忠 萬死無惜).⁵⁾

박승환 참령의 자결로 시작된 서울 시가전은 3일 동안 지속되었다. 이후 일제에 의해 1904년부터 강제 해산되거나 퇴출된 군인들과 군대 해산으로 쫓겨난 군인들은 지방으로 내려와 의병과 결합하여 국민군의 중심이 되었다. 이것은 일제 또한 인정하는 부분이다. “경성시가는 곧 평정으로 돌아갔으나 해산된 군인의 대부분은 지방으로 도망쳐 폭도의 무리에 투신해 오랜 화근의 불길이 종식되지 않은 불씨가 되었다”⁶⁾는 것을 보면, 해산군인들은 이후 항일투쟁의 주력 국민군

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조선인(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서류와 자료』 2001년, 블라디보스토크, 178-182쪽. 와닌 유리 바실리예비치 외, 『러시아 시선에 비친 근대 한국』, 273~277쪽.

1) 작성일 1906.12.20.일 서울, 18호 러시아 연방국립 문헌보관소, 분류 818, 목록 1, 서류 163호, 57-58번. 와닌 유리 바실리예비치 외, 『러시아 시선에 비친 근대 한국』, 260~261쪽.

2)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149쪽.

3) 한용원, 『대한민국 국군 100년사』(서울: 오름, 2014), 90~91쪽.

4) 박성수 해제, 『저상일월』(서울: 민속원, 2003), 385쪽.

5) 홍영기, 『한말 의병에서 독립군으로』(서울: 선인, 2017), 14쪽.

6) 조선주차군사령부, 『朝鮮暴徒討伐誌』, 『獨立運動史資料集(第3輯)』(서울: 1971), 685쪽.

이 되었다. 국군이 의군이 되었으므로 “광복을 위한 단일대오의 ‘국민군(국군+민군)’이 탄생한 것이다. 고종이 육성한 국군은 고종이 밀지로 거의시킨 의병과 하나가 됨으로써 ‘국민군으로서의 대한광복군’ 또는 ‘대한독립의군’이 출범한 것이다.”¹⁾

1907년 7월 일본의 괴수 이등박문이 한국 황제를 협박해 퇴위케 하고 정미7조약을 강제 체결하고 동년 8월 1일 한국 국군을 해산시켰다. 이에 한국군 시위대 제1대대장 박승환은 자기 총을 뽑아 자진했다. 박 장군의 총성이 울려 퍼지자 한국군은 용감하게 싸움터에 펼쳐 나아가 적군을 크게 무찌르니 거리는 온통 피로 붉게 물들었다. 며칠이 안 가서 이 소식이 남한 일대에 퍼져 의병이 다시 들고 일어났다. 그리하여 국방군과 의병이 서로 힘을 합쳐 가는 곳마다 적을 휩쓸어버리니 그 명성과 위세가 큰 파도처럼 호호탕탕했다. … 요컨대 한국광복군은 일찍이 1907년 8월 1일 국방군 해산과 동시에 성립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적인(敵人)들이 우리 국군을 해산시킨 날이 바로 우리 광복군 창설의 때였다(敵人解散我國軍之日 卽我光復軍創設之時). 마침 그 33주년이 되는 금년 8월 한국광복군총사령부는 항적(抗敵)의 소리 높은 우방의 임시수도에서 성립기념식을 거행한 바 있다.²⁾

일제는 서울의 시위대를 해산한 이후부터 지방 진위대 해산에 착수했다. 이에 맞서 원주진위대는 8월 5일, 강화진위대는 8월 9일 봉기했고, 충청북도 충주군에서는 8월 6일 봉기한 진위대 수백 명의 국민군이 왜병부대와 교전했고, 홍주분견대는 6일 병영을 해체하고 무장봉기했고, 봉기에 실패한 진주진위대는 의병에 가담했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해산군인이 봉기하거나 의병에 가담함으로써 전국 차원에서 대한제국과 일제 간의 전투가 벌어졌다. 가령 김윤식에 의하면 “가평 원주 제천 등 여러 곳에서 의병이 봉기하였는데, 이는 모두가 해산 병정이다. 서양식 총을 갖고 있고, 오랫동안 조련을 받아 규율이 있어서 일본군과 교전하면 살상을 많이 한다. 세력 또한 강대하여 그 수가 거의 4, 5천 명이나 된다고 한다.”³⁾

국민군은 왜병에 맞서 상당한 전과를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과 때문에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일제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없었다. 1907년 8월 30일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는 해산 직후 한반도 전역에서 다양한 방식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동에서 온 사람들(東來人)이 전하는 바(所傳)에 의거한즉, 강원일도(一道)와 충청북도에는 의병이 없는 읍(邑)이 없고…일병(日兵)이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저간에 의병이 산병(散兵)과 기습병(奇兵)으로 습격도 하며 북병으로 돌격도 하고 혹 야격(夜擊)도 하여 일병을 살해한 수효가 1000명 이상이고 연사포(連射砲) 2문과 기관포 6문과 양총 1200-1300정과 군마 48두와 탄환 9태(駄)와 각항(各項) 감중(輜重)을 다수히 탈취했고…의병은 3만 명 이상인데 산포와 민정(民丁)이 낙종(樂從)해 일일증가(日日增加)하는 모양이라더라.⁴⁾

일제의 감시 하에서 이런 기사가 실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전국적 상황은 전시상황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다. 이런 추정 은 1926년 『동아일보』 기사를 통해 확인된다.

1)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249~250쪽.

2) 조소앙, 「광복군총사령부성립보고서(1940)」, 三均學會(편), 『素昂先生文集(上)』(서울: 햇불사, 1979), 283-287쪽.

3) 김윤식, 『속음청사』, 국사편찬위원회, 1960, 217쪽. 홍영기, 『한말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20쪽에서 재인용.

4) 「雜報: 義兵詳報」,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30일.

군대해산 사건이 생긴 광무 11년 칠월 하순부터 더욱 맹렬하여 경성부 외 독섬에까지 출현하게 되어 반도는 북으로부터 남에까지 방방곡곡에 의병 없는 곳이 없었다. 이리하여 의병의 수효는 광무 11년에 5만 명, 융희 2년에 7만 명으로 격증해 그 세력이 약하나마 뭉치어 큰 세력을 이루었던 바…이 몇 해 동안은 한국 전토가 전시상태를 이루었다.…그것은 국가적 일대전쟁이었다.¹⁾

식민지 시대 신문에서 1907~1908년 국민군은 5만 명에서 7만 명으로 증가했고, 전국 차원에서 전투가 벌어졌으며, 그것의 성격은 ‘국가적 일대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용일(容日)주의자 정교도 1907년 상황을 “당시 13도에서 의병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났는데, 일본인이 군대를 나누어 보내고 이를 공격”했다고 적었다.²⁾ 2년 6개월이 지난 1910년 3월 여전히 “의병들이 곳곳에서 벌떼처럼 일어나 일본인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것을 모두 기록할 수 없다”고 했다.³⁾ 국민군과 백성은 끝까지 일제에 맞서 항전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제 통감부는 1개 사단의 주둔군(18,000명)만으로 국민군을 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그래서 일제는 헌병대를 1907년 2,000명으로 증강하고 1909년 헌병을 6,700명으로 늘렸고, 일본 본토로부터 1개 여단과 헌병대 4개 중대를 증파 받아야만 했다.⁴⁾ 1908년 경 한 일본인 고위 관리의 약 2만 명이 의병을 진압하는데 동원되었고, 전국의 약 절반이 무장 봉기의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⁵⁾ 실제 일제의 병력은 1개 사단(12,000), 7,000명의 제12혼성여단(九州부대), 2개 연대(6,000명) 등 도합 2만5000천 명이었고, 헌병(제14헌병대 2,000명)과 헌병보조원(6,000)은 도합 8000명, 경찰은 4만4,216명, 일진회의 자위대는 도합 10만 명이었다.⁶⁾

이런 고로, 러시아 국경행정관 스미르노프는 1908년 4월 “몇몇 자료에 따르면 한국 내의 의병 항쟁이 점점 기세를 떨쳐 점차 일본과의 전쟁 양상을 띠게 되었다”고 보고한다.⁷⁾ 동경주재 러시아대사 말렙스키-말레비치는 러시아 외무성에 “일본은 러시아에 불만이 많다. 의병운동이 점점 새로운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무력충돌을 하는 곳마다 한인 의병부대의 승리로 끝나고 있다”라며, 일본이 러시아에 한인 의병부대의 무장해제를 요청하고 있다는 전문을 보냈다. 그러자 외무성은 1908년 10월 6일 니콜라이 II세의 명령에 따라 “서울의 전 고종 황제 정부는 러시아가 한인의 독립투쟁을 바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⁸⁾

러시아 자료로 추정하면, 1907년 8월 국군해산 이후 계속 대한제국과 일제의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졌고, 1908년 4월 의병항쟁이 기세를 떨쳐 일본과의 전쟁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으며,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곳마다 국민군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제는 헌병대를 계속 증강하고 일본 본토로부터 더 많은 병력을 호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런 승리의 주역에는 국군의병장들이 있었다. 1907년경 국군의병장은 총 88명인데, 1910년까지 잡으면 국군의병장은 그

1) 「主人公 李秉武도 이제는 黃泉길에 (七): 韓國軍隊解散顛末 - 地方軍隊解散」, 『東亞日報』, 1926년 12월 15일.

2) 정교, 『대한계년사(8)』, 217쪽.

3) 정교 저, 김우철 역, 『대한계년사(9)』(서울: 소명, 2004), 118쪽.

4) 후지와라아키라, 『일본군사사』, 164쪽.

5) F.A.매킨지 지음, 『한국의 독립운동』, 145쪽.

6)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義兵抗爭史』, 184쪽.

7) 러시아대외정책문서(АВПРИ), 서가143, 목록491, 사건1126, 리스트4-5. <No.42 남우스리스크 국경행정관 스미르노프가 연해주 군총독 플루그에게 보낸 보고서> (1908년 4월 3일, 노보키예프스크). 외교통상부, 『이범진의 생애와 항일독립운동』, 208쪽.

8) 박종효, 『激變期の 한·러 關係史』, 651쪽.

수효가 더 늘어 1910년까지 115여 명에 달해서 정미년 이후 의병장 430명 중 국군의병장은 전체의 26.7%에 차지했다.¹⁾ 대한제국에서 육성된 국군이 항일전쟁의 중추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대동공보』 1909년 3월 14일 기사는 1908년 일제와 투쟁한 의병규모를 약 87,000명, 의병전사자 5,700명, 일본 군경의 사상자 수를 약 10,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²⁾

1908년 왜병과 교전을 벌인 국민군 수는 총 8만 2,800명, 1909년 3만 8,600명이었으나, 교전 회수는 1908년 1,976회, 1909년 1,738회로 엇비슷했다.³⁾ 시간이 지날수록 교전을 벌인 국민군 수가 줄어든 것은 많은 국내의병들이 총기와 탄약이 고갈되면서 탄약과 총기를 찾아 북상해 만주와 연해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1908년 매킨지가 제천에서 만난 지역 의병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발언에서도 무기의 고갈이 국민군에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였는지 알 수 있다. 이 의병대장은 매킨지에게 “우리에게 무기를 좀 사다 주십시오. 돈은 필요한 대로 요구하십시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무기를 구할 수만 있다면 5천 달러든 1만 달러든 필요한 대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무기를 구해주십시오.”⁴⁾

일제 측의 자료에 의하면, 1907년 8월 1911년 6월까지 4년간 국민군이 치른 전투는 총 2,852회, 국민군의 병력은 총 14만1,815명에 달했다.⁵⁾ 그때까지 전사한 국민군의 총수는 조선총독부의 조사통계에 의하더라도 무려 1만7,840명에 달했다.⁶⁾ 그야말로 총력전을 통한 일제와의 국민전쟁이 벌어진 것이다.

이 국민전쟁도 폐위된 고종태황제의 거의밀지가 위력을 발휘했다. 우선, 이강년은 1907년 8월 고종의 최고위 별입시인 심상훈에게 고종의 밀지를 받았다. 그 내용은 “선전관 이강년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삼아 7도로 보내 양가의 재능 있는 아들들을 써서 의병을 세우고 벼슬을 내려 소모관으로 삼도록 하라. 인부(印符)는 일에 따라 새겨라. 명에 불복종하는 자가 있어 그들이 관찰사와 수령이라면 먼저 참수·파출하고 처분하라”는 칙령이었다.⁷⁾ 경기와 서울을 제외한 7도의 군정과 민정을 단독으로 결정할 전권을 가진 전국 의병의 대장이 된 것이다. 이강년 의병장의 의병부대는 제일 우수했으며, 황칙까지 받게 되어 더욱 막강한 군대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⁸⁾

이강년 의병장은 의병을 초모해 1,000여명의 부대를 편성했고, 8월 13일 제천에서 진위대 특무정교 민공호·오경묵·정무대 부대와 합치면서 장병이 4천 명을 넘었으며, 첫 전투에서 왜군 50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⁹⁾ 이강년 의병부대는 영춘전투 패배 이후 연전연승했다. 2월 17-20일 용소동전투, 26일 갈기전투, 3월 12일 과창리전투, 3월 30일 4월 1일 영동산악전투, 4월 3일 흥천북면 전투, 4월 4일 양양전투, 안동 서벽전투, 내성전투, 재산전투, 5월 23일 제천 오미리전투 등을 치르며 연승했다.¹⁰⁾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강년 의병장은 1908년 6월 4일 사로잡혀 9월

1) 한용원, 『대한민국 국군 100년사』, 68-69쪽.

2) 홍영기, 『한말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162쪽.

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義兵抗爭史』, 188쪽.

4) F. A. 매킨지, 『한국의 독립운동』, 141쪽.

5) 후지와라아키라, 『일본군사』, 164쪽.

6) 홍순권, 『韓末 湖南地域 義兵運動史 研究』(서울: 서울대출판부, 1994), 167쪽.

7) 박정수·강순희 공편, 「雲崗先生倡義日錄」, 『獨立運動史資料集: 義兵抗爭史資料集(第1輯)』, 694쪽.

8) 權用伯(權淸隱), 「丁未倭亂倡義錄: 權淸隱履歷誌」, 『창작과 비평』 겨울호(1977), 216~217쪽.

9) 박정수·강순희 공편, 「雲崗先生倡義日錄」, 222~225쪽.

10) 위의 글, 272-280쪽.

19일 처형당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기록은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귀감 그 자체였다. 모두가 그를 닮아 칭찬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의병장 이강년 씨는…대소 수십전(數十戰)에 항상 몸소 사졸에 앞장서 포환을 친히 무릅써 샷갓을 쓴 곳은 적환(敵丸)에 파쇄한 바가 되어 모양만 남고 그 몸도 가운데 상처가 무수하며 휘하 사졸과 감고(甘苦)를 필히 같이해 비록 극한이라도 단 벌 옷을 늘 착용해, 수행하는 친동서가 한고(寒苦)를 감당하지 못하야 부하 병사의 면의(綿衣)를 빌려 입었더니 그가 대노하야 군령으로 행형(行刑)하고 의진을 움직여 지나가는 곳에 추호도 무범(無犯)하는 고로 일인들도 그 사람됨을 책책칭탄(嘖嘖稱嘆)한다더라.¹⁾

다음으로 고종은 군대해산 직후 여주의 문벌유생 이인영(李麟榮)에게 거의밀칙을 내렸다. 이인영은 1907년 9월 고종의 밀칙을 바탕으로 ‘관동창의대장’의 명의로 창의해 10월 약 1만 대군의 의병부대를 결성했고, 11월 양주(의정부)에서 ‘원수부 13도 총대장’으로 추대되어 서울진공에 착수한다. 이인영 의병부대는 12월 춘천과 양구 사이에서 최대의 격전을 벌이는 등 30여회의 접전을 벌였다.²⁾ 그러나 그는 허망하게도 1908년 1월 28일 부친상 소식을 접하자 문경 집으로 돌아가 부친상을 치렀다. 이인영이 전선을 이탈하자, 허위는 김규식, 연기우 등 막료와 함께 300명의 선발대를 거느리고 동대문 밖 30리 지점에서 전군의 결집을 기다렸다. 이미 허위는 1908년 2월 초 창의대진의 일부 병력 4~5천명을 인솔하고 파주 등지에 주둔하면서 서울 진격을 위해 매일 군사훈련을 실시했다.³⁾ 그러나 왜병들과의 교전으로 서울진격을 감행할 수 없었고, 따라서 허위 선발대를 지원할 수 없었다. 그래도 서울 근처 도처에서 교전을 벌였다.

한편 고종은 다른 방향의 항일전쟁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토 저격의 준비다. 고종은 연해주망명정부 계획을 추진하던 1908년 이후 밀명에 따라 조직된 국내외의 연합의병부대에 ‘대한독립의군(부)’ 또는 ‘독립의군(부)’이라는 명칭을 하사했다. 동의사로 위장된 이범윤의 ‘대한독립의군부’에 내린 것으로 보이는 밀칙에서 고종은 ‘광복’에 힘쓰고 ‘독립의군부’를 조직하라는 혈조를 내렸다.⁴⁾ 아마도 고종황제가 현상건을 통해 이범윤에게 이토를 처단하라는 밀명을 내렸고, 이범윤이 안중근에게 이 밀명 실행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중근은 “이번 암살사건에 참가한 한국인은 총 26인이고 그들은 다 이토가 통과하는 철도선에 배치되어 있었다”라고 심문에 대답했고⁵⁾, 『대한매일신보』 기사에는 “자력(資力)을 모아 군함을 구입해 이토를 대마도 부근에서 요격할 계획이었다고 공언했다”고 보도했다.⁶⁾ 또한 안중근은 자신의 상관인 8도

1) 「잡보: 리씨리씨」, 『大韓每日申報』, 1908년 1월 5일.

2) 『統監府文書』 8권, 一. 李麟榮陳述調書, (2) ‘暴徒巨魁 李麟榮 調書 보고 건’(1909년 6월 30일). <제1회 李麟榮 문답조서>.

3) 「잡보: 死者復生」, 『大韓每日申報』, 1908년 2월 6일.

4) 통재라! 섬 오랑캐가 배신해 합병하고 있으니 종사가 폐허가 되고 국민이 노예가 되고 있다(島夷背信合併 宗社爲墟 國民爲隸). 짐은 본래 살아있는 백성들을 위해 몸소 치욕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도리어 살아있는 백성들을 해치니 국가가 따라 망하고 있다(朕本爲生靈 身受恥辱 反害生靈 國家從亡). 조용히 부끄러운 허물을 말하면 몸이 백 개라도 속죄하기 어렵도다. 천고의 치욕과 만세의 한을 무엇으로 씻으랴! 믿는 것은 오로지 그대뿐이니, 그대 등은 이를 알고 광복에 힘을 모아라. 무릇 작록(爵祿)과 행상(行賞)에서는 산하를 향해 맹세하노라. 이에 혈조(血詔)를 내리노니 독립의군부를 조직하라. 그대 등은 모름지기 많은 재사才士들을 규합해 장차 백성을 이끌고 진취할 것을 기약하고 그 공적을 아름답게 아뢰어라. 오호, 지실하라! 당일로 계하(啓下)해 독립의군부 총무총장(獨立義軍府 總務總長)에 명하노라. 광복회 충청도지회 삼가 베끼다. 이구영 편역, 『湖西義兵事蹟』(제천: 제천군문화원, 1994), 835쪽.

5) 『노바야 쥘즈니(Новая Жизнь)』, 1909년 10월 27일자. 『한국독립운동사자료』 7권 <안중근편Ⅱ>, 二. 伊藤博文 被擊狀況 關係件(1909년 11월 5일).

의 총독 김두성(金斗星)이며, 그 부하에는 허위·이강년·민공호·홍범도·이범윤·이은찬·신돌석 등이 있다고 했다.¹⁾ 황태연은 김두성을 고종황제라고 주장한다. 오영섭은 연해주 의병을 이면에서 총괄한 의병총독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한다.²⁾ 아직 학계의 합의된 결론은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살펴볼 때, 이토 저격을 지시한 최종 지시자는 고종황제로 추정된다. 자신의 휘하에 허위·이강년·민공호·홍범도·이범윤·이은찬·신돌석 등의 의병장을 둘 수 있는 인물이 당대에 과연 누구였을까 라고 질문하면, 고종 황제 이외에 떠오르는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고종태황제는 또한 연해주 망명정부 계획을 추진했다. 일제가 한국을 병탄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전쟁의 지휘부를 국내가 아닌 연해주로 옮기려는 것이었다. 이 차원에서 고종태황제는 1909년 3월 15일 「서북간도와 부근 각지 인민들에 대한 칙유」를 내린 것이다. 러시아 자료에 의하면, “황제는 단호하게 조선을 떠날 결심을 했고 가까운 장래에 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한다는 것”이며, 이 해외지역의 “모든 조선 사람들이 황제의 안위를 걱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미 비밀단체가 결성되어 있고, “이제 전 황제가 직접 수장이 될” 것이라는 보고다. 그리고 “황제는 혼자서 북쪽으로 향할 계획인데 그곳에서 이범윤과 함경도 지역 반란군이 황제를 지원할 예정”이며, “황제는 러시아 국경을 넘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안전하게 머물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³⁾ 그러나 망명정부 구상은 러시아의 정책변화로 무산되었다. 이런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1910년 8월 29일 일제에 의해 한국이 병탄되었다. 그야말로 통탄할 일이었다.

3. 고종태황제의 독립전쟁 준비와 독립군·광복군의 항일전쟁

병탄 이후에도 고종태황제의 독립을 위한 항일운동은 계속되었다. 이 당시 독립투쟁은 두 갈래 길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한국 내에서 비폭력적 정치투쟁을 계속해 일제의 한국 통치비용을 폭증시켜 한국문제를 둘러싼 일본 내의 내분을 극화시키고 일제를 한국지배에 지치도록 괴롭혀 어쩔 수 없이 한반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고, 또 다른 길은 해외 기지에서 최대한 무력을 길러 기회가 닿는 대로 국내진공투쟁을 벌여 싸우다가 열강이 일제와 개전하게 되는 결정적 시기가 오면 그때 열강 중 적절한 국가들과 손잡고 독립을 약속받고 싸워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다.⁴⁾

우선, ‘대한독립의군부’를 다시 건설하여 항일운동의 조직을 재건하는 것에 착수했다. 이 임무는 극비항칙으로 임병찬(林炳贊, 1851~1916)에게 전달되었다. 임병찬은 1913년 11월 「관견(管見)」⁵⁾을 작성하여 고종태황제에게 상주했고, 이를 재가 받았다. 뒤이어 1914년 고종은 칙지를 내

6) 『大韓每日申報』, 1910년 2월 13일.

1) 오영섭, “안중근 상관 金斗星의 실체를 둘러싼 제설의 비판적 검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5(2015), 44쪽.

2) 황태연의 주장은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342~398쪽. 오영섭의 주장은 앞의 논문 참조.

3) 「상하이 제무성 요원 고이예르가 도쿄 대사에게 보낸 보고서」(1910년 6월 9일). 제정러시아 외교문헌보관소, 분류 「아무르강 지역 외교 담당관」, 목록 759, 서류 54호, 64-67번. 와닌 유리 바실리에비치 외 역음, 『러시아 시선에 비친 근대 한국』, 297쪽.

4)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447쪽.

5) 「관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의 책, 451~473쪽 참조.

려 임병찬은 독립의군부 육군부장 전라남북도순무총장 겸 사령총장으로 삼았다. 임병찬의 「관견」에 의한 정치노선은 1919년 3·1운동으로 이어졌다. 이 정치노선은 ‘비폭력적 민족총결기 정치투쟁론’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비폭력 노선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투쟁전략이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비폭력 독립운동을 전개한 그 투쟁방식이 바로 「관견」에 들어있던 것이다.¹⁾

외교적인 노력과 함께 망명정부 구상을 계획 실천했다. 파리강화회의에 참석예정이었던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밀사로 하란사(河蘭史) 이화학당 교수와 의친왕(이강)을 보내려는 계획이었다. 고종은 밀사 파견을 통해 “1882년 한미조약의 거증조정 조항을 상기시키고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국병탄 시 방관한 미국의 위법적 대한정책을 엄중 규탄하고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약속받으려는 계획이었다.”²⁾ 동시에 이회영이 제안한 북경 망명을 수용하여 결행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슬픈 역사는 지속되었다. 하란사는 유행성 감기로 45세로 사망하면서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회영은 고종황제가 주필(駐蹕)할 행궁(行宮)을 빌려 수리하고, 망명을 차근차근 준비되었으나 이 또한 일제에 의한 고종의 독시(毒弑)로 무산되었다.

일제는 고종의 이런 행동을 간파하고 고종을 독시했다. 백성은 일제에 의한 고종의 독시를 간파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종의 죽음을 애도하면서도 일본을 향한 격노가 표출되었다는 러시아자료는 1919년 3·1운동의 기폭제가 고종이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고종이 강제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장례식은 서울에서 거행되었는데 많은 조선 사람들이 지방에서도 올라와 참여했기에,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참가한 사람의 수가 3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도 관리국은 수도로 향하는 순례객 무리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전 황제의 죽음은 백성의 마음이 표출되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을 향한 진실된 격노가 표출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³⁾

박은식도 고종의 장례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서울에 있는 남녀노소들이 모두 삼베 옷을 입고 돛자리를 깔고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면 눈물을 흘렸다. 곡을 하는 사람이 산과 바다를 이루었으며, 7일 동안 끊이지 않았다. 작 지방의 인민들도 일제히 망곡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은 서울로 올라와 분통해하며 곡을 하였고 혹은 순국하는 자도 있었다.”⁴⁾

고종의 치열한 항일인생은 3·1만세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군·광복군은 적의 중심을 목숨으로 공격하여 한국 국민과 중국 국민을 격동시켰고, 중국과의 연대를 가능하게 만들어 임시정부의 물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 광복군을 결성할 수 있는 힘을 만들었으며, 궁극적으로 카이로선언에 대한민국의 독립이 적시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1940년 광복군총사령부는 선언문을 통해 “육탄이 아니면 독립을 이룰 수 없고, 붉은

1) 앞의 책, 479쪽.

2) 앞의 책, 490쪽.

3) 「서울 주재 러시아 총영사 류트샤가 도쿄 주재 러시아 대사 크루펜스키에게 보낸 보고서」(1919년 3월 31일). 박 보리스 D., 박태근, 『러시아 외교관이 목도한 1919년 조선의 3.1운동』, 1998년 모스크바 이르쿠츠크, 45-61쪽. 와닌 유리 바실리에비치 외 엮음, 『러시아 시선에 비친 근대 한국』, 358쪽.

4) 박은식, 『한국독립운동지혈사』, 162쪽.

피가 아니면 민족을 구할 수 없다(非肉彈無以致獨立, 非赤血無以救民族)”고 천명한 것이다.¹⁾

김구와 독립운동가들이 애용한 “나라의 독립과 백성의 자유”라는 표현은 1909년 고종태황제의 「서북간도와 부근 각지 인민들에 대한 칙유」(3월 15일)에 들어 있는 “오로지 독립이라야 나라이고, 오로지 자유라야 백성이다”는 구절은 간고한 항일독립전쟁의 역사로 흘러들어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명시한 카이로선언에 “한국이 자유로워지고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는 문구로 나타났다. 목숨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신한 이봉창과 윤봉길의 한민애국단 입단 선언문은 “조국의 독립과 자유”의 회복이라는 맹세로 시작해서 국가독립과 민족자유의 공동목표 아래의 전 민족적 통일단결을 위한 임시정부의 다짐으로 이어졌다.²⁾ 이 자유와 독립이라는 표현은 이미 1905년 민영환의 유서에 등장했으며, 이 당시부터 고종과 근왕세력 사이에서 자주 쓰이던 용어였다. 따라서 조선을 이어 대한제국과 임시정부,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전략적 노선은 그야말로 백성의 자유와 국가의 독립인 것이다.

1) 韓國光復軍總司令部成立典禮委員會, 「敬告中華民國將士書」(대한민국 22[1940]년 9월 17일). 『일제침략 하 한국36년사(12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16)』 「외무부 - II.보고 및 활동」, 15. 외무부 정무보고(1943년 10월) - 二. 政策과 方針. 발신자 조소앙.

V. 마치며

- 독립이라야 오직 나라이고, 자유라야 오직 백성이니

갑오왜란으로서 개시된 국민군(국군+민군)의 국민전쟁(patriotic war)은 국내의 비폭력 정치투쟁과 해외 독립·광복전쟁으로 전환된다. 이 국민전쟁은 1894년 갑오왜란으로부터 개시된 것으로 계산할 때 1945년 9월까지 50년 장기 전쟁이었다. 이것은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수행된 국민항전이다. 동시에 세계사에서도 유례없는 장기항전이었다. 따라서 이 전쟁은 대내외적 의미에서 최장기 국민전쟁이었다.¹⁾

만주 소재 독립군 무관학교의 군사교관들은 대부분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이었다. 지청천, 이세영, 김창환, 신팔균, 양규열, 양승환, 이관직, 이장영 등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 장교들을 길러냈고, 민족장교들을 육성했다. 1911년부터 1919년까지 신흥무관학교의 본교와 분교·지교(枝校)에서 길러낸 장교의 수(졸업생 수)는 6,000여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되고, 1919년 3·1운동 이후 졸업한 수는 약 2,000명으로 추산된다.²⁾ 따라서 신흥무관학교 전후기 졸업생을 다 합치면 무려 8000명에 달한다.³⁾ 이들은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 이후부터 독립군을 관장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했다.⁴⁾ 따라서 지금 국군의 전통은 고종의 거의말지에 의한 의병에서 국민군으로, 그리고 독립군에서 광복군으로 이어진 것이다. 즉, 대한민국 육군이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광복군은 대한제국군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고, 대한국군 ‘육군사관학교’의 정통성도 대한민국임시정부 육군무관학교로 거슬러 올라가고, 다시 신흥무관학교로, 궁극적으로 ‘대한제국육군무관학교’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⁵⁾

대한제국은 ‘유약한 군주’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청나라와 러시아까지 격파하고 그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던 영국·미국과 동맹을 맺은 일제와 맞서 국민전쟁을 전개하다가 망한 것이다. 그 막강한 일제의 무력 앞에서 1907년 군대해산 이후 3년간의 국민전쟁을 통해 일제의 야욕을 피와 목숨으로 막아내다가 망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숭고한 희생이고 간고한 투쟁인가! 그 투쟁은 고종이 구축한 광무의 군사력과 근대화의 자양분, 그리고 동학농민전쟁 시절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개혁의 나라를 갈망한 백성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것이다. 독립이라야 나라이고 자유라야 백성이라는 민본과 자유롭고 평등한 민국을 위한 결사의 항전은 이렇게 전개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새롭게 재조명되어야 한다.

대한제국의 군사력 강화와 경제적 도약에 대해 우려한 일본은 다시 1904년 ‘갑진왜란’을 통해 1894년의 ‘갑오왜란’ 당시와 같이 군사력으로 대한제국을 침공했다. 러일전쟁으로 가려졌지만 1904년 ‘갑진왜란’은 일본의 불법적 침략성을 다시금 확인해 주는 것이다. 1907년 일제에 의해

1) 황태연,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485쪽.

2)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서울: 역사비평사, 2011), 131, 186쪽.

3) 황태연,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669쪽.

4) 한용원, 『대한민국 국군 100년사』(서울: 오름, 2014), 18쪽.

5) 황태연,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670쪽.

고종이 퇴위되고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 당했다. 이때부터 1910년까지 3년간 전 국민의 대일항전이 전개되었다. 세계적 수준의 압도적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일본도 한국을 병탄하는 데 3년이란 전쟁이 필요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은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1894년 일본의 경복궁 침공부터 1910년 일제의 한국병탄까지 우리 국민은 16년의 전쟁을 전개했다. 퇴위된 고종은 그 이후에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 망명을 통한 임시정부 수립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다가 일제에 의해 독시(毒戕)당했다. 고종의 독시 이후 우리 국민은 공분했고 그 공분은 3·1운동으로 이어졌다. 3·1운동의 중심은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이끌었던 동학의 후신 천도교였다. 그리고 1910년 병탄 이후부터 1945년까지 36년의 대일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우리 국민은 5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쉼 없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¹⁾

그야말로 육탄이 아니면 독립을 이룰 수 없고, 붉은 피가 아니면 민족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백성과 고종, 의병과 해산군인들은 육탄으로 독립의 전장에 뛰어들었고, 붉은 피를 철철 흘리며 민족을 구하는 성전에 나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에게 광복이 왔겠는가!

1) 김종욱, 『근대의 경계를 넘은 사람들』, 118쪽.

고종황제와 이강년 의병장

오영섭

연세대학교 연구교수

목차

I. 머리말/53

II. 고종세력과 재야 구국세력의 연대/55

1. 고종의 재야의병 추동활동/55
2. 고종 측근들과 재야 애국세력의 연대양상/57

III. 이강년 의병장의 근왕적 측면들/60

1. 을미의병운동 당시 심상훈과의 관계/60
2. 을사늑약 후 충의사·김현준과의 관계/62
3. 고종 퇴위 전후 심상훈과의 관계/66

IV. 맺음말/70

I. 머리말

1894년 6월 일본군의 경북궁 강제점령부터 1905년 11월 을사늑약과 1907년 7월 고종퇴위·정미조약·군대해산을 거쳐 1910년 8월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대한침략은 예정된 수순을 밟아갔다. 이에 한국의 애국세력들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서 대거 결기하여 일제에 대항하였다. 당시 일제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국권회복운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는데, 그중에서 일본군과 친일세력을 타도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무장봉기한 의병운동은 국권회복운동의 여러 방략 중에서 가장 강렬한 것이었다.

한말 의병운동은 국가와 민족의 멸망 위기 속에서 생사와 명리와 성패를 돌아보지 않고 외세에 대항한 애국세력들의 항일무장투쟁이었다. 이 운동은 교육과 산업 및 국혼의 진작을 강조한 애국계몽운동의 온건노선과 달리 반제투쟁의 선명성이 강한 편이었다. 또한 이 운동은 1910년대 이후 중국과 러시아 각지를 무대로 전개된 한국 독립운동의 인적 자원을 마련해 주었다. 나아가 이 운동은 일제의 모진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이 장기간 끈질기게 독립운동을 펼칠 수 있는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한말 의병운동은 한국 민족운동사의 원형이요, 독립운동사의 전사(前史)라고 평할 수 있다.

한말 의병운동 당시 수많은 의병장들은 충군애국을 목표로 자신의 신명을 불살랐다. 이중에서 을미의병운동 때부터 정미의병운동 때까지 10여년 동안 충북 일대를 주무대로 두드러진 활약을 벌이다가 일제에게 피체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장렬하게 순국한 운강(雲崗) 이강년(李康年, 1858-1908)은 한말 의병운동을 이끌어나간 인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로 충군애국과 항일구국의 일념으로 다져진 이강년의 생애와 의병활동은 경술국치 전후의 항일투쟁과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운동의 원천이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말 의병운동을 선도한 이강년의 생애와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3종의 연구성과가 나와 있다.¹⁾ 이 중 이강년 문중의 지원으로 출판된 이석재의 저서는 이강년의 의병활동을 약간의 소설체를 가미하여 처음으로 자세히 정리한 것이며, 구완회·박민영의 저서는 한말 의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이 집필한 것이다. 이들 저서들은 이강년의 의병활동의 구체상을 파악하는데 유익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 저서들은 이강년의 의병활동을 대체로 을미·정미 의병기의 군사활동과 순국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주고 있다.

기왕의 이강년 연구서들은 한말 의병운동을 중앙의 고종세력(고종황제와 그 측근 인사들)²⁾과 재야 항일의병장들의 연합의 산물로 보지 않고 재야의병장과 일반 상민들이 함께 뭉쳐 전개한 아래로부터의 항일운동만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지방적인 시각에 입각해 쓰여진 것들이

1) 이석재, 『의병대장 운강 이강년』, 사단법인 청권사, 1993. 구완회, 『영원한 의병장 운강 이강년』, 지식산업사, 2015. 박민영, 『의병운동의 선봉장 이강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참조.

2) 한말 의병운동 당시 고종세력의 면면과 역할에 대해서는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 2007, 제2부 제1장 참조.

다. 이로 인해 기왕의 이강년 연구서들에는 이강년이 고종세력과 긴밀한 연대관계를 맺고 의병을 일으켜 활동했음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연구상의 미비점을 남겼다. 여기서는 이강년의 의병활동에 관한 기왕의 연구에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수정하는 의미에서 고종세력과 이강년의 연대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특히, 을미의병 때부터 정미의병 때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이강년과 심상훈(1854-1907)의 연대관계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¹⁾

1) 이강년과 고종세력의 연대관계에 대한 개략적인 연구로는 오영섭, 「고종 측근 심상훈과 제천지역 의병운동과의 관계」, 『한국근현대사연구』 35, 2005 참조.

II. 고종세력과 재야 구국세력의 연대

1. 고종의 재야의병 추동활동

러일전쟁 후부터 경술국치 전까지 일제의 대한침략은 단계적 수순을 밟아갔다. 일제는 한일의 정서·을사늑약·정미조약·고종퇴위·군대해산 등의 침략정책을 연이어 추진함으로써 고종과 대한제국의 황제권과 국권을 무력화시켜 나갔다. 그 결과 고종은 국가지도자로서의 실권을 빼앗기고 유폐상태에 처하게 되었고, 대한제국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서울과 지방 각지에서 국권수호를 위한 항일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한 항일운동의 중심에는 왕조수호의 무거운 책무와 자기보호의 강렬한 욕구를 지닌 최고지도자 고종이 위치해 있었다.

대한제국기에 고종은 최우선의 정책목표를 황제권의 유지·강화와 국권의 자주성 확보에 두었다. 이를 위해 고종은 대내적으로 모든 유신운동과 혁명운동을 탄압하고 체제수호에 필요한 현상 유지적인 동도서기정책을 펼쳤다. 대외적으로 고종은 국권과 군권을 위협하는 일제의 침략을 막기 위한 각종 반일운동을 주도해 나갔다. 당시 일제는“궁중을 근원으로 하는 배일 수단에 관한 각종 음모는 재야 원로 혹은 양반 유생들의 선동에 의해 부단히 치열하게 강구되어 각지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삼남 지방은 고래로부터 유생과 양반의 독점적 무대였던 관계로, 이 지방에서 경기도 방면에 걸쳐 배일사상의 전파가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깊었다”고 하여 궁중의 고종 및 그 측근들이 재야세력을 추동하여 의병운동을 벌였음을 중시하였다.¹⁾

국권수호를 위한 의병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된 후기의병기에 국한하여 논급할 경우, 고종은 자신과 왕조의 명운을 구하고자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였다. 고종이 각종 반일운동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은 수많은 사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일본의 황무지개척권 요구에 반발해) 고종황제도 비밀리에 전국적인 항일봉기를 준비하고 있다”²⁾ “궁중을 원천으로 하는 배일에 관한 각종 음모는 재외망명자, 재경 파역대관(罷役大官) 및 기타에 의하여 끊임없이 강구되어 왔다”³⁾ “권모술수를 성공의 비결로 잘못 믿고 있는 한황(韓皇)은 시종 재외 망명자와 기맥을 통하며 제반 음모를 강구하였다”⁴⁾ “역적들과 오랑캐 원수들이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으나 형세상 그들을 토멸하지 못했다. 이에 고종이 전국 각지의 충의지사들에게 밀지를 보내어 의병운동이 펼쳐졌으나 성사되지 못했다”⁵⁾고 하는 기록들이 그러하다. 여기에는 구한말에 항일운동의 정점에 서있던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3: 의병항쟁사자료집3』, 『조선폭도토벌지』, 1971, 661쪽.

2) 박종효 편역,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련 문서 요약집』, 파블로프공사→러시아외무성(1904.7.2), 한국국제교류재단, 2002, 44쪽.

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3, 『조선폭도토벌지』, 1971, 679쪽.

4) 『독립운동사자료집3:의병항쟁사자료집3』, 『조선폭도토벌지』, 661쪽.

5) 고석로, 『후조집』, 부록 하, 『행장』. 吾君不幸值世運變易之日 逆臣讎夷 勒成條約 勢不得誅之伐之 密詔四方忠義之士 事發不成.

고종의 활약상이 여실히 나타나 있다. 나아가 고종의 활동을 지켜본 당대인들이 고종이 재야세력과 연계하여 각종 구국운동을 선도한 항일투쟁의 주역이라는 사실을 아주 당연시했음을 알 수 있다.

고종이 가장 강력한 반일운동인 항일의병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한 사실은 한국의 반일세력 진압에 광분했던 일본측 자료에 가장 자세히 나온다. 예컨대, “(나는:이토 히로부미) 궁중과 폭도와의 관계를 익히 알고 있으며 현재 폭도에 대해 궁중에서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 또 궁중과 폭도가 은밀히 연락하고 있으며, 궁중과 상해·블라디보스토크 지방에 있는 한인 간에도 밀사와 비밀 전보가 오가고 있다”¹⁾ “궁중의 잡배들이 (황제의) 밀칙을 받들고 재야의 야심가와 모의를 통하여 각 방면에서 종종의 운동을 하고 있다. 대신 암살 거사도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된다.…(황제는) 지방 인민을 각 방면으로 선동하고 흑란(惑亂)시켰다.…또 잡배들을 끌어 들여 의병을 선동하여 음으로 일본에 반대행위를 하였다”²⁾ “(황제는) 하층 인민을 선동하여 소위 의병이라는 것을 각 처에 봉기시키려는 혼담으로 내밀히 궁중 및 일본 반대측에 획책하고 있는 상황이다”³⁾는 기록들에 잘 나와 있다.

일제는 한국 의병 토벌작전이 종료된 다음에 작성한 총괄보고서에서 고종황제와 그 측근들의 항일운동 양상에 대해 “일본이 한국을 보호국으로 삼은 이래 궁중을 근원으로 하는 배일 수단에 관한 각종 음모는 재야 원로 혹은 양반 유생들의 선동에 의해 부단히 치열하게 강구되어 각지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삼남 지방은 고래로부터 유생과 양반의 독점적 무대였던 관계로, 이 지방에서 경기도 방면에 걸쳐 배일사상의 전파가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깊었다”고 하였다.⁴⁾ 이는 궁중과 내각에 포진한 고종과 그 측근들이 양반유생과 일반 평민들을 후원하거나 동원하여 각종의 반일운동을 주도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러일전쟁기에 고종이 러시아황제에게 비밀리에 보낸 국서를 보면 고종이 재야세력을 추종하여 항일운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잘 나타나 있다.

…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례하게 상대함이 극심하고 병력을 억지로 데려와 내정을 간섭하여 백성을 선동해 혼란스럽게 만들어 나라의 형세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니,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장차 시각을 다투는 재야가 생길 듯하기에 짐이 오직 바라고 맞는 것은 귀국의 대군이 빠른 시일 내에 京城에 이르러 일본의 악독한 짝을 쏘아 없애버려 짐의 곤란한 사정을 널리 구원하여 길이 독립의 권리를 공고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국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이면 내용하여 맞아들일 계책을 몰래 마련해 둔 것이 이미 오래되었으며, 이후로 의당 해야 할 일은 전국의 인민들이 곳곳에서 도와 힘과 정성을 다할 것입니다.⁵⁾

위 인용문에 의하면, 러일전쟁 발발 이후에 고종은 러시아군의 한국 진주에 대비한 방책을 이미 수립해 두었으며, 이때 그는 재야 신민들에게 전국 각지에서 열과 성을 다해 러시아군을 도와

1) 『통감부문서』 1, 「朝鮮施政改善에 關한 協議會 第七會 會議錄」(1906.7.3), 국사편찬위원회, 1998, 192쪽.

2) 『통감부문서』 3, 「韓國內閣更迭事情通報의 件」(1907.6.4), 469-470, 474쪽.

3) 『일본외교문서』, 38-1, #255, 「일본의 한국보호…반대운동 건」(1905.10.11), 523쪽.

4) 『독립운동사자료집3:의병항쟁사자료집3』, 「조선폭도토벌지」, 661쪽.

5) 홍용호 역, 『러시아문서 번역집』 IV, 「국왕이 러시아황제에게 보낸 서신」(1905.1.10), 선인, 2011, 56-67쪽.

야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이는 고종이 재야세력과 연대하여 의병을 일으켜 전국 각지에서 일본군에 대항함으로써 러시아군의 대일전 승리를 기도하고 나아가 국권을 수호하려는 구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고종 측근들의 재야 애국세력의 연대양상

러일전쟁 후부터 경술국치 전까지 재야세력과 연계하여 국권수호운동에 종사한 인사들은 상당히 많았다. 이들은 강렬한 구국성향에 따라 국권과 군권 및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비밀리에 반일운동에 종사하였다. 이들은 일본측 자료에는 궁중파·궁정파·총신으로, 영·미측 자료에는 ‘Royalist·Loyalist’로 나온다. 이들 고종세력은 갑오경장 직후부터 경술국치 전후까지 국권과 황제권을 지키기 위해 분투한 중앙의 정치세력이자 애국세력이었다.

고종의 측근 중의 측근이며 한말 의병운동의 최대후원자인 심상훈(沈相薰)과 재야의병과의 관계는 고종세력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고종의 이종사촌으로서 탁지부·군부·궁내부 등 권부의 수장을 두루 거친 심상훈은 향제가 제천 의림지 인근에 있었는데, 그가 자주 귀향하여 향제에 머물 때면 “벼슬을 구하는 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밀려들었다”고 한다.¹⁾ 이는 향촌사회에서의 심상훈의 막강한 영향력을 입증해 주는 말이다. 이러한 심상훈에 대해 당시 신문들은 “국가의 주석지신(柱石之臣)”, “국민이 칭송하는 대신”, ‘충의강경(忠義強硬)한 사람’이라고 극찬했던 반면,²⁾ 정작 제천 오석 일대의 강경파 의병 후손들은 ‘자라대감’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이는 필요한 때에는 재야세력을 적극 추동하여 거의시키고 불리할 경우에는 극도로 몸을 사린 고종세력의 정치적·보신적 성향을 잘 나타낸 말이다.

그러면 한말 의병운동에 직접 간여한 고종세력들의 면면과 그들의 주요 활동은 어떠했는가?³⁾

첫째, 고종세력은 모두 고종의 측근에서 활동한 근왕파 인사들로서 거의 대부분 2품 이상의 고위직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의친왕 이강·이범진·이용태·이용원·이용직 등 전주이씨, 민영달·민종식·민경식·민병한·민형식 등 일부 반일성향의 민씨척족, 심상훈·신기선·허위·정환직·한규설 등 전현직 고위관료, 강석호·김승민·이상천·이봉래·이유인·조남승 등 고종과 엄비의 근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1905-1909년간 ‘의병간연(義兵干連)’ 내지 ‘치안방해’ 혐의로 일본헌병대에 체포되어 엄한 문초를 받고 몇 달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한말 의병운동에 가담한 고종세력은 고종의 전제적 황제체제와 동도서기적 사회체제를 지지하는 중앙정계의 근왕세력이었다. 이들은 외교노선면에서 대체로 강석호·김승민·민경식·이범진·심상훈으로 대표되는 반일·친구미파와 허위·이상천·정환직·이유인으로 대표되는 반외세 자주파로 구분된다. 극소수 인사를 제외하면, 이들은 러일전쟁 전후부터 경술국치 후까지 일제에 추종하지 않고 강력하게 반일운동을 펼쳤던 충의세력이었다. 이들은 한일의정서의 체결,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 고종퇴위 및 군대해산을 전후한 시기에 재야의 애국지사를 서울로 부르거나 자신

1) 『대한매일신보』, 1906년 11월 13일.

2) 『한성신보』, 1895년 9월 17일 ; 『매일신문』, 1898년 5월 16일 ; 『대한매일신보』, 1905년 12월 2일.

3) 한말 의병운동 당시 재야세력과 연대한 고종 측근들의 면면에 대해서는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173-176쪽.

들이 직접 재야로 낙향하여 재야세력과 연대관계를 맺거나 혹은 측근의 밀사들을 재야로 파견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아울러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고종의 국권수호방략에 따라 항일의병운동과 청원외교활동 및 애국계몽운동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사실은 한말 의병운동 당시 재야세력과 연대한 고종의 측근들은 대부분 고종의 별입시(別入侍)였다는 것이다.¹⁾ 한말 의병운동에 깊숙이 간여한 별입시는 개화기 고종의 개화정책과 측근정치의 부산물로서 고종의 수족과 같은 존재들이었다. 개항 후 고종은 개화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직매매·광산개발·어염전매·홍삼매매·차관도입 등 각양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따라서 궁궐 내외에서 이와 관련된 사업을 관장하는 4-500여 명의 인사들을 별입시라고 불렀다. 서울과 지방 각지에 거주를 두고 있는 별입시들은 고관으로부터 노비나 상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망라되어 있었다.²⁾ 이 외에도 고종이 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사절단과 외교관을 파견하는 등 대외개방정책을 추진할 때에 동원된 외교밀사나 통역관들도 대부분 별입시 역할을 수행한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갑오경장 이전까지 국왕과 왕비를 보좌한다는 명목하에 무시로 궁중을 드나들며 정국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대한제국기에 총신 별입시, 세도재상, 부호가들은 지방 각지에서 올라온 많은 문객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런 사실은 당대인들이 공지하던 전통한국의 오랜 관습이었으며, 전통시대 한국정치사의 특징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한국 전통시대에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맡고 있었다. 다시 말해 유력자의 문객들이 중앙의 신조류와 신문물을 보수적인 지방사회로 전달하는 문화전파자의 기능을 맡았던 것이다. 여기서 서울이라는 정치공간에만 국한하여 논급할 경우, 문객(문인·식객·겸인)은 중앙고관과 황제 측근들의 주변에서 활동한 가장 중요한 정치집단이었다. 한마디로 이들 문객들 가운데 상당수가 별입시로서 혹은 별입시의 수하로서 대한제국기-국망기의 항일운동사에 큰 공헌을 하였고, 나아가 애국계몽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04년 2월 대한제국의 국권을 실질적으로 탈취하기 시작한 한일의정서 체결 후에 별입시는 고종의 국권수호운동을 적극 보좌하였다. 당대의 대표적인 별입시 가운데 이용익·현상건·이학균·민영철·이인영 등은 고종의 조선종립화정책 및 대외청원활동을 직접 수행하였고, 심상훈·강석호·이봉래·정환직·허위 등은 지방의 유력자·명망가·무용가(武勇家)와 연계하여 항일의병운동을 주도하였다. 또 이범진처럼 러시아 수도에서 청원외교활동과 고종파천운동과 항일의병운동을 동시에 전개하던 별입시도 있었다. 이 중 의병봉기에 관련된 고위급 별입시 중에는 지체가 낮은 중인 이하의 신분층도 있었는데, 이들은 고종의 총애를 배경으로 자신들의 휘하에 다수의 하위급 별입시 내지 문객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들 총신 별입시들은 고종의 지시에 따라 혹은 자신들의 독자 의지에 따라 재야세력과 연대관계를 맺을 때에 부하 별입시 내지 문객들을 밀사로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밀사들은 총신 별입시들이 고종으로부터 직접 받았거나 아니면 총신 별입시가 임의로 제조한 고종의 명의 밀지나 밀지에 준하는 문건이나 신물을 가지고 경향 각지를 돌아다니며 재야세력의 거의를 독려했던 것으로 파악된다.³⁾

1) 한말 의병운동 당시 별입시의 면면과 역할에 대해서는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제2부 제3장 참조.

2) 황현 저, 김종익 옮김, 『오하기문』, 역사비평사, 1994, 43쪽.

1904년 여름 일제의 황무지개척권 요구 반대운동 때부터 1910년 8월 경술국치 전까지 의병봉기에 간여한 고위급 별입시의 문객이나 수하로서 지방에서 활약한 인사들의 숫자는 상당히 많았다. 이들은 ① 고종 명의를 밀지나 신물을 재야세력에 전달하여 거의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고, ② 전국 각지를 유력하며 거의촉구 활동을 펼쳤으며, ③ 직접 군사를 모집하여 의병장에 올라 항일전을 치렀고, ④ 연합의진의 전략·전술과 재정 조달을 책임지는 총독장·모사장·참모장·중군장·참모·종사 등의 직책을 맡았음을 알 수 있다.

한말 의병운동에 관계한 다수의 별입시 중에서 이강년의 의병활동에 직접 관계된 인사로는 고종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고위대신 심상훈을 꼽을 수 있다. 이강년은 을미의병운동 때부터 정미의병운동 때까지 시종일관 심상훈의 후원을 받으며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이강년은 총신 별입시 심상훈이 경북 지역에 밀파한 김현준과도 일정한 연대관계를 맺고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

3) 총신 별입시들의 수하나 문객들이 소지한 고종의 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오영섭, 「한말 의병운동의 근왕적 성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5, 1997, 68-72, 87-93쪽.

Ⅲ. 이강년 의병장의 근왕적 측면들

1. 을미의병운동 당시 심상훈과의 관계

1894년 6월 일본군의 경북궁 무단점령으로 고종과 명성왕후가 유폐되고 친일개화정권이 들어섰다. 개화정권은 양반제폐지, 관제개혁, 사회신분제개혁 등 급진적 개혁조치들이 연이어 발표하였다. 임진왜란 이래 초유의 국가변란이 닥치자 재야의 유림세력은 친일개화파와 일본군을 축출하고자 의병봉기를 모색하였다. 이때 이강년도 “나라를 위해 순국하려는 마음을 품었으나 모친의 가르침에 따라 잠시 멈추고 사람을 모으는 일에 주력하였다”고 한다.¹⁾

재야세력의 창의기도는 박영효내각이 개화정책을 한창 추진 중이던 1895년에도 계속되었다. 1895년 1월 유림세력은 중화-오랑캐, 양반-상민을 구분 짓는 척도 중 하나인 넓은 소매(闊袖)를 서양식의 좁은 소매(狹袖)로 바꾸려는 복제개혁에 반발해 창의를 모색하였다. 이어서 8월에 명성왕후 시해사건이 일어나자 국모의 원수를 갚고 친일내각을 타도하기 위해 거병을 추진하였다.

1895년 8월 을미사변 후 고종은 경북궁 점령사건 직후처럼 연금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고종의 측근들은 낙향하거나 구미공사관으로 피신하여 친일개화파 타도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때 고종과 그 측근들은 구미공사관 요원들과 선교사들에게 시종과 수하를 연이어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다.²⁾ 아울러 고종의 측근 중 일부가 직접 향리로 내려가 재야세력과 연대하여 의병봉기를 추진하였다.

고종세력과 재야세력은 11월 조선 민중이 결사반대한 단발령 선포를 전후한 시기에 거의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었다.³⁾ 이들은 단발령 후 일반 민중의 항일열기를 수렴하여 의병을 일으켰는데, 이에 대해 『대한계년사』의 저자 정교는 “단발령 이후에 각처에서 봉기한 의병은 모두 고종의 밀칙을 받고 일어났다”고 하여 재야세력과 고종세력이 고종의 밀칙을 매개로 연대하여 의병활동을 펼쳤음을 주장하였다.⁴⁾

1896년 2월 23일(음1/11) 이강년은 문경 도태장터에서 약 300명을 모아 창의하였다. 이어 그는 왕릉장터로 이동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사촌동생 이강수가 마련한 군자금으로 군사들을 건사하였다. 이어 왕릉 근처 산중에서 안동에서 도피해온 관찰사 김석중과 순검 이호운·김재담을 생포하였다. 2월 25일 이강년은 이들이 단발을 강요하고 안동의병을 공격한 사실을 들어 이들을 농암장터로 끌고가 처형하였다. 이강년이 안동관찰사를 처형한 것은 고종 측근의 친러대신 이범진이 후원하는 춘천의병이 춘천관찰사 조인승을 처형한 것에 비교되는 매우 과격한 행동이었다.

1) 박정수·강순희 편, 구완희 역, 『(국역) 창의사실기』, 도서출판 다운샘, 2014, 12-13쪽.

2) 을미사변 이후 고종세력이 전개한 대외청원운동에 대해서는 오영섭, 「고종과 춘생문사건」, 『향토서울』 68, 2006, 제2장 제2절 참조.

3) 갑오경장 후부터 단발령 이전까지 고종세력과 유림세력의 연대과정에 대해서는 오영섭, 『화서학파의 사상과 민족운동』, 국학자료원, 1999, 제4장 제1절.

4) 정교, 『대한계년사』 상, 국사편찬위원회, 1971, 139쪽. 先是 各處義兵 皆修密勅而起 內閣則遣兵擊之 故至是下此詔.

그런데 창 의 초기에 국가의 지방 관장인 대신급의 안동관찰사를 생포하여 무단 처형할 정도로 위세를 떨친 이강년은 창 의 전 어느 시점에 고종의 측근 중 측근인 심상훈을 찾아가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현재 남아있는 이강년 관련 자료에 모두 나오는 이야기이므로 사실일 것이다. 당시 이강년은 경북 문경에서 심상훈의 향제가 있는 충북 제천으로 이동하여 심상훈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A) 을미년에 모후(母后)께서 시해를 당하니 공이 격분을 견디지 못하여 심상훈 판서를 가서 보고 말하기를, “상공은 훈척(勳戚)의 중신(重臣)으로서 나라의 변란에 당하여 편안히 자리에 누워 지내며 구차하게 먹는단 말입니까?”하니, 심상훈이 말하기를 “나는 용렬한 인물이므로 능히 일을 일으키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공이 노하여 꾸짖기를, “나라의 남다른 예우를 받고도 오히려 용렬한 인재임을 내세우며 핑계를 댈단 말입니까?”하고, 즉시 안동으로 가서 거의를 꾀하니 원근이 일제히 이에 응하였다.¹⁾

(B) 갑오년 6월에 이르러 동비(東匪)와 왜변(倭變)²⁾이 아울러 일어나 나라가 소란스러웠다. 공이 못마땅하게 여겨 한탄하면서 나라를 위해 죽으려는 마음을 품었다. 모친의 가르침을 따라 잠시 그만두긴 했지만, 널리 사람을 끌어들이는 일에 힘썼다. 을미년에 변고가 생기자³⁾ 탁지부대신 심상훈을 찾아가 격려하여 일어설 것을 권하다가 응하지 않으니 욕하기를, “임금이 모욕을 당하면 신하가 죽어야 한다는 것이 옛 어른의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까?”하고 하였으나 심대신은 답이 없었다.⁴⁾

위 사료들에 의하면, 이강년이 심상훈을 찾아가 창 의 요청을 했으나 심상훈이 전혀 응하지 않자 이강년이 심상훈을 꾸짖고 욕하고 물러갔다고 되어있다. 위의 사료들에서 심상훈은 항일활동이나 구국운동에는 전혀 관심 없이 자리만 지키며 일신을 보전하려는 무능한 관료이자 매우 피동적인 존재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위 사료는 그 당시 심상훈의 활동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심상훈은 탁지부대신을 지내다가 명성왕후 시해사건이 일어나자 일제를 규탄하고 친일개화파를 타도하기 위해 다각도로 활동을 벌였다. 첫째, 그는 서울에서 수하들을 구미공사관과 서양선교사들에게 보내 일본을 규탄하고 조선을 도와줄 것을 청원하였고,⁵⁾ 둘째, 1895년 10월 10일 고종 측근의 근시인 이세진이 도통장을 맡은 오도창의소(五道倡義所)란 단체의 충청도 통장으로서 전국적인 의병활동을 전개하려고 하였고,⁶⁾ 셋째, 단발령 발표 직후쯤에 전 판서 김세기와 공동 ‘창의대장’자격으로 충청·강원 각지에 창의통문을 발송하였고,⁷⁾ 넷째, 1895년 (음)12월 상순경 유인석을 만나 창의를 논의하고 을미의병 최대의진인 유인석의병을 적극 후원하는 가운데 큰아들 심이섭을 유인석의진의 종사로 들여보냈다.⁸⁾

이상의 여러 사실들을 감안하면, 선전관 출신의 전주이씨 왕족 후손인 이강년과 고종의 이종사촌인 심상훈은 첫 만남에서 창 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이며, 이때 심상훈은 이강년에게

1) 안재극, 『傳記』, 『(국역) 운강이강년전집』, 淸權祠, 1893, 150쪽.

2) 1894년 6월 일본군의 경북군 점령사건을 말함.

3) 명성왕후 시해사건을 말함.

4) 『(국역) 창의사실기』, 13쪽.

5) 천주교명동교회 편, 『뮌헨 주교 일기』 I,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383-399쪽.

6) 천주교명동교회 편, 『뮌헨 주교 일기』 I, 418쪽;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문서, 문서번호 1895-41, 五道倡義所 通文.

7) 『강원일보』, 2003년 8월 15일자, 심상훈의 창의권고 통문.

8) 유인석, 「급한 편지」, 『호서의병사적』, 수서원, 1993, 33쪽.

창의에 필요한 제반 후원을 약속했을 것이다. 이강년이 대신급 고위관료인 김석중을 주저 없이 처형한 사실, 사촌동생의 후원금만으로는 거액의 군자금을 충당할 수 없었던 사실, 문경-안동에서 활동하다가 심상훈이 깊이 관여한 유인석의병에 합류하는 사실 등을 두로 고려해 볼 때, 이강년의 의병활동은 심상훈으로부터 정신적·물질적 후원을 받았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강년이 국모시해와 단발령의 변란이 일어난 후에 과연 심상훈을 자발적으로 찾아갔는가 하는 문제도 석연치가 않다. 당시 전근대 신분사회의 관행을 감안하면, 향리에 낙향하여 거의를 모색 하던 국왕 측근 심상훈이 재야의 우국지사이자 종6품의 선전관을 역임한 이강년을 주목하고 그를 불러 후사를 약속하며 창의를 촉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하여튼 이강년의 심상훈 방문문제는 명성왕후 시해사건 후 유성에서 의병을 일으켜 한말 최초의 의병장으로 평가받는 문석봉이 창의 전 민영환을 찾아가 창의를 요청하자 민영환이 자신이 차고 있던 환도(還刀)를 내려 주며 창의를 당부했던 것과 같은 경우가 아닌가 생각한다. 여하튼 전기의병기에 맺어진 이강년과 심상훈의 인연은 을사늑약 후 구국운동 과정에서 다시금 재현되었음이 주목된다.

2. 을사늑약 후 충의사·김현준과의 관계

1905년 11월 체결된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동의가 없는 불법 조약이었다. 당시 일제는 군대를 동원하여 덕수궁을 포위하고 대한제국의 황제와 대신들을 겁박하며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국 제법을 무시한 상태에서 강제 조인된 을사늑약의 조약문에는 조약이란 명칭이 부여되지 않았고, 조약 체결의 대한제국측 당사자인 고종황제의 날인도 없었다. 이러한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과 내치권을 빼앗기고 일제의 보호국으로 떨어졌다.¹⁾

대한제국의 운명을 결정지은 을사늑약에 대해 한국민은 거세게 저항했다. 대한제국에 대한 일제의 배타적 특수권익을 러시아가 인정한 포츠머스강화조약의 체결을 전후한 시기부터 이미 한국민은 조약 체결 반대운동을 벌였다. 그러다가 일제가 한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조약을 강제하여 국권을 탈취해가자 한국민은 거국적인 차원에서 을사늑약 반대운동을 치열하게 펼쳤다. 당시 한국민의 항일운동은 중앙과 지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을사늑약을 전후하여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한국민의 을사늑약 반대운동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²⁾ 그중 가장 강렬했던 것은 무력을 동원한 의병운동이었다. 이는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군용지 강제 징발과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저항해 일어난 항일운동이 을사늑약 이후 전국적인 무장투쟁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을사늑약 이후 의병운동에서 주목할 사실은 대규모 연합의진의 경우 이들이 독자적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중앙의 고종세력과 모종의 연관을 맺고 의병활동을 벌였다는 점이다. 이는 을미의병운동 종료 후 잠시 서간도로 스승 유인석을 찾아뵙고 귀국하여 영춘·문경 지역에 거하고 있다가 재차 창의에 나선 이강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1) 최영희, 「을사조약 체결을 전후한 한민족의 항일투쟁」, 『격동의 한국근대사』,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2001, 233-241쪽.

2) 최영희, 「을사조약 체결을 전후한 한민족의 항일투쟁」, 241-256쪽.

1904년 2월 일제의 한국 영토 점유권과 사용권을 보장한 한일의정서 체결 이후에 이강년은 오랜 은둔생활을 접고 상경하였다. 서울에서 이강년은 황실강녕을 목표로 경상도 출신의 개신유림들이 1904년 8월에 설립한 충의사(忠義社)라는 근왕단체에 관계한 인사들과 교유하였다. 충의사에는 을사늑약 이후 의병운동을 벌인 허위·이상희(이상룡)·박남현·이범석 등을 위시하여 대한제국 초기 개화파 타도 상소운동과 을사늑약 전후 항일상소운동을 주도한 인사들이 다수 가담하고 있었다.¹⁾ 이들은 러일전쟁 이후부터 을사늑약 이후까지 민영환·한규설·심상훈 등 고종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대한제국정부, 일본의 정부와 요인, 서울주재 각국 공사관을 상대로 만국공법에 입각하여 일제의 한국침략을 반대하는 장서운동이나 상소운동을 주도하다가 일제에 체포·투옥되었다.

1904년 (음)4월 이강년은 여중룡·강원형 등 9인과 함께 일본공사관에 직접 서명한 서한을 보냈다. 여기서 이강년·여중룡 등은 한국이 공법에 따라 일본과 조약을 체결했는데, 일본은 공법을 어기고 갑신정변·갑오변란·을미사변을 일으켰고, 러일전쟁 선전포고 당시 한국의 안녕을 열국에 공약하고도 이를 어기고 한국을 병탄할 야욕을 품고 있으니, 한국은 잔약하여 일본에 대항하지 못하지만 열국은 일본의 침략정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일본이 동양의 맹주로서 침략정책을 중단하고 한·청이 일본과 정족(鼎足)의 형세를 이루도록 도와줘야 하며, 이렇게 되면 백인종의 황인종 멸시를 막을 수 있고 일본의 상품이 구미시장에 진출하여 일본이 천하에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²⁾

1906년 봄경 이강년은 충의사 소속의 여중룡(성산)·이병구(금산)·우용택(단양) 등과 함께 삼청동에서 시회를 갖기도 하였다.³⁾ 일본군의 의병후원자에 대한 검거열풍이 불고 있던 6월 26일 충의사원들은 각처의 죽음을 각오한 항일동지들에게 은밀히 통문을 보냈다. 그러나 약속장소인 혜화동에 모인 인사들은 허위·이강년·여중룡·우용택·이병구 등 5인 뿐이었다. 이들은 창의를 상의했으나 우용택은 노모 봉양 때문에 이병구는 신병 때문에 빠지고, 나머지 3인이 피를 마시고 맹약하고 손가락을 베어 피로 서명하고 창의를 다짐하였다. 이때 허위는 안동에서 일어나 강원도를 거쳐 상경하고, 이강년은 상주에서 일어나 충청도를 거쳐 상경하고, 여중룡은 금산에서 일어나 전라도를 거쳐 최익현 의병장과 합세하여 상경하여 일제의 통감부를 함께 파괴하기로 계획을 정하였다.⁴⁾

1906년 7월 이후 귀향한 이강년은 다각도로 거의를 모색하였다. 아마 처음에 그는 상주로 내려가 창의를 모색했을 것으로 보이나, 상주는 이강년의 주활동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병 소모가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거주지인 문경 일대와 을미의병 때 이름을 날린 제천을 오

1) 여중룡, 『남은선생유집』, 권1, 「충의사 서명록」

2) 여중룡, 『남은선생유집』, 권1, 「寄日公使館書」.

3) 여중룡, 『남은선생유집』, 권1, 「三清洞會李康年李炳九禹龍澤共吟」. 대한제국기 경상도 유림들의 서울에서의 항일운동에 대해서는 권대웅, 「한말 재경 영남유림의 구국운동」, 『일제의 한국침략과 영남지방의 반일운동』, 대구: 한국근대사연구회, 1995, 61-91쪽.

4) 여중룡, 『남은선생유집』, 권2, 「乙巳日記」. 1906년 5월 5일조. 密通于各處同志死士 約會于惠化洞 及期會者 許爲李康年禹龍澤李炳九而已 相議起義 龍澤以老母在不應 炳九亦以身病事 三人議定 許爲以安東爲中心 巡江原道一帶 而會京城 李康年以尙州爲中心 巡忠清道而會京城 余則以金山爲中心 巡全羅道一帶 與義兵將崔益鉉合勢會京城 以共破了所謂統監府之計 歃血盟約 斫指署印 相泣而罷.

가며 이 지역의 사인들을 대상으로 창의를 모색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문경·제천 사인들과 어떤 접촉을 가졌는가는 자료 부족으로 잘 알 수 없다.¹⁾ 다만 한 가지 이강년이 (음)9월에 김현준(金顯峻)의 초청으로 경상도 진성(진보)를 방문한 것은 이강년의 의병활동 봉기과정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이때 이강년은 곧장 거창으로 가서 김현준의 동지인 의병장 차성충(車晟忠)을 만나보고, 이어 진성으로 이동하여 김현준을 만나 심회를 교환하고 창의를 약속하고 돌아갔다고 한다.²⁾

이강년을 초청한 궁내부 주사 출신의 김현준은 총신 별입시인 심상훈의 수하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그는 아관파천기에 환어소청(還御疏廳)에서, 대한제국기에 복수소청(復讐疏廳)과 건의소청(建義疏廳)에서 궁중의 지원과 고종 측근의 심상훈·민영기 등의 후원을 받아가며 국왕 환어, 국모시해 복수, 개화역적 타도를 위한 상소운동을 주도한 투철한 항일의식의 소유자였다.³⁾ 그는 한말 의병운동 당시 구체적 경력이나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면서도 의진 내에서 의병장보다도 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여러 인사들의 활동상을 파악하는데 좋은 예시가 되는 인물이다.

이규홍의 일기에 의하면, 이규홍과 김현준은 기묘명현(己卯名賢)의 후예라는 인연으로 1893년부터 절친한 사이가 되었고, 이규홍이 수시로 상경할 때면 언제나 김현준의 집에서 유숙하였다. 이규홍은 1893년에 기묘명현의 후예이자 고종의 이종사촌인 심상훈을 방문하고 그와 친교를 나누었다. 이런 배경에서 김현준과 심상훈은 이규홍을 매개로 갑오경장 이전이나, 아니면 반개화파 상소운동이 치열하게 벌어진 대한제국 출범 전후경에 인사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인다.⁴⁾ 아울러 이규홍이 이강년이 죽은 지 8년 후에 지은 만사에서 자신과 이강년이 10년 동안 함께 의를 도모했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이강년과 이르면 을미의병 때부터 친분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⁵⁾

1905년 (음)2월 15일 김현준은 예천으로 사람을 보내 친구 이규홍을 서울로 불렀다. 서울에서 이규홍은 김현준의 측근 차성충을 소개받았는데, 차성충은 이미 경상우도 지역의 의병장으로 낙점을 받은 인물이었다. 이에 (음)7월에 김현준은 심상훈으로 보이는 ‘宗室의 一大臣’의 인도로 심야에 대궐에 들어가 고종에게 거의사를 상세히 아뢰는 가운데 차성충·이규홍·김교림 등이 거사동지임을 밝히고, 고종으로부터 밀조와 3만 냥의 군자금을 받아가지고 경북-호좌로 내려가 거의를 추진하였다.⁶⁾

김현준은 1905년 가을부터 1909년경까지 경상도와 충북 각지를 수시로 왕래하면서 명망가들을 대상으로 창의를 독려하고, 나아가 군사소모·군자모금·의병사기진작 활동에 골몰하였다. 이로써 그는 이규홍·이상룡·차성충·이강년·김상태 등과 지도·협력관계를 유지하며 경상우도·충청좌도 지역의 의병봉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⁷⁾ 이처럼 서울에서 내려간 김현준은 호좌지역과 경상우

1) 1906년 (음) 8월 초에 이강년은 1905년 가을 정운경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던 제천의 젊은 선비 강수빈·김홍경 등으로부터 “현재 의병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가를 의논해 보자”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으나 여기에 대해 어떠한 응답을 보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구완희, 『영원한 의병장 윤강 이강년』, 40-41쪽.

2) 이규홍, 「세심헌일기」, 병오년조. (丙午)九月 心淵遣人 請李康年來 此人族也 丙申舉義時 殺倭黨金奭中 而知名當世 以忠義見重者 此人直往居昌 見隱豹還 謂曰 果是世間無雙之才 因與心淵相約而去.

3) 충북학연구소 편, 『영동 애국지사 이견석 자료집』, 충청북도, 2004, 117, 242, 346쪽;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4, 「任免一束·雜件」(1897.5.18), 131쪽, 「任免一束·雜件」(1897. 6.7), 133쪽.

4) 이규홍, 「세심헌일기」, 계사년-갑진년조.

5) 『(국역)윤강이강년전집』, 158쪽.

6) 이규홍, 「세심헌일기」, 을사년조.

도의 의병봉기를 이면에서 독려하고 후원하는 막중한 역할을 내밀히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1906년 (음)9월에 이강년은 고종이 하사한 밀지의 권위와 고종 측근 대신의 후원을 배경으로 영남과 호좌 지역의 유력가와 부호들에게 창의를 권고하는 김현준과의 만남을 통해 의병활동에 대한 지원과 전략을 확보했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¹⁾

1906년 (음)9월 이강년은 김현준과 만남에서 거의를 약속한 후 예천과 안동의 명망가인 이규홍·이상룡²⁾과 인연을 맺었고, 이어 직접 거창으로 가서 김현준의 수하인 거창의병장 차성충과 친분을 쌓았다. 차성충은 이강년을 의병장에 추대하고 자신이 중군을 맡은 김상태와 친분이 두터운 인물이었다.³⁾ 이에 대해 해방 직후에 나온 이강년 관련 기록에는 이강년과 이규홍·김현준·이상룡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공(이강년:필자)이 영남 선비 세심(洗心) 이규홍(李圭洪)과 일찍부터 의리의 맹세를 하고서 항상 적을 치고 원수를 갚는 일을 의논하였다. 규홍은 일찍이 서산(西山) 김선생(金興洛:필자)을 스승으로 모시고 글을 읽으며 의리를 강론하였고, 또 호중(湖中) 선비들과 종유하여 이항로·김평묵·유종교 3선생의 중화를 높이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큰 의리를 듣고서 매우 감복하였다. 국가가 외국과 분쟁이 있는 후로는 적을 치고 원수를 갚을 뜻을 가졌으나 한낱 서생이라 어찌 힘이 미칠 수 있겠는가. 공이 거역할 때에 자주 사람을 보내어 군중의 계책을 문의하였는데 끝까지 도움됨이 많았다.

○ 석주(石洲) 이상희(李象羲:李相龍)와 심연(心淵) 김현준(金顯峻)은 경술(經術)을 가진 지사로서 을미년·병신년을 당하여 종묘사직이 위태롭게 됨을 보고 분개한 마음을 참을 수 없어 가산을 써가며 인재를 찾아다녔다. 공(이강년:필자)이 두 공의 의기를 듣고 혹은 면대하고 혹은 서신을 통하여 함께 의병에 대한 일을 모의하며 멀리서 성원하였다. 경술년에 두 공이 더욱 통분을 품고 만주로 건너가서 창을 베개 삼고 칼끝으로 불을 지펴 밥을 지으며 수십년을 활동하다가 마침내 이역에서 세상을 떠났다.⁴⁾

위 기록들을 감안하면, 이강년은 1907년 이전 창의를 모색하는 단계에서 고종세력과 연관이 있는 인사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었다. 1906년 (음)12월 이규홍은 김현준의 통보를 받고 곧장 적성으로 가서 하룻밤을 머물며 서로 거역의 세부사를 도모하고 돌아왔는데, 이때 모든 일을 차성충과 이강년에게도 통지하였다.⁵⁾ 이강년이 창의를 한 후 1907년 (음)7월 이규홍은 이강년의진을 방문하여 회포를 풀며 왜적을 치고 원수 갚는 일을 의논했는데, 이때 이강년의진의 군문을 지키는 병사가 이규홍을 몰라 출입을 거절하자 이강년이 급히 나와 이규홍을 맞이하였다고 한다.⁶⁾ 이를 보면 이강년은 창의단계에서 김현준·이규홍 등과 긴밀히 연락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 이규홍, 「세심현일기」, 을사-기유년조; 이규홍, 『세심현유집』, 권6, 「행장」. 遂謀城內忠憤有智畧者 亟圖前恥 若李石洲相義金心淵賢峻金白愚尙台車隱豹晨忠 皆贊劃心交也 締結賢豪 迎送饋贍 門無虛屨 跋涉險遠 罄竭家儲 動經十霜.

1) 김현준-이규홍의 의병활동에 대해서는 김정미, 「석주 이상룡의 독립운동과 사상」, 경북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31-38쪽.

2) 당시 의병운동보다는 계몽운동을 원하고 있던 안동의 이상룡은 김현준의 권고에 따라 의병에 참여하여 인근 영해의 신돌석에게 창의를 권고하고 매부 박경종과 함께 차성충의 의병활동을 돕고 군자금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3) 이규홍, 「세심현일기」, 을사년조.

4) 『(국역)운강이강년전집』, 446-447쪽.

5) 이규홍, 「세심현일기」, 병오년조.

6) 이규홍, 「세심현일기」, 정미년조; 『(국역) 운강이강년전집』, 306쪽.

3. 고종퇴위 전후 심상훈과의 관계

1906년 6월 26일 서울 혜화동에서 허위·여중룡·이강년 등 3인이 낙향하여 창의한 다음 군사를 거느리고 상경하여 일제 통감부를 타파할 것을 피로써 맹세하였다. 이후 허위는 하삼도 전역 및 경기·강원 각도를 돌며 유명 인사들을 두루 만나 창의를 모색하다가 고종 측근 정환직으로부터 2만 냥을 얻어 군사들을 모집하였고, 이어 1907년 7월 고종의 밀지를 받고 창의를 전면으로 나섰다.¹⁾ 여중룡은 1906년 9월 19일 사촌 여순화와 함께 고향 금산군의 군아에 돌입하여 화승총 80여 점을 압수하고 장정 180인을 모집하고 군자금 모집하여 9월 27일 창의에 돌입했으나 바로 이날 여중룡이 피를 토하고 중병이 생겨 거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의병전선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다.²⁾

이강년은 1906년 (음)8월경에 제천 사인들과 접촉을 가졌고, (음)9월에 고종에게 밀지를 받은 김현준의 초청을 받고 진보로 가서 의병창의를 협의하고 돌아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하였다. 이는 이강년이 의병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곤란한 처지에 봉착한 이강년의 의병운동에 물고를 터준 인사는 심상훈이었다. 1906년 겨울에 이강년은 배양산에서 시종무관장과 궁내부대신을 지내고 있던 심상훈의 방문을 받았다.

지난해(1906년:필자) 겨울에 공(이강년:필자)이 배양산(培陽山)³⁾에 들어가 군사들을 휴양시키고 있는데, 판서 심상훈이 친히 몸종을 데리고 초피(貂皮) 갑옷과 금침(衾枕)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며 말하기를, “이 물건이 보잘 것 없지만, 장군의 겨울철 소용이 된다면 조금이나마 나라를 위하는 노고에 보답이 되겠습니다.” 하였다. 공이 사퇴하며 말하기를, “대감께서 이 비천한 몸을 마다 않으시고 이렇게 후하게 물건을 주시니 극히 황감하오나, 군사들이 춥고 굶주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강년(康年) 혼자만이 이 물건을 사용한다면 천지신이 어찌 나를 벌주지 않겠습니까. 감히 사양합니다.” 하였다. 심공은 매우 감탄하여 곧 쌀과 포목을 실어 보내고 서울로 들어와서 임금께 그 사실을 아뢰니, 임금께서 가상히 여겨 곧 비밀 칙령을 내렸던 것이다.⁴⁾

이강년이 포군들을 쉬게 하려고 배양산에 머물렀을 때 심상훈이 몸종을 데리고 직접 찾아와 이강년에게 초피 갑옷과 금침을 주며 노고를 치하했다는 위의 기사는 그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기 때문에 날조된 사실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이 기사가 실린 「운강선생창의일록」이 원자료인 「창의사실기」에 비해 전과를 매우 과장한 문제가 있지만 사실을 날조한 부분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기사는 사실일 것이다.⁵⁾

위 기사에 의하면, 심상훈은 이강년에게 고종 명의 밀지의 권위에 버금갈 만한 곡진한 격려를

1) 한국학문헌연구소 편, 『(국역)허위전집』, 아세아문화사, 1984, 90-91쪽.

2) 여중룡, 『남은선생유집』, 권2, 「乙巳日記」. 1906년 (음)7월 6일-8월 10일조.

3) 원주의 신림면, 영월의 수주면, 횡성의 단흥면 사이에 있는 산.

4) 독립동사편찬위원회 편, 「운강선생창의일록」, 『독립운동사자료집1 : 의병항쟁사자료집1』, 223쪽.

5) 김희진이 지은 이강년의 묘갈명에는 이강년이 1906년 겨울 배양산이 아니라 1907년 겨울 가평 광악산에서 심상훈의 방문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밀지 발행 시점과 심상훈 사망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오류로 보인다. 김희진, 「묘갈명」, 『(국역)운강이강년전집』, 139-140쪽.

전해줌으로써 이강년의 의병활동에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해주었다. 당시 심상훈이 전달한 갑옷과 금침은 이강년이 고종 측근의 인정을 받은 의병장임을 입증해주는 징표였기 때문에 이강년은 이때 이미 고종세력으로부터 황제의 밀칙을 받은 것이나 진배가 없었다.¹⁾ 이렇게 심상훈은 을미의 병 때처럼 이강년을 후원하였고, 이강년은 심상훈의 후원을 배경으로 의병활동에 돌입하였다.

1907년 3-4월경에 이강년은 창의의 깃발을 들었다. 이때‘어떤 사람’이 이강년에게 의병전략을 제시하며“제천에서는 의병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듣자 하니 지평고을에는 명포수가 많으니 의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며, 충주 서쪽에서는 탄환과 총이 있으니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찌 얼른 서둘러 서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이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마땅히 서쪽으로 갈 것이니, 공은 뒤를 따라 오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고 하였다.²⁾ 이강년은 이 제안에 따라 지평에 있는 안승우의 아들 안기영의 집에 며칠을 머물며 애썼으나 아무 성과가 없었다. 그런데 한말 의병사에서 이러한 의병전략은 보통 고종세력이 재야세력에게 제시하는 것이 보통임을 감안하면, 또한 이 기사를 수록한 『창의사실기』가 심상훈에게 비판적인 인사가 집필한 창의록임을 감안하면, 이때‘어떤 사람’은 심상훈이거나 아니면 이강년의진에 들어와 있는 심상훈의 대리인일 것으로 판단된다.

1907년 (음)7월 이강년은 심상훈으로부터 밀지를 받았다. 「운강선생창의일록」에 의하면, “판서 심상훈이 밀칙을 받들고 와서 분부를 전달하니, 공이 글을 받들고 감격하여 눈물이 비 내리듯 하며, 여러 장병들을 불러 앞에 세우고 옆드려 읽으며 해설하여 의리로써 타이르니, 사졸들이 모두 기운을 내며 죽도록 싸우기를 원하였다”고 하였다. 이 밀지는 창의 초기 이강년의진에 편입된 여러 군소 의진이 단일부대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열·갈등 양상을 보일 때 이강년이 이 밀지의 권위에 힘입어 의진을 통할하고 의병장으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데 기여한 중요한 문건이다.

칙령

아아! 나의 죄가 크고 악이 넘쳐 황천이 돌보지 않으시니, 이로 말미암아 강한 이웃이 틈을 엿보고 역적 신하가 권세를 농락하여 4천년 종사(宗社)와 3천리 강토가 하루아침에 보잘 것 없는 지역이 되었도다. 오직 나의 실낱같은 목숨이야 아까울 것이 없으나 종사와 백성을 생각하니, 이것이 애통하도다.

선전관(宣傳官) 이강년을 도체찰사(都體察使)로 삼아 칠로(七路)에 보내노니, 양가(良家)의 재주 있는 자제들로써 각각 의병을 일으키게 하며, 소모장으로 임명하되 인장과 병부(兵符)를 새겨서 쓰도록 하라. 만일 명을 쫓지 않는 자가 있으면 관찰사와 수령이라도 먼저 베고 파직하여 내쫓을 것이며, 오직 경기 진영의 군사들은 나와 함께 사직(社稷)에 순절할 것이다. 조서를 비밀리에 내리는 것이니 그리 알고 모든 일을 거행하도록 하라.

광무 11년 7월 일 어새(御璽)³⁾

그런데 위 밀지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구완회는 이강년 관

1) 을미의병 때 강릉의병장 민용호는 여주의 민씨 척족이 보내준 겨울외투를 군중에 자랑스럽게 돌려 보이고 입었는데, 이는 민용호의 의병장으로서의 권위가 민씨 척족들의 후원에서 나온 것임을 입증해 주는 좋은 사례이다.

2) 『(국역) 창의사실기』, 31쪽.

3) 『(국역) 운강이강년전집』, 299쪽. 嗚呼 予罪大惡盈 皇天不佑 由是強隣視覲 逆臣弄權 四千年宗社 三千里疆土 一朝爲犬羊之域 惟予一縷之命 猶不足惜 惟念宗社生靈 茲以哀痛 以宣傳李康季爲都體察使 勸送七路 以良家才子各立義兵 拜爲召募官 自刻印符從事矣 若有不從命者 觀察守令 先斬罷出而處分 畿堡一縷 殉於社稷 璽書密下 以此知悉舉行事. 光武 十一年 七月 日 御璽.

련 자료에 여러 번 나오는 이강년과 고종세력과 관련된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는 가운데, 이강년의 밀지 수령 사실에 대해서 첫째, 일개 선전관 출신인 이강년에게 국가 위난기에 정승급 관료에게 부여하는 도체찰사직을 내릴 수가 없으며, 둘째, 이강년이 받은 밀지의 내용이나 형식이 다른 밀지들에 비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셋째, 심상훈이 8월 7일에 사망했기 때문에 8월에 밀지를 전달받을 수가 없으며, 넷째, 이강년의 밀지 수령 문제는 의병운동 때 쓰여진 초고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에 엮은 『운강유고』에 실린 「창의사실기」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해방 직후에 출판된 『운강문집』(1949)에 수록된 「운강선생창의일록」(1948)에만 나오며, 다섯째, 『운강문집』은 경상도 용궁에서 간행될 때에 기사에 윤색이 가해졌고, 『운강문집』 말미의 장임록에 제천 유림들이 모르는 경상도 인사들이 다수 추가되어 제천 두학동 오석(烏石)의 진주 강씨 유림들이 분개한 사실이 있다는 점등을 들어 신빙할 수 없다고 하였다.¹⁾

그러나 구완회의 주장은 첫째, 이강년 장례 때 지은 만사(輓詞)에 이미 이강년이 고종의 밀지를 받은 사실이 언급되어 있고,²⁾ 둘째, 구완회도 언급했듯이 1908년 이강년의 유해를 과천에서 제천으로 이장할 때 지은 여러 제문에서 이미 이강년을 ‘도체찰사(都體察使)’ ‘도창의대장(都倡義大將)’이라고 칭한 사실이 있으며,³⁾ 셋째, 이강년의 선봉장을 맡아 활약한 권용일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강년의 밀지 소지를 언급하고 있으며, 넷째, 이강년이 심상훈에게 받은 밀지가 최익현이 ‘도체찰사’의 직위를 수여받은 밀지와 그 형식과 내용과 분량이 매우 흡사하며,⁴⁾ 다섯째, 1906년 (음)9월 이강년이 김현준을 만났을 때 김현준에게서 사본 밀지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섯째, 이강년이 받은 밀지 말미에 쓰인 ‘1907년 7월’이란 시점이 음력이 아니라 당시 실록과 관보 등에서 사용한 양력에 따른 것임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곱째, 이강년은 이미 1906년 겨울 배양산에서 심상훈에게 밀지에 준하는 창의 당부와 격려를 받았으며, 여덟째 「창의사실기」의 초고를 쓴 제천 오석의 선비 강순희가 이강년의병 출범 이후 의진에 가담하여 이강년의 활동을 기술했기 때문에 창의 이전에 이강년과 고종세력의 연대관계를 몰랐으며, 아홉째, 심상훈이 을미의병 때 유인석의병을 적극 후원하여 창의시켰다가 나중에 해산을 권고했던 전력 때문에 제천 오석의 강경파 유림들이 심상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이강년의병과 심상훈과의 관계를 애써 부인하려 했다는 사실 등등을 감안하면, 이강년의 밀지 수령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한말 의병운동 당시 연합의병장들이 밀지 수령 방식은 3가지였다. 첫째, 고종이나 고종 측근으로부터 밀지나 밀지에 준하는 신물을 수령한 후에 군사를 모아 의병활동이 돌입하는 경우, 둘째, 고종이나 고종 측근으로부터 밀지에 준하는 창의 당부나 격려를 먼저 받은 후 의병

1) 구완회, 『영원한 의병장 운강 이강년』, 184쪽; 구완회, 「이강년 관련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제천을미의병100돌기념학술논문집』,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6, 315-318쪽; 구완회, 「정미의병기 의병부대의 연합과 갈등-이강년의 호좌의병을 중심으로-」, 『제천의병의 이념적 기반과 전개』, 이회, 2002, 235쪽.

2) 개성 사림 고언경의 만사에 “조칙(詔勅)을 받들어 강한 도적을 토벌하여(奉勅討勦敵),” 평산 유림 신현구의 만사에 “밀조(密詔) 받던 당년에 눈물 흘렸고(受詔當年流涕淚)”라고 하여 이강년이 밀지를 받았음을 언급하였다. 『(국역)운강이강년전집』, 161, 182쪽

3) 구완회, 「이강년 관련 문헌에 대한 비판적 검토」, 338쪽.

4) 을사늑약 후 최익현이 받은 밀지에 대해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말의병전쟁자료집 : 폭도격문』, 도서출판 선인, 309-311쪽.

활동을 벌이다가 뒤늦게 밀지를 받는 경우, 셋째, 고종이나 고종 측근에게 밀지를 받은 인사로부터 사본 밀지를 받은 후 나중에 고종세력으로부터 다시 밀지를 받는 경우 등이다. 이강년의 경우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중첩된 경우라고 판단된다.

이강년이 밀지의 권위를 이용해 의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솔하였는가는 이강년의진의 좌선 봉장 하한서가 군령을 어겼을 때 밀지를 내보이며 군기를 일신하고 모든 의병 간부들로부터 충성을 이끌어내는 장면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여러 장수들이 (하선봉의 용서를) 애걸하며 두 장수(권선봉·백선봉:필자)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니, 선생도 마음이 비감하여 낙루탄식하며 왈 “나도 또한 하선봉을 수족같이 알 뿐만 아니라 전후 만사를 선봉들만 믿는 중인데, 현재로 말하면 우리 일국의 흥폐존망이 우리에게 달렸으며 우리는 또한 고종황제의 밀칙을 받았으니 우리 군사는 곧 천졸(天卒)이라. 한번 실수를 하면 삼천리 강토와 이천만 생령의 생사가 목전에 달린 고로 나도 그리한 것이니 너희들도 그리 알고 각별 조심하여 강토를 회복하고 생령을 구원하라. 그리고 7월분의 고황제(高皇帝) 밀칙(密勅)을 받았으나 제장 군졸에게 광포(廣布)를 못한 것은 방금 조정대신이라 하는 것이 다 적당이요, 또 이등박문(伊藤博文)이가 고문관이 되었으니 만일 이 말이 누설되면 고황제께서도 국모의 일과 같을까 염려하여 비밀에 붙였노라” 하시며 하선봉을 낙루 악수하여 죄를 사하시고 군졸을 다 물리치고 제장(諸將)만 모여앉아 고황제의 밀칙을 내어놓고 자자히 설명하니 뉘 아니 낙루하며 뉘 아니 설워하리. (이하 밀칙 원문과 번역문 생략) 이상과 같은 지라. 좌우 제장이 일제히 일어나서 북향 사배(北向四拜)하고 낙루체음(落淚涕泣)을 하니 일월이 무광하고 산천초목과 비금주수(飛禽走獸)도 다 슬퍼하는 듯하더라.

이 사연을 저저히 들은 전후 제장과 참모 종사들은 그날부터 일층 더 각골명심하여 상의를 한다. 우리가 국가사명을 힘대로 졌으니 우리는 힘대로 하여 꿈에라도 산다는 살 생(生)자는 아주 영영 잊어버리고 죽는다는 죽을 사(死)자를 우리의 의무로만 알고 행하자. 사람이 세상에 나서 죽는 것은 누구나 일생에 한번이지 두 번이 아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 말고 쉬운 데다가 붙이면 아주 쉬운 것이다 하며 만좌 제장이 개왈(皆曰) “일생일사(一生一死)는 인지상사(人之常事)라 하며 일체 가결되었다. 그렇지 아니하여도 우리 호좌대진(湖左大陣)은 성생이 고명하고 막하에 명장이 많은 고로 의병으로는 제일 우수하였는데 연중(然中)에 황칙(皇勅)을 받은 후로는 더 우수한 막강지병이 되었다.¹⁾

이강년이 받은 심상훈이나 심상훈의 사자에게서 받은 밀지가 고종이 직접 하사한 원본 밀지인지, 원본을 하사받은 의병장들로부터 재차 전해 받은 사본 밀지인지, 의병활동을 위해 자체 제작한 위조 밀지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이든지간에 이강년의병에 참여한 다양한 세력들은 이강년이 제시한 밀지에 고종의 권위가 담겨있다는 점을 추호도 믿어 의심치 않았고, 밀지를 보는 순간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종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밀지의 전달자를 심상훈이라고 적시함으로써 고종 측근인 심상훈의 권위와 영향력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었다. 사실 이러한 점들은 이강년 의병진의 결성과 활동 과정을 이해할 때에 어떤 의미에서 밀지의 진위 여부 문제보다도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1) 權用侑, 「丁未倭亂倡義錄」, 『창작과비평』, 1977년 겨울호, 216-217쪽.

IV. 맺음말

무과 급제 후 선전관을 역임한 이강년은 을미의병 때 문경에서 창의하여 안동관찰사 김석중을 생포하여 처단하고 유인석의진에 들어가 신지수와 함께 가장 우수한 장수라는 평을 받았다. 그는 을사늑약 후 다시 의병을 일으켜 충청-강원도 산하를 누비며 일본군과 수차 전투를 치르다가 피신 도중 생포당해 서대문형무소에서 장렬히 순국하였다. 그는 큰아들 승재에게 내린 옥중 유언의 첫 문장에서 “네 아버가 평생에 품은 단충(丹衷)은 왕가(王家)의 일에 죽고자 한 것인데, 이제 뜻을 이루니 무엇을 한탄하랴”라고 하였다.¹⁾ 이는 이강년의 평생에 걸친 항일의병운동의 목표가 충군애국을 실현하려는 것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한말 호화지역 의병운동의 최대 후원자인 심상훈은 고종의 이종사촌으로서 고종의 측근 중 측근이었다. 그는 군부대신·탁지부대신·궁내부대신 등 권부의 요직을 두루 역임했을 정도로 고종의 오른팔 역할을 하였다. 그는 고종의 전제황제체제를 수호하고자 중앙과 지방에서 항일운동을 벌였고, 심지어 아들들을 의병에 가담하여 활동하게 하였다. 그가 죽자 고종은 “이 종신은 점잖은 자태와 조심스러운 성품을 지녔고 중앙과 지방의 벼슬을 쫓 지내면서 험한 길이건 평탄한 길이건 한결같은 절개를 지켜왔다. 연전에 왕실을 호위한 수고와 확고한 지조는 절절한 충성심에서 나온 것이니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졸서단자(卒逝單子)가 갑자기 이르렀으니 더없이 슬프다”고 하였다.²⁾

한말 의병운동 과정에서 이강년과 심상훈은 끈끈한 유대관계를 보여주었다. 양자 공히 태생적으로 조선의 왕가와 국가를 수호해야 하는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국가 위난기에 항일운동은 이들에게 당연한 인생행로였다. 양인은 전기의병 때 인연을 맺기 시작하여 후기의병 때에도 그 인연을 이어갔다. 심상훈이 고위대신으로 누리는 위광은 고종이 위임한 것이며, 이강년이 의병장으로서 발휘하는 모든 권능은 심상훈이 부여해준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인은 고종의 충직한 신하로서 일생을 살아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제 침략기에 이강년과 심상훈은 국가와 황제를 구하기 위해 의병을 일으켜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항일전의 궁극적 목표는 일제를 한반도에서 축출하는 것이었지만, 단기적 목표는 고종이 외국공사관으로 이어하거나 국외로 탈출하는 유리한 환경을 재야에서 만드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의 의병활동은 당시의 여러 구국운동의 조류 중 고종세력이 적극 추진한 국왕파천운동이나 대외청원운동과 상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전개된 것이며, 이때 항일의병운동과 국왕파천운동·대외청원운동은 국권수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것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전기의병 때 민간에 나돌던 서울은 춘천의병이, 인천은 충청도의병이, 부산은 경상도 및 강원 남부 의병이, 원산항은 영동의병이 내습하기로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다는 풍설은 의병운동과 국

1) 『(국역)운강이강년전집』, 「遺示承兒」, 65쪽.

2) 『순종실록』, 1907년 8월 7일. 詔曰: “此重臣敦厚之姿 謹愨之性 歷試內外 夷險一節 往歲衛護之勞 樹立之牢確 斷斷忠愍 云何可諉 逝單遽至 深用愴蠱.”

왕파천운동의 상관성을 여실히 보여준다.¹⁾ 다시 말해 재야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친일적 친위대가 지방으로 출동함으로써 궁성 수비가 약화되었고, 이를 틈타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함으로써 일본의 대한침략에서 일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어난 항일의병전략은 후기의병운동 때에도 다시 되풀이되었다. 오히려 후기의병기에 고종세력은 전기의병기의 의병전략을 다시 확대하여 원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러일전쟁 발발 전후에 고종세력은 대외적으로 전시중립을 선포하고 대내적으로 황제의 파천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1904-1910년간 고종은 불란서공사관이나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파천과 중국과 러시아로의 망명을 원하고 있었다. 러일전쟁 발발 전후에 내관 강석호는 춘천으로, 길영수는 평양으로, 이근택은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용익과 현상건은 불란서공사관으로, 이재순은 러시아나 불란서 공사관으로의 파천을 주장하였다.²⁾ 또한 고종은 1898-1910년간에 크고 작은 변란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러시아공사에게 러시아공사관으로의 파천과 러시아로의 망명을 타진하였다.³⁾ 이러한 국왕파천운동은 후기의병기에 궁내부대신 심상훈의 밀사 김현준의 의병활동을 이면에서 지원한 안동의 명망가 이상룡이 동지 이규홍에게 “접때 흥주(순흥의 김교림·이강년) 일행의 뜻과 같이 과연 어가가 대궐 밖으로 출동했는가”라고 물었던 데서 알 수 있듯이⁴⁾ 고종 측근들과 의병지도부 간에 모종의 교감하에 추진되고 있었다.

전·후기 의병운동기에 심상훈같은 고종세력과 이강년같은 연합의병장은 하층 인민들의 피어린 혈전을 배경 삼아 외국공사들과 구미 열강들의 반일·반전 여론을 환기시켜 일본의 대한침략을 저지하거나, 아니면 구미공사관이나 국내·국외의 모처로 고종의 파천을 단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개적·분산적·고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한말 대규모 연합의병의 항일활동은 고종세력의 연합적·입체적·전략적인 구상에 따라 추진된 셈이다. 한마디로 국망기에 고종세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중앙에서의 국권수호외교 및 고종파천운동과 지방에서의 항일의병운동은 고종의 항일전략의 중핵을 이루고 있었다.⁵⁾

1) 『주한일본공사관기록』 10, 「강원도 춘천부 폭도 봉기건」, 232쪽; 오길보, 『조선근대반일운동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8, 43쪽.

2) 『일본외교문서』, 37-1, #349, 「京城中立…皇帝播遷…件」, 319-320쪽, #519, 「韓帝의 露國公使館播遷說 情報件」, 440-441쪽, #533, 「韓帝佛國公使館播遷說…件」, 448쪽, #540, 「露國公使…來報件」, 454쪽; 幣元坦, 『日露間之韓國』, 100-101쪽.

3) 박종효 편역, 『러시아 국립문서보관소 소장 한국 관련 문서 요약집』, 한국국제교류재단, 2002, 32~33, 101, 105, 279, 388-389, 405-406, 733쪽.

4) 李相龍, 『石州遺稿後集』, 「與洗心軒」 六.

5)

운강 이강년의 도체찰사 제수와 순국과정 연구

이태룡(李兌龍)

(사)의병정신선양중앙회 의병연구소장. 문학박사

목 차

I. 들머리/74

II. 도체찰사 제수 이전의 의병투쟁/76

1. 후기의병 거의/76
2. 도체찰사 제수 이전의 의병투쟁/78

III. 도체찰사 제수 이후의 의병투쟁/79

1. 도체찰사 제수/79
2. 도체찰수 제수 이후 의병투쟁/88

IV. 운강의 피체와 순국 과정/101

1. 운강의 피체/101
2. 운강의 순국 과정/102

V. 마무리/105

1. 운강의 거의/105
2. 도체찰사 제수와 13도창의대진 참여/105
3. 운강의 피체 및 순국 과정/106
4. 평가 및 기타/106

I. 들머리

일제앞잡이 내각은 1895년 8월 20일(양력 10월 8일)¹⁾ 일제의 군경과 자객에 의해 왕비가 참살된 사실을 은폐하고, “왕후 민씨가 자기의 가까운 무리들을 끌어들이 집의 주위에 배치하고 집의 총명을 가리며 백성을 착취하고 집의 정령(政令)을 어지럽히며 벼슬을 팔아 탐욕과 포악이 지방에 퍼지니 도적이 사방에서 일어나서…”²⁾라는 조령을 반포하도록 종용하여 마침내 왕후 민씨를 폐하고 서인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하루 뒤 빈(嬪)으로 칭한다고 하였고, 그 해 10월 10일에는 복위시켰으며,³⁾ 10월 15일에는 왕후의 죽음을 반포하라고 명을 내렸다.

“지난번 변란 때에 왕후의 소재를 알지 못하였으나 날이 점차 오래되니 그 날에 세상을 떠난 증거가 정확하였다. 개국 504년 8월 20일 묘시에 왕후가 곤녕합(坤寧閣)에서 승하하였음을 반포하라.”

- 『조선왕조실록』, 1895년 10월 15일

일제앞잡이 내각은 왕후의 참변과 관련하여 ‘박선·이주회·윤석우 등의 모반 사건’이라고 운운하고, 그들에게 혐의를 덤터기 씌웠는데, 그 판결문⁴⁾을 보면, 박선(朴銑)은 “8월 20일 새벽에 일어난 사변 때에 피고가 일본 사람과 함께 반란 무리들 속에 섞여 왕후의 처소에 달려 들어가서 손으로 (왕후의) 달비채를 휘어잡고 마루 끝까지 끌고 가서는 검은 가스를 찌른 후에 검은 빛깔의 천으로 말아서 석유를 붓고는 불태워버렸다.”고 하였고, 이주회(李周會)는 폭도 앞잡이 노릇을 했고, 윤석우(尹錫禹)는 “불타다 남은 시체에서 하체만 거두어서 오운각(五雲閣) 서쪽 봉우리 아래에 몰래 묻어버린” 죄라고 하였다

그 당시 왕후가 참변을 당한 것이 일제앞잡이들에 의한 것이라고 조작한 바람에 유학자들조차 ‘시해(弑害)’·‘시역(弑逆)’의 용어를 썼고, 그 용어를 아직까지 사용하는 오류가 생기게 되었다.

『독립유공자공훈록』(1986)에 의하면, 운강(雲岡) 이강년(李康季)은 1858년 12월 30일(음력) 경북 문경군 가은면 도태리에서 본관을 전주로 하는 이기태(李起台)와 의령 남씨 사이의 아들로 태어나 1880년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길로 나서 절충장군 행용양위(折衝將軍行龍驤衛) 부사과(副司果) 선전관(宣傳官)으로 활약하다가 1884년 갑신왜란(갑신정변) 때 사직하고 고향에 은거하였다. 그 후 동학농민군에도 참여하여 탐관오리를 숙청하는 일을 하였고, 1895년 일제에 의해 왕비가 참살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판서 심상훈(沈相薰)을 찾아가 함께 거역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그가 응하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이듬해 1월 11일 고향에서 봉기하였다고 기록하였다.

1) 본고에서는 원문을 제외하고는 1896년 이전에는 음력으로, 이후는 양력으로 정리하였다. 이는 실록이나 일제의 기록 등이 1896년부터 양력을 사용했기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2) 『조선왕조실록』, 1895년 8월 22일

3) 『조선왕조실록』, 1895년 10월 10일. “왕후 민씨의 위호(位號)를 회복시키고 이달 8월 22일 조령을 격소(繳銷)하라.”

4) 『조선왕조실록』, 1895년 11월 14일

국가보훈처가 운용하는 공훈전자사료관 <독립유공자공적조서> 이강년 편에는 다음과 같이 공적 개요를 기록해 놓았다.

1. 1895년 乙未事變이 나자 閩慶에서 義兵을 일으켜 安東監察使 金奭中 등 三人을 죽이고 柳麟錫 麾下에 편입 遊擊將으로 다수 왜병을 습격 屠殺했고 익년 柳麟錫과 같이 渡滿 삼년간 있다가 귀국함
2. 1906년에 倭人들이 高宗을 위협해서 讓位하라는 소문을 듣고 익년 삼월 永春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켜 각지로 횡행하면서 倭人을 만나는 곳마다 습격 屠殺하였고 江原道義兵大將 閔肯鎬와 京畿道義兵大將 許薦와 상호연락하면서 倭兵大部隊와 여러 번 싸워 기세를 올렸으나
3. 1908년 2월 加平에서 京城駐屯倭兵에게 체포되어 無限困辱에도 굴하지 않고 死刑을 받았다

운강이 거의하여 참수한 안동관찰사를 ‘안동감찰사’로 기록하였고, “유인석과 같이 만주로 들어가 3년간 있다가”라는 내용도 오류이다. 당시 운강은 북으로 향하던 유인석 의진을 보호하기 위해 후군장을 맡아 관군과 일본군 추격을 뿌리치느라고 지체하게 되었고, 영월에서 진로가 막혀 소백산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그해 7월(음력)에 의병을 해산하고 단양 금채동(金采洞)에 은신하였다가 이듬해인 1897년 4월(음력) 서간도로 건너가 스승인 유인석을 뵈고 7월(음력)에 돌아왔다. 그리고 후기의병 거의 일자도 다소 문제가 있고, 피체 내용은 황당한 것이기도 하다.

일제침략기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에 대한 기록이 이처럼 황당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나온 수많은 기록들도 오류투성이가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논저¹⁾를 통하여 운강의 행적과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운강은 1895년 일제에 의한 왕비 참살에 분노하여 의병을 일으켜 경북·충북지역에서 의병투쟁에 나섰고, 을사늑약 소식을 듣고 국권회복을 위해 다시 의병을 일으키니, 1907년 여름 광무황제로부터 도체찰사에 제수되어 40여 의진을 이끄는 도창의대장에 올라 수많은 의병투쟁을 벌였다. 그 해 겨울 13도창의대진 호서창의대장으로 활약하였고, 그 후 경기·강원·경북·충북 등지에서 대규모 의진을 이끌다가 피체되었다. 운강은 평리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재판소구성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경성공소원에서 교수형이 선고되어 경성감옥에서 순국하였다.

본고에서는 『독립운동사』 1권과 『운강선생창의일록』 등이 수록된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권, 『기려수필』, 『주한일본공사관기록』과 『통감부문서』, 일제의 『폭도에 관한 편책』을 번역한 『한국 독립운동사』, 그리고 최근 간행된 운강 이강년 평전 등을 중심으로 운강이 재거하여 도체찰사로 제수되었으며, 그 전후의 의병투쟁 및 순국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국사편찬위원회와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가 간행한 도서 곳곳에 이강년의 의병투쟁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고, 김의환, 『의병운동사』, 박영사, 1974.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80.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의병전쟁연구』, 지식산업사, 1990. 그 외 오영섭, 김상기, 박민영, 홍영기, 구완희 등이 단행본을 내었고, 김의환, 「한말 의병운동의 분석」-이강년 의병부대를 중심으로-, 『한일문화』 1집. 부산대학교 한일문화연구소, 1962. 이구용, 「운강 이강년의 항일의병활동」, 『강원사학』 7, 1991. 정제우, 「구한말 의병장 이강년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리석재, 『의병대장 운강 이강년』, 사단법인 청권사, 1993. 그 외 박성수, 조동걸, 김상기, 이동영 등의 논저가 다수 있다. 본고 【참고문헌】 참조.

II. 도체찰사 제수 이전의 의병투쟁

1. 후기의병 거의

전기의병 때 윤강은 1895년 12월(음력) 문경에서 거의하여 도망치던 안동관찰사 김석중 일행을 처단하고, 안동의진을 이끈 성대(星臺) 권세연(權世淵)을 찾아가서 군사에 관한 일을 논의하고¹⁾ 돌아온 후 그달 3월 12일(음력 1월 29일) 의암(毅菴) 유인석(柳麟錫)을 찾아가니, 3월 14일(음력 2월 1일) 호좌의진(湖左義陣)의 유격장으로 임명함에 따라 제천·충주 인근에서 크게 활약했고, 마지막으로 후군장으로 활약한 것은 『독립운동사』 1권과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권에 실려 있는 『종의록』(이정규), 『운강선생창의일록』(박정수·강순희·이화중)²⁾,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박정수) 등에 자세히 실려 있다.

윤강은 을사늑약 소식을 듣고 재거를 위해 동분서주하게 되었다. 거의한 시기를 1907년 봄, 5월 등으로 보고 있는데, 『독립운동사』와 최근 윤강의 삶을 조명한 단행본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강년은 1896년 1월 그의 출생지인 경북 문경에서 처음 기의(起義)한 후 1896년 7월(음력)에 의병을 일단 해산하였다. 이로부터 1907년 다시 기의할 때까지의 10년간은 의암 유인석 밑에서 유학 공부에 전념하던 때로, 그의 유학적인 사상과 조예는 이때 닦은 것이었다.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권. 554쪽

이강년의 봉기는 1907년 봄에 구체화되었다.

- 구완회³⁾, 『영원한 의병장 윤강 이강년』. 41쪽

이강년이 재기항전의 기치를 내건 것은 중기의병이 재기한 후 전국적인 항전으로 확대, 격화되어가던 1907년 5월쯤이다.

- 박민영⁴⁾, 『의병전쟁의 선봉장 이강년』. 75~76쪽

『독립운동사』 1권에는 윤강의 후기의병 거의는 1907년으로 하고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구완회는 윤강의 봉기를 3월로 보았다. 그 이유로 “박약재에 자주 드나들면서 의병에 대하여 계속 논의하였고”,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 경기도 지평, 강원도 원주·횡성·강릉 등지로 나아가서 동지를 규합하였다.”라고 한 것에 주목하였다. 박민영은 5월로 보았는데, 그 이유로 “1906년 음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운강선생창의일록」,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권. 213쪽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운강선생창의일록해제」에는 박정수와 강순희가 엮은 것으로 하고 있고, 『운강선생창의일록』 속에 「운강선생창의일록」 1권 머리에 박정수와 강순희가 편집했다고 했으나 실제 「운강선생창의일록」 2권 2월 14일조에 “진성(眞城) 이화중(李和重) 편집”이라고 되어 있다. 『운강선생창의일록』 「지」에는 “전반부는 회당(梅堂) 박씨(朴氏) 정수(貞洙)의 기록한 것인데,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문득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후반부를 강순희(姜順熙), 이화중(李和重)이 뒤를 계속해서 이룬 것이다.”라고 명기하였다.

3) 구완회 : 세명대학교 교수

4) 박민영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력 8월 초에 제천의 강수빈(姜秀斌)·김홍경(金鴻敬) 등이 이강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의병 재기 방안을 모색한 흔적이 보이지만, 이강년이 보인 반응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면서, “그가 직접 의병을 다시 모아 항일전을 전개한 것이 1907년 봄인 점으로 미루어보면, 그전에 논의와 협의로는 당시로서는 재거라는 결실을 맺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운강선생창의일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융희 원년(1907) 3월(음력)에 공이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운강선생창의일록」,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권. 219쪽

7월에 판서 심상훈(沈相薰)이 비밀칙령을 받들고 와서 본부를 전달하니, 공이 글을 받들고 감격하여 눈물이 비 내리 듯하며, 여러 장병들을 불러 앞에 세우고 엎드려 읽으며 해설하여 의리로써 타이르니, 사졸들이 모두 기운을 내며 죽도록 싸우기를 원하였다.

지난해 겨울에 공이 배양산에 들어가 군사들을 휴양시키고 있는데, 판서 심상훈이 친히 몸종을 데리고 초피(貂皮) 갑옷과 금침(衾枕)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며 말하기를,

“이 물건이 보잘것없지만, 장군의 겨울철 소용이 된다면 조금이나마 나라를 위하는 노고에 보답이 되겠습니다.”

하였다. 공이 사퇴하며 말하기를,

“대감께서 이 비천한 몸을 마다 않으시고 이렇게 후하게 물건을 주시니 극히 황감하오나, 군사들이 춥고 굶주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강년(康年) 혼자만이 이 물건을 사용한다면 천지신이 어찌 나를 벌주지 않겠습니까. 감히 사퇴합니다.”

하였다.

심공은 매우 감탄하여 곧 쌀과 포목을 실어 보내고 서울로 들어와서 임금께 그 사실을 아뢰니, 임금께서 가상히 여겨 곧 비밀칙령을 내렸던 것이다.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23쪽

같은 책의 기록 중에서 “융희 원년(1907) 3월에 공이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는 것과 “지난해 겨울에 공이 배양산(培陽山)에 들어가 군사들을 휴양시키고 있는데,” 라는 부분이 있다.

전자는 문장 앞에는 원용팔(元容八)이 거의한 것에 대하여 운강이 글월을 보내어 격려 권장하였고, 지평읍에 명포수가 많다는 말에 따라 포수를 모으고, 의암 선생께 글을 올려 거의를 상의하였으며, “다시” 의병을 일으켜서 “원주·횡성 등지로 나아간 것이 3월 그믐이다.”라고 기록하였으니, 이 ‘다시’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가 ‘전기의병 이후’를 뜻하는지, ‘융희 원년 3월 이전’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후자의 문맥으로 보아 을사늑약 이듬해 거의했다가 한겨울 의병을 해산했다가 이듬해 봄에 거의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는 심상훈이 비밀칙령을 가지고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한 부분에서 “지난해 겨울에 공이 배양산에 들어가 군사들을 휴양시키고 있는데,” 라는 내용은 운강이 1906년 겨울 배양산에 들어가 군사들을 훈련시켰다는 방증이니, 운강은 1906년부터 거의 준비를 해온 것이었다.

옛 글은 대부분 주요 내용을 앞세우는 연역적 구성으로 되어 있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기술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기에 뒷부분의 내용도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2. 도체찰사 제수 이전의 의병투쟁

『운강선생창의일록』에 따르면, 을사늑약 이듬해인 1906년 의병을 모집하여 배양산(현 배향산 拜向山)에서 의병들을 훈련시킬 때 전 판서 심상훈이 찾아와서 격려를 하였다.

1907년 3월 다시 거의한 후 충북 영춘(현 단양군 속면) 용소동에 머물렀는데, 5월 11일(음력 3월 29일) 밤중에 갑자기 적의 습격을 받아 군사가 흩어졌다. 운강은 손수 칼을 들어 적을 쳤으나 적에게 부상당하였다. 횡성 고을 경계에서 봉복사로 들어가 백남규(白南奎)를 만났고, 강릉 봉평으로 갔다가 배양산으로 향했으며, 5월 26일(음력 4월 15일) 제천 오미·오석 등지를 거쳐 다시 용소동으로 들어갔는데, 영춘 고을 순검이 왜적을 데리고 습격해 오니, 함께 자던 여러 장수들과 포군들도 흩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운강은 칼을 들고 뛰어 나가 손을 쓰려고 하는 찰나에 적이 칼을 휘두르고 역습을 하여 운강의 왼쪽 뺨과 바른쪽 팔·손에 상처를 입고, 김상태(金尙台)·백남규와 함께 청풍·단양 등지에 머무르며 치료하였는데, 그 중 제일 오래 머무른 곳이 나곡의 정두용(鄭斗容), 역수동의 이진원(李進源) 등의 집이었다. “낮에는 숨고 밤에 행동하여 다친 몸으로 2백여 리를 가니, 손발에 멍이 들고 얼굴이 얼어 터져 흉터가 생겼는데, 그 동안의 쌓이고 쌓인 고생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라고 기록하였다.

이렇듯 운강이 도체찰사로 제수되기 이전에는 이렇다 할 의병투쟁 성과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Ⅲ. 도체찰사 제수 이후의 의병투쟁

1. 도체찰사 제수

1) 도체찰사 제수 사례

도체찰사(都體察使)는 고려말 공민왕 때부터 왕명으로 특정 지역에 파견되어 군정과 민정을 총괄하던 임시직으로 대체로 1·2품관이 임명되었다. 임진왜란 때 유성룡(柳成龍)은 경상·전라·충청도를 관할하는 ‘3도 도체찰사’를 맡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도체찰사는 임진·정유 양란이나 병자호란 때에만 임명되었던 것은 아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도체찰사와 관련된 기사는 고려말 황산대첩 때의 찬성사 변안열(邊安烈)을 도체찰사로 삼은 예를 시작으로 총 632건이나 된다.

태조 5년(1396) 이무(李茂)로 도체찰사를 삼아, 5도의 병선을 모아서 일기도(一岐島)와 대마도(對馬島)를 치게 하였고, 세종 10년(1428) 평안도 도체찰사 황희(黃喜)가 도절제사와 더불어 각 고을 성보(城堡)의 허실을 점검한 내용 등 무수히 많지만, 조선후기로 오면서 도체찰사를 제수한 경우가 점차 줄어들면서 숙종 4년(1678) 허적(許積)을 도체찰사로 제수한 기사가 마지막이다.

그런데, 1895년 왕비가 일제에 의해 참살되자 국왕은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궁중 음식을 먹지 않고, 궁궐 밖에서 손탁(孫澤, 독일어 Antoinette Sontag)이 만든 음식에 자물쇠를 채워 운반된 것을 먹었다는 일화가 전할 정도였고, 아관파천 이전에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하려다가 실패한 것이 이른바 ‘춘생문사건’, ‘춘생문의거’였다.

미국 공사관으로 피신하지 못한 국왕은 의병을 일으키라는 밀지를 내렸는데, 그것이 남한산성을 점령하고 있던 김하락(金河洛)에게 전달된 것이 1896년 1월 27일(음력 12월 13일)이었다.

왜적이 대궐을 침범하여 국가의 안위가 조석에 박두했으니 모조록 힘을 다해 토벌하라. 경(卿) 등의 자손에게 의당 후한 녹을 내릴 것이다. 김병시(金炳始)로 삼남창의도지휘사(三南倡義都指揮使)를 삼고, 계국량(桂宮亮)으로 목인관(木印官)을 삼아 장차 목인을 선포키로 한다. 경기도는 순의군(殉義軍)이라 하고, 충청도는 충의군(忠義軍)이라 하고, 영남은 장의군(仗義軍)이라 하여 8도에 반포하노니, 8도 각 고을은 모두 호응하여 창의하기 바란다.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김하락진중일기」,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권, 588쪽

1896년 1월 말경 이춘영(李春永)과 김백선(金伯善)이 의병을 모집하러 경기도 지역으로 나갔다가 여주 방면에서 국왕의 밀조를 가지고 온 자를 만나게 되어 급히 제천으로 향했다.

영의정 김병시로 도체찰사를 삼아 안팎을 무마하게 하고, 진사 계국량으로 감군지휘사(監軍指揮使)를 삼고, 칠로(七路)에 근왕병을 두되, 호서는 충의군(忠義軍), 관동은 용의군(勇義軍), 영남은 장의군(壯義軍), 해서는 효의군(效義軍), 호남은 분의군(奮義軍), 관서는 강의군(剛義軍), 관북은 감의군(愍義軍)이라 한다.

그리고 의병을 일으킨 선비에게 아울러 초토사(招討使)를 제수하고 비밀 병부(兵符)도 당연히 내 줄 것

이며, … 오직 경기 한 도는 순의군(殉義軍)이라 하며, 나는 사직에 죽기로 했으니, 내외 의사들은 내 뜻을 본받아 마음을 한결같이 하여, 종묘·사직과 민생을 생각하라. 이 글을 선포하여 알려 주는 것이다.

을미년 12월 15일 자정, 조서를 비밀리 내린다.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창의건문록」,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권. 99~101쪽

그 후 의병 모집이 순조롭게 되었고, 마침내 의암 유인석이 의병장에 올랐으니, 이날이 2월 2일(음력 12월 19일)이었다.

1896년 1월 17일(음력 12월 3일) 경기도 여주에서 거의한 복재(復齋) 민용호(閔龍鎬)가 남으로 평해·울진으로부터 북쪽의 고성·흡곡에 이르기까지 9군이 한 덩어리가 되는 관동의진을 형성하게 되었던 2월 22일(음력 1월 10일), 춘천의병장 이경응(李景應)이 인편으로 보낸 국왕의 밀지를 받게 되었다.

국왕은 이렇게 말하노라! 아, 슬프도다! …

너희 충의의 의사들을 격려하면서 이 애통한 글월을 내리노라!

영의정 김병시(金炳始)를 도체찰사로 삼아 중앙과 지방의 민심을 진정시키고, 전 진사 계국량(桂國樑)을 감군지휘사로 삼아서 근왕군(勤王軍)을 7로(七路)로 나누노니, 호서를 충의군(忠義軍)으로 하고, 관동을 용의군(勇義軍)으로, 영남을 장의군(壯義軍)으로, 해서를 효의군(効義軍)으로, 호남을 분의군(奮義軍)으로, 관서를 강의군(剛義軍)으로, 관북을 민의군(愍義軍)으로 하노니, 처음 의병을 일으킨 의사를 소모사로 삼으면 비밀 병부(兵符)는 곧 보낼 것이다.

- 민용호 저/이태길·민원식 역, 「관동창의록」, 『국역 복재집』. 228~230쪽

복재가 이 조칙을 받아 진중에서 엎드려 읽으니 눈물이 턱에 흘러 내렸고, 제장과 의병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기록하였다.

그리고 1896년 2월 19일(음력 1월 7일) 진주관찰부가 있던 진주성을 점령하고 경상우도 21군을 의병천하로 만들었던 노응규(盧應奎)도 밀지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국왕이 남녘 별궁(別宮)에 나아가 있고, 3도에 48진을 만들라.”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노응규가 진주참서관 오현익(吳顯益)이 도망치다가 붙잡혀 왔는데, 동래관찰사 지석영(池錫永)에게 일본군 지원을 요청하는 서찰이 발각되어 처형되었다.

1월 18일(양 3월 1일-필자 주) 군사들이 자세를 가다듬은 가운데 밀지를 봉독, 고유한 다음 효수했다.

- 국사편찬위원회, 『주한일본공사관기록』 5권. 36쪽

전기의병 때 위 네 의진에 전달된 국왕의 밀지는 세 종류였다.

이춘영과 민용호에게 전달된 것은 김하락에게 전달된 것과 달리 김병시를 도체찰사로 하지 않고, 삼남창의도지휘사라고 했고, 그 내용도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노응규에게 전달된 밀지의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 내용 일부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김병시를 도체찰사로 삼는다는 내용의 밀지는 「김사정의 헌책」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애통하신 비밀 조서(詔書)에 대해 무릇 오늘의 신민(臣民)이 된 자는 누구나 흐느껴 울며 절통하게 생

각하지 않겠습니까? 정히 충신 의사가 주먹을 두들기며 담력을 가다듬어 의리를 완수하고 죽음을 다할 시기입니다. 8도 충의의 군사가 곳곳에서 다투어 일어나고 있으나 사람사람이 각각 스스로 대장이 되어 명령이 한결같지 않고 군사가 규율이 없으니, 그러고야 어떻게 큰일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의 비밀 조서에는 ‘김정승으로 도체찰사를 삼는다’하셨는데 지금 벌써 수개월이 지났으나 꾀꾀하여 소식이 없으니 비록 비밀계획이 어떻게 진전되었는지 모르지만 심히 의심스럽고 답답합니다.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김사정의 헌책」, 독립운동사자료집 1권. 113쪽

2) 후기의병 때 광무황제의 밀명·밀지 사례

을사늑약 이후 후기의병 때의 광무황제의 밀명과 밀지는 그 수령자가 특정되지 않았던 종전과는 달리 충신이라고 판단되는 특정인이나 주요 의병장에게 전달된 점이 특이하고, 밀지는 밀조(密詔)·밀서(密書)·밀칙(密勅)라고 부르기도 하고, 아예 조칙(詔勅)·칙령(勅令)이라고도 하였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광무황제는 나라의 안위가 풍전등화와 같다고 판단하여 전 도찰사(당시 6품관) 정환직(鄭煥直)에게 암호 조칙 ‘짐망 화천지수(朕望華泉之水)’¹⁾를 내려 의병을 일으키도록 하였고, 유인석(영릉참봉 제수, 받지 않음)에게는 ‘거의(擧義)’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된 밀지를 내렸는가 하면, 군대해산 직후 전 군부대신 신기선(申箕善)은 전 연안군수 명범석(明範錫)과 전 중화군수 신종균(申從均)으로 하여금 청주·목천군수를 역임한 박정빈(朴正斌, 정3품)에게 의병을 일으키라는 광무황제의 밀지를 전달하였고, 13도창의대진을 이끈 이인영(李麟榮, 종2품)²⁾이 관동의진을 이끌 때 밀지를 받았다고 하며, 호남 연합의진이었던 호남동의단(湖南同義團) 대장 전해산(全海山, 유생)과 호남의병장 심남일(沈南一, 유생), 육남소모장 유종환(兪宗煥, 정3품 선전관) 등도 밀지를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1907년 봄부터 1909년 여름까지 전남 지역에서 활약했던 심남일의 『심남일실기』 「부록」에 실려 있는 밀지는 도체찰사로 면암(勉菴) 최익현(崔益鉉)을 삼는다고 했으니, 후기의병 때 도체찰사로 가장 품계가 높다. 면암은 제1차 김홍집내각의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다가 나흘 후 사직했지만 이때부터 정2품관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 ! 원통하다. 나는 죄악이 커서 하늘이 돕지 않으니 백성이 도탄에 빠졌다. 이 때문에 강한 이웃 나라가 틈을 노리고 역신(逆臣)이 권세를 우롱하니 4천 년 예의의 나라가 나의 대에 와서 하루아침에 견양(犬羊)의 지역이 되었다. 나는 무슨 닢으로 성묘(聖廟)를 뵈옵는단 말이냐.

오직 내 한 목숨은 족히 아까울 것 없으나 종묘사직과 백성을 위하여 이와 같이 애통하는 ‘밀조’를 내려 전 참정 최익현(崔益鉉)으로 도체찰사를 삼아 7로에 보내는 것이다.

호서는 충의군으로, 호남은 장의군으로, 영남은 분의군으로, 관서는 용의군으로, 관동은 강의군으로,

1) 춘추전국시대 제(齊) 경공(頃公)이 진(晉) 나라 군사와 싸우다가 패하고 적군에게 붙잡히게 될 처지에 놓이자 마부장 봉축부(逢丑父)와 서로 복장을 바꾸고 입장을 바꿔 봉축부가 제 경공에게 물을 떠 오게 명령하여 죽음을 모면한 고사. 여기서는 ‘물’이 의병을 의미한다. 당시 궁궐에도 일제앞잡이들이 많아서 광무황제는 선문답과 같은 비유와 암시로 뜻을 전해야 했다. 의병을 일으켜서 나라(황제)를 구하라는 의미로 한 말이었다.

2) 이인영(李麟榮) : 후기의병 이전에는 본명 ‘李寅榮’을 사용하였다. 「이인영진술조서」에서 이인영은 벼슬한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였는데, 일본 헌병은 그의 본명은 묻지 않았고, 13도창의대진 의병장 때의 이름과 피체되었을 때 이시영(李時榮)으로 변성명한 이유를 묻고 있다. 이인영은 승정원 동부승지, 평리원 수반판사, 법관양성소장 출신이었다.

해서는 호의군으로, 관북을 응의군으로 하여 각기 의기를 세우고 양가의 자제들은 모두 소모관으로 등용하라. 그리고 각 군중의 인장은 모두 자유로 새겨 쓰고 관찰사나 군수로서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 있으면 우선 파직처분을 내리며, 모두 마음을 단합해서 나가라. 경기 1도는 내가 그 군사와 더불어 사직을 위해 순사하려는 것이다. 책서(蠶書)를 비밀히 내리는 것이니 짐작하라.

을사 11월 22일 밤 발급한다. 경기도 민경식(閔景植) 민병한(閔炳漢) 이정래(李正來) 민형식(閔衡植)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심남일실기」, 『독립운동사자료집』 2권. 588쪽

이 밀지의 형식은 전기의병 때 경기도 연합의진에 보내졌던 것과 유사한데, 면암을 도체찰사로 삼아 전국 7로에 보낸다는 것이니, 밀지를 받아 간직해야 할 자가 면암이어야 정상이고, 아니면, 의병 거의를 고무하려는 격문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면암의 벼슬을 ‘전 참정(參政)’이라 했으나 그는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을 지냈고, 당시에는 궁내부특진관이었기에 밀지에 직책을 틀리게 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심남일에게 전달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당시 호남의 거유였던 후석(後石) 오준선(吳駿善)이 후대에 쓴 「의병장심남일전」에도 밀지를 언급하고 있는 점은 연구과제이다. 이것이 『면암집』에 실리지 않은 이유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거나 문집 편찬자들이 이 밀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도 연구과제이다.

1907년 여름 관동의진을 이끌었던 이인영은 그 해 겨울에는 13도창의대진 대장으로서 서울진공에 나섰는데, 광무황제와 융희황제로부터 각 1차례씩 밀지가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1차 밀지는 허위(許蔭)가 1908년 6월 11일 피체되어 일본군의 신문을 받을 때 이인영이 13도창의대진을 형성하기 위해 전국에 통문을 보낼 때 “조칙이 내려졌으므로 전국에 통문을 보내 달라.”고 말한 대목인데, 이인영은 그 사실을 부정했으나 허위의 많은 진술 중에 거짓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사실일 개연성이 높는데, 이것은 시기와 성격상 거의를 격려하는 광무황제의 밀지로 본다.

문 : 허위의 말에 따르면, 이인영이 김명성(金明成)을 사자(使者)로 허위에게 보내어 이번에 이인영에게 조칙(詔勅)이 내려졌으므로 전국에 통문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

답 : 허위는 원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중략)

결론 : 1907년 8월 그는 3진의 장(將)으로 8도에 격문을 보내 병사를 소집하고 정부 백관의 죄악을 헤아려 통감 및 각국 총영사에게 글을 보내 일본이 전약(前約)을 어기는 행위가 있음을 호소하였음.

- 국사편찬위원회, 「이인영진술조서」, 『통감부문서』 8권, 1909년 6월 30일

2차 밀지는 허위가 1908년 10월 21일 순국하고, 이인영은 1909년 6월 7일 피체되어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차례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밀지를 가지고 온 사자(使者)는 13도창의대진 각 대장에게 벼슬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융희황제의 조칙’이었다고 대답하였다.

문 : 대전(大田)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조칙을 가지고 온 것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어떤가?

답 : 조칙을 가지고 왔지만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문 : 그 내용이 관직에 들라는 것인지, 또는 창의하라는 조칙인지, 양자 어느 쪽이든 개봉하지 않고서는 판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답 :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사자(使者)가 말하니까 믿었던 것입니다. 그 조칙은 저 한 사람 앞으로 온 것이 아니라 각 대장에게 건네라는 칙명이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문 : 그 조칙이라는 것은 재작년(1907년-필자 주) 11월 지참하였다고 하는데 전 황제의 조칙이라고 하였는가, 아니면 현 황제의 조칙이라고 하며 가지고 왔는가?

답 : 새 황제의 조칙이라고 하였습니다. 전 황제가 아닙니다.

-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909년 6월 30일

이것은 일제와 그들 앞잡이 내각이 13도창의대진의 의병장들을 회유하기 위해 융희황제의 재가를 받은 조칙이었던 것으로 보아 밀지의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전해산이 전북에서 전남으로 내려가서 조경환(曹京煥) 의진에 참여하면서 오성술(吳聖述)과 광주·나주 등지에서 거의를 모색하고 있을 때인 1908년 8월 어느 날, 8척의 헌헌장부가 수십 명의 해산군인을 데리고 와서 광무황제의 비밀조칙을 전하며 의병장에 오르라고 하였다.

불초 소자가 남쪽으로 온 지 한 달이 지났사온데, 얼마 전에 한양사람 정원집(鄭元執)이 가져 온 밀조(密詔)를 봉독하고 항공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 이태룡, 『호남의병장 전해산』(하). 63쪽

정원집은 시위대 참위 출신으로 일찍이 을사늑약을 규탄하고, 경기도 광주에서 정철하(鄭喆夏) 의진에 참여했다가 피체되어 국사범(國事犯)으로 10년 유배형을 받고 전남 지도(智島)에 유배되었다가 탈출하여 허리띠에 숨겨 가지고 온 밀조를 전달했던 것이다. 이것은 전해산이 부친에게 보낸 서신 「상 친정(上親庭)」 등에 실려 있는데, 밀조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전남 지도로 유배를 떠나는 시위대 전 참위에게 광무황제의 밀조가 전달되고, 그가 유배지를 탈출하여 전해산에게 전달하였던 것이다.

선전관 출신 유종환(兪宗煥)이 1907년 9월부터 경남 거창·안의, 전북 무주·장수 등지에서 의병투쟁을 벌이다가 1909년 5월 25일 중상을 입고 피체되어 몸수색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허리띠 속에서 광무황제의 밀칙이 발견되었다. 그를 육남(六南)¹⁾의 소모장으로 제수하니, 훈척부터 농부에 이르기까지 의병을 일으켜서 종묘사직을 지키라는 내용이다. 그는 충남 홍주(현 홍성)에서 한성(경성)에 사는 민조식(閔阜植)으로부터 받았고, 그 당시 그것을 받은 자는 노병원(盧丙元)과 노창주(盧昌州) 등 3인이라고 진술하였다.²⁾

일제는 유종환이 소지한 비밀조칙을 “의조밀칙(擬造密勅)”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는 광무황제가 비밀리 의병을 지지한다는 사실과 고관, 명망가의 의병참여 사실을 숨기고, 의병을 단순한 ‘폭도’의 무리로 폄훼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1) 삼남(경상도·전라도·충청도)을 둘씩 나눠 육남이라고 함.

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4권. 339쪽. 비밀조칙 원문 전체가 실려 있음.

3) 이강년의 도체찰사 제수 밀칙

1907년 7월 11일¹⁾에 전 판서이자 장례원경이었던 심상훈이 광무황제의 비밀칙령을 가지고 와서 전달하니, 윤강이 글을 받들고 감격하여 눈물이 비 내리 듯하며, 여러 장병들을 불러 앞에 세우고 엎드려 읽으며 해설하여 의리로써 타이르니, 사졸들이 모두 기운을 내며 죽도록 싸우기를 원했다는 것과 심상훈이 비밀칙령을 받들고 온 배경을 기록하였다.

지난해(1906년-필자 주) 겨울에 공(이강년-필자 주)이 배양산에 들어가 군사들을 휴양시키고 있는데, 판서 심상훈이 친히 몸종을 데리고 초피(貂皮) 갑옷과 금침(衾枕)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며 말하기를,

“이 물건이 보잘것없지만, 장군의 겨울철 소용이 된다면 조금이나마 나라를 위하는 노고에 보답이 되겠습니다.”

하였다. 공이 사퇴하며 말하기를,

“대감께서 이 비천한 몸을 마다 않으시고 이렇게 후하게 물건을 주시니 극히 황감하오나, 군사들이 춥고 굶주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강년(康年) 혼자만이 이 물건을 사용한다면 천지신이 어찌 나를 벌주지 않겠습니까. 감히 사퇴합니다.”

하였다.

심공은 매우 감탄하여 곧 쌀과 포목을 실어 보내고 서울로 들어와서 임금께 그 사실을 아뢰니, 임금께서 가상히 여겨 곧 비밀칙령을 내렸던 것이다.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운강선생창의일록」,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권. 223쪽

칙령

아! 나의 죄가 크고 악이 충만하여 황천이 돌보지 않으시니, 이로 말미암아 강한 이웃이 틈을 엿보고 역적 신하가 권세를 농락하여 4천 년을 내린 종묘사직과 3천리 넓은 강토가 하루아침에 오랑캐 지역이 되었고다. 생각하면 나의 실낱같은 목숨이야 아까울 것이 없으나 종묘사직과 만백성을 생각하니 이것이 애통하도다.

선전관 이강년으로 도체찰사를 삼아 지방 칠로(七路)에 보내니 양가의 재주 있는 자제들로 각각 의병을 일으키게 하며, 소모장을 임명하되 인장과 병부(兵符)를 새겨서 쓰도록 하라. 만일 명을 좇지 않는 자가 있으면 관찰사와 수령들을 먼저 베고 파직하여 내쫓을 것이며, 오직 경기 진영의 군사는 나와 함께 사직에 순절할 것이다.

광무 11년 7월 일 어새(御璽)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23~224쪽

윤강으로 하여금 도체찰사로 제수한다는 밀칙은 『심남일실기』에 실려 있는 밀지의 형식과 내용이 유사하다. 그런데, 밀칙 전달 과정이 드러나지 않고, 밀지 내용만 기록된 『심남일실기』와 달리 밀칙 전달 과정과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에 그 개연성이 한층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 이 밀칙에 대하여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었다.

구완회는 「창의사실기」를 『국역 창의사실기』(2014)로 낸 바 있다. 그는 『영원한 의병장 윤강 이강년』(2015) 머리말에서 “「창의사실기」(필사본)를 『운강선생창의일록』(목판본)으로 개작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윤색한 흔적이 너무나 분명하다.”²⁾라고 하고, 본문 중에 “전시에 정승급 관료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운강선생창의일록해제」, 독립운동사자료집 1권. 209쪽

2) 구완회, 앞의 책. 4~5쪽

에게 부여하는 도체찰사의 지위를 관료 경력도 없는 이강년에게 내렸다는 것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¹⁾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박민영은 『의병전쟁의 선봉장 이강년』(2017)에서 “이강년 의진에서 항상 언급되는 것이 광무황제의 밀지 도착과 또 이와 관련된 직명 ‘도체찰사’ 부여 등과 같은 문제다. 밀지와 관련된 기록은 일제강점기에 박정수가 기록한 「창의사실기」에는 언급되지 않았고, 해방 후인 1948년 예천 용궁에서 간행된 목판본에 나온다. 그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밀지 관련 기록이 뒷날 첨기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²⁾라고 하였다.

구완회는 칙령 부분이 『운강선생창의일록』에 실린 것을 가리켜 윤색된 것이라고 하였지만, 박민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경향이 있지만, 다른 의진의 사례에 비추어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고 부언하였다.

운강이 순국하고 경술국치를 당한 지 6년째가 되던 해인 1916년 박정수(朴貞洙)가 운강의 창의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후 병석에 눕자 강순희(姜順熙)³⁾와 이화중(李和重)⁴⁾이 그 해 마무리한 것이 「창의사실기」인데, 원본은 일본 경찰에 압수당하고, 제천 박약재 기왓장 속에 감추었던 부분이 광복 직전에 발견되었다. 그리하여 운강의 아들과 화서학파 문인, 운강의 호좌의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운강의 시문을 수집하여 문집으로 엮은 것이 『운강선생유고』이다.

이 책은 3권 3책의 필사본으로 1책의 권1은 시·서·문·명·잡저로 구성되어 있다. 1책의 부록 권1에는 이정규가 쓴 행장이 수록되어 있다. 2책의 부록 권2는 강순희·이화중이 마무리한 「창의사실기」, 호좌의진에 참여했던 민순호가 정리한 「운강사실추록」을 수록하고 있다. 3책 부록 권3에는 제문과 만사가 수록되어 있다. 행장은 1939년 이정규가 작성하였다. 이 책은 광복 후 발견된 자료들을 보완, 정리하여 『운강선생창의일록』(1948)과 『운강선생문집』(1949)의 저본이 되었다.

1916년 「창의사실기」에 실리지 않은 광무황제의 비밀칙령이 『운강선생창의일록』에 실리게 된 상황과 그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첫째, 「창의사실기」를 정리한 시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16년 여름 운강의 묘에 모인 화서학파 문인과 운강의 동료들이 운강의 의병투쟁에 대하여 그 기록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운강이 의병투쟁 때 정미년 7월 이전에는 박정수가 문필을 담당하는 종사관으로 활약했고, 그 이후에는 강순희·이화중이 맡았는데, 이 자료들을 박정수가 정리하다가 그 해 병석에 눕게 되자 강순희·이화중이 마무리한 것이 「창의사실기」이다. 당시는 광무황제가 ‘이태왕’으로 덕수궁에 있을 때였다. 이인영, 심남일, 전해산 등이 일본 헌병의 신문에서 광무황제의 밀지를 받지 않았다고 했던 것처럼 광무황제께 누가 될 것을 염려했기에 「창의사실기」에 기록하지 못했을 개연성이다. 의병장 행적에 관한 책이나 문집이 대부분 광복 후에 간행되었기에 밀지에 대한 것을 기록할 수 있

1) 구완회, 앞의 책. 184쪽

2) 박민영, 앞의 책. 101쪽

3) 강순희는 『운강선생창의일록』 1908년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편집함. 7월 1일조에 “강순희가 오니 공은 문필에 관한 일을 그에게 맡기고,”라는 기사가 보임. 이것은 강순희가 운강의 의진에서 문필을 담당하는 종사관으로 참여하였다는 것임. 7월 30일 앞에 “진산 강순희 편집”이라고 한 것은 책 편집 때 강순희가 했다는 것임.

4) 『운강선생창의일록』 1908년 2월 14일(경오일) 기사 끝에 “진성(眞城) 이화중(李和重) 편집”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이화중이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었던 것이고, 심지어 광무황제가 사망한 후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최익현의 『면암집』(1931)에서도 의병 거의에 관련하여 밀지를 받았다는 언급이 없었던 것은 시대적 상황 때문이었거나 이를 비장(秘藏)했기에 밀지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본다.

둘째, 『운강선생창의일록』의 「지(識)」를 쓴 김회진(金晦鎭)은 “전반부는 박정수가 기록한 것인데, 사업을 마치지 못하고 문득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후반부를 강순희, 이화중이 뒤를 계속해서 이룬 것이다. 이 때에 황제 위를 선양하여 나라가 없고, 적은 창익한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잡기를 매우 급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창의사실기」 저술하는 일-필자 주)에 관한 문자가 더욱 숨겨서 감히 나오지 못하여, 태반이나 벌레와 쥐의 손상을 당하였으며, 없어진 것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운강의 둘째 아들 금재(競齋, 1888~1951)가 피나는 노력으로 의로운 자취를 찾아내었는데, 먼저 강순희·박정수 두 집에 간직한 것을 얻어 가지고, 이정규와 더불어 다시 사방으로 수집하고 널리 뽑아내어서 대략 차례를 만든 다음에, 김동진(金東鎭, 1867~1952) 선생을 찾아가서 고쳐 확정하기를 청하니, 선생이 그 중에서 번다한 것을 절감하고 잘못된 것을 정리하였다.”¹⁾고 하니, 「창의사실기」를 수정, 보완해야 했던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셋째, 김동진은 『운강선생창의일록』 「서문」에서 “그는 단신으로 원수 갚는 군사를 일으켜, 창을 베개 삼고 와신상담하면서 잠시도 편안할 겨를이 없었으며, 적과 싸워 승전도 매우 많았지만 패한 일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마침내는 비밀조서를 받게 되었는데, 그 열 줄의 조서는 모두 애통히 여기는 말씀뿐이었다.”²⁾라고 하여 본문 속에 나오는 도체찰사 밀칙과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넷째, 정재덕(鄭載德)이 『운강선생창의일록』을 편찬하는 도청(都廳) 소임을 맡았고, 한양리(韓良履, 1883~1946)·민순호(閔舜鎬, 1880~1966) 등 10여 명이 이 일에 참여했는데, 정재덕은 호좌의진의 교련관이었고, 한양리는 운강의 옥바라지를 했던 인물로 운강이 순국한 뒤 운강의 맏아들 금재와 함께 의병투쟁을 전개하다가 3년간 옥살이를 했고, 일제강점기에도 투옥됐던 인물이었으며, 민순호는 호좌의진에서 후군소모장 출신이었다. 특히 밀칙을 받들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호좌의진의 도선봉장 백남규(白南奎, 1884~1970)·권용일(權用侁, 1883~1971)은 각각 장임록 4번째와 7번째로 등장하는 주요인물이고, 당시 호좌의진에 참여했던 상당수가 생존해 있었으며, 『운강선생창의일록』과 『운강선생문집』 간행에 크게 기여했던 이규홍(李圭洪)은 운강의 옛 동지였으니, 허황된 내용을 담을 개연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

다섯째, 「운강선생창의일록해제」에는 광무황제의 밀칙을 7월 11일 받았다고 하였지만, 정작 책의 본문에는 7월 첫머리에 일자도 없이 수록되어 있다. 밀칙을 가지고 왔다는 심상훈은 며칠 뒤 54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하였다. “심상훈의 졸서단자(卒逝單子)가 갑자기 이르렀으니 더없이 슬프다.”는 융희황제의 조령이 8월 7일자이다. 특히 해제에 나온 7월 11일(양력 8월 19일)이라면 심상훈은 이미 숨진 뒤가 되니, 칙령을 가지고 올 수 없다.

그런데, 당시 황실과 대한제국 정부는 양력을 사용하고 있었기에 『승정원일기』를 제외한 모든 문서는 양력으로 되어 있다. 광무황제는 양력 7월 19일 퇴위되었기 때문에 ‘광무 11년 7월’이란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운강선생창의일록」,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권. 307쪽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10쪽

것은 음력이 될 수가 없다. 『운강선생창의일록』을 편집할 때 만약 허구의 칙령을 끼워 넣었다라면, 일자를 다른 사건과 맞춰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칙령이 양력 7월에 온 것이기에 음력 7월이 시작되기 직전에 둔 것은 칙령의 내용과 일자가 사실일 개연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따라서 「운강선생창의일록해제」에서 “정미년 7월 5일, 군사를 거느리고 제천에 들어가 사방에 격문을 보내고 7월 11일에는 임금으로부터 이강년을 도체찰사로 삼아 조국의 자주독립을 보전할 것을 간곡히 당부하는 밀칙을 받았다.”라고 하였으나 『운강선생창의일록』의 일자는 음력이고, 밀칙에 기재된 7월은 양력인데, 이를 간과하고 섞어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운강이 사직할 때 품계와 벼슬이 정3품 절충장군 선전관이었는데, “관료 경력도 없는 이강년”이라고 한 것은 오류이다.

4) 운강과 심상훈의 관계

운강은 1858년생으로 1880년 무과에 급제하여 1884년 갑신왜란 때 절충장군 행용양위(折衝將軍行龍驤衛) 부사과 선전관이었다. 절충장군은 정3품 당상관인데, 종6품이 맡는 용양위 부사과 선전관에 임명했기에 본인의 품계에 비해 낮은 직책으로 임명할 때 붙이는 ‘행(行)’이 있다. 선전관은 어가(御駕) 앞에서 훈도하는 무관으로 9품관부터 당상관까지 품계가 일정하지 않았다.

심상훈은 1854년생으로 광무황제보다 두 살 아래 이종사촌 동생이었다. 1874년에 문과 급제한 후 갑신왜란 때 경기관찰사로서 갑신오적을 꾸짖고 타일러서 국왕과 왕후를 위기에서 구출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을미왜란 직후 일제가 그들 앞잡이들을 내세워 왕후를 폐서인하려 하자 벼슬을 던지고 고향으로 갔던 인물이었다. 그는 전기의병 때부터 의병 진영을 오가며 ‘국수보복’을 꾀했고, 후기의병 때는 ‘국권회복’을 위해 애썼던 인물로 이조판서, 탁지부대신, 의정부참정, 장례원경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급사 당시에는 궁내부특진관으로 운강과는 오랜 친분이 있었다.

1895년 궁궐이 일본 군경과 자객, 일제앞잡이들에 짓밟히고, 왕후가 참살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운강은 심상훈을 찾아 거의할 것을 제의하자 자신이라도 궁궐에 있어야 종묘사직을 지킬 수 있다고 하고는 자기 아들 이섭(理燮)·장섭(璋燮)을 의암의 호좌의진에 인질로 맡기고 의병 후원을 하였기 때문에 호좌지역의 전·현직관료 및 유생이 대거 봉기할 수 있었고¹⁾, 아관파천 1주일 후 국왕은 일제앞잡이들을 처단했으니 의병을 해산하라 조령을 내렸는데도 의암이 호좌의진을 해산하지 않자 직접 찾아와서 의암에게 말하기를,

“의진의 사세를 생각해 보면, 조정이 (반역을) 의심해서 군사를 파견하여 공격할 것이 번하므로 내가 불가불 (내각에) 나가서 암암리에 주선해야겠고, 또 이미 나간 이상에는 저 무리들과 함께 바람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하지 않을 수도 없으니, 그렇게 하면 나는 동떨어져서 서로 통할 길이 없을 것인즉 선생과 내가 다 같이 친밀한 한 사람을 내세워서 길(대화의 창구)을 통하게 하라.”²⁾

1)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논총』 제65집, 「이세진·심상훈의 거의 기도」, 한국교회사연구소·명동성당, 『뫼텔주교일기』 I, 183~184쪽, 391쪽, 398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권, 427쪽에도 일부 확인됨.

2) 이정규, 「종의록」,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권, 45~46쪽. 괄호 속은 필자의 도움말.

하여, 의병이 관군에 의해 토벌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의병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특히 을사늑약 직전 심상훈이 의병장에 추대되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였다.

충주 방면에서 봉기한 의병이 전 참정 심상훈을 옹립하였다. 그런데, 이 의병의 세력이 커서 그 후 충주에서 6리(한국식 60리-필자 주) 정도 떨어진 청풍군에 이르러 충주를 습격할 기세를 보임에 따라 충주 재군 삼(森) 경부가 구원을 요청하자, 일본 임시대리공사 추원수일(萩原守一)이 일본 외무대신에게 차제 일본군으로 토벌시키도록 처리하기 바란다고 청혼하였다.

- 국사편찬위원회, 『고종시대사』 6집, 광무 9년 10월 10일

일제로부터 문경·청풍 의병을 급속히 진압할 것과 그 조치에 대하여 조회해 달라는 통감부의 지시를 받은 일제앞잡이 내각의 외부대신 박제순은 주한 일본 임시대리공사에게 보낸 조회문에서 ‘심상훈이 의병장에 추대된 바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한 외부대신 박제순이 조복합니다. 본 대신이 접수한 귀 제138호 조회에서 개진하기를, 접수된 문경 분견소의 헌병대가 보고한 보고서에 문경 부근에서 소위 의병이라는 자들이 회합한 자가 700명가량이나 되며, 어느 때에 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것이 문경의 상황이라 운운하였고, 또 접수한 충주 재군 경부 보고에서 말하기를, 충주에서 60리 떨어져 있는 곳에 소위 의병이라는 자들이 전 참정 심상훈 씨를 납치하여 갔다고 하는데, 듣기에 청풍군 부근의 현장에서 의병군에 추대된 바 있다 운운하였습니다.¹⁾

심상훈은 을사오적을 처단하려는 지사들을 도운 혐의로 경무청에 구금되기도 하였고,²⁾ 서상돈(徐相敦) 등이 국채보상운동을 벌일 때 광무황제도 단연을 실천하자, 심상훈은 한규설(韓圭謨) 등과 단연동맹을 결성하였고, 이에 관립학교, 연성학교, 시종무관부 등이 적극 참여하게 되어³⁾ 일제와 그들 앞잡이들은 그를 눈에 가시처럼 여겼다.

그는 광무황제의 비밀칙령을 받들고 윤강에게 전달한 후 며칠 뒤인 8월 7일 급사하고 말았다. 조정에서는 대광보국숭록대부 영돈녕원사로 추증하고, 시호를 ‘충숙(忠肅)’이라 하였는데, 이는 그의 죽음이 단순한 급사가 아님을 암시하는 것으로 본다.⁴⁾

2. 도체찰수 제수 이후 의병투쟁

1) 호좌의진을 이끌면서 40여 진의 도창의대장이 되다

윤강이 도체찰사 밀칙을 받았다(7월 11일)는 소문과 함께 광무황제의 퇴위(7월 19일)에 이어

1) 국사편찬위원회, 「문경·청풍 의병의 급속진압 및 동 조치 회시요구의 전조 조복」,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6권, 1905년 10월 15일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7권, 147~149쪽

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제10권, 632~635쪽

4) 『조선왕조실록』, 1907년 8월 7일, 8월 8일조 참조. 광무황제는 심상훈보다 8개월 전에 대마도에서 병사 순국한 최익현에게는 벼슬을 추증하거나 시호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4개월 전 제1차 헤이그특사로 파견되었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살되어 순국한 이용익에게는 ‘충숙’이란 시호를 내렸다. 융희황제는 심상훈에게 이용익과 똑 같은 시호를 내린 것으로 보아 그의 죽음이 ‘순국’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군대해산(8월 1일 ~ 8월 9일)이 있게 되자, 이에 반발하는 전·현직 관리, 유생, 농민, 상인, 포수 등이 의병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특히 강원·경북·충북 지방에는 수많은 의진이 형성되었다.

운강은 광무황제의 퇴위 소식에 통곡하고 아픈 몸을 추슬러 제천으로 나아가 의병투쟁에 한층 박차를 가하였다.

6월 14일(양력 7월 23일) 국가의 변고(7월 19일 광무황제의 퇴위-필자 주) 소식을 듣자, 통곡하며 죽음을 걸고 적을 치기로 다짐하고 병든 몸으로 제천으로 가서 윤기영(尹基榮)·이만원(李萬源) 및 원주진위대와 함께 일어났다.¹⁾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22쪽

운강은 인근 지역의 의진을 영월 주천(酒泉)에 모았다. 이때 강원·경원·충북 지역 16군에서 모여든 40여 의진의 여러 장수들은 운강을 도창의대장(都倡義大將)으로 추대하였으나, 끝내 사양하고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

며칠 뒤 운강이 제천 의림지로 나아가 영호정(映湖亭)에서 동료들과 술을 나눌 때 그들은 운강에게 창의대장에 오를 것을 간곡히 원했으나, 운강은 전기의병 때처럼 보다 덕망이 있는 자를 추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반드시 인격과 지위가 겸비된 자를 골라서 창의대장으로 추대해야 할 것이요”

하며, 사양하였다.

그런데, 8월 9일(음력 7월 1일) 전기의병 때부터 생사고락을 함께 하기로 하고 의형제를 맺은 김상태(金尙台)가 4개 군(郡) 지역으로부터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강권하기를,

“공이 만일 끝내 여러 사람들의 소망을 저버린다면 모든 것을 그만두고 돌아가겠다.”

하니, 운강이 부득이 허락하게 되었다.

운강은 여러 장병들의 군례를 받은 다음 김상태로 중군을 삼고, 백남규로 우선봉, 하한서(河漢瑞)로 좌선봉, 윤기영(尹基榮)으로 전군, 이중봉(李重鳳)으로 우군, 이용로(李容魯)로 좌군, 이세영(李世榮)으로 감군을 삼았고, 이만원(李萬源)은 전기의병 때 유인석 의진에 참여한 후 매양 운강과 함께 했던 그에게 자기 밑의 소임을 맡기기가 미안해서, 오직 군중의 대소사를 합심하여 의논하며 싸움을 독려하는 최고 지위로 대우했다.²⁾

운강이 도창의대장에 오른 기록에 대하여 구완회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이강년은 주천 강가에 단을 쌓고 대장 직에 올라 여러 장병들의 군례를 받았으니, 8월 19일(음력 7월 11일)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강년이 등단했다 하여 여러 의진을 두루 통제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한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오히려 의병장 사이에 불거진 불협화음이 만만치 않았다. 뒷날 고종의 밀지를 받아 도체찰사에 임명되고 8도 의병을 총괄하는 도창의대장이 되었다는 신화가 만들어졌지만, 정작 그는 ‘호좌의병장’을 자처했다.

- 구완회, 앞의 책, 57~58쪽

1) 원주진위대 민공호의 거의는 1907년 8월 5일(음력 6월 27일)이다. 주요 내용을 연역식으로 구성하던 옛 글의 특성 때문에 같이 묶였다.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운강선생창의일록」,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권, 225~226쪽

「운강선생창의일록해제」에서 밀지를 가지고 온 날이 7월 11일이라고 했는데, 구완회는 「운강선생창의일록해제」를 좇아 이날을 음력으로 환산하고, 이날 주천에서 도창의대장에 올랐다고 본 것이다. 『운강선생창의일록』에는 7월 1일(양력 8월 9일) 김상태의 강권에 못 이겨 도창의대장에 올랐다고 기록하고 있다. 운강은 도체찰사 제수와 달리 제천 의림지 영호정에서 인근 40여 의진의 도창의대장에 올랐는데, 구완회는 주천에서 “8도 의병을 총괄하는 도창의대장”에 올랐다고 파악하고 있다.

운강은 의진을 정비한 후 원주에서 거의한 민공호(閔肯鎬) 의진과 연계하여 의병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원주진위대 특무정교 민공호는 8월 5일, 원주진위대장 홍유형(洪裕馨)이 상경한 틈을 타서 대대장 대리 정위 김덕제(金德濟)와 함께 진위대 병사들을 이끌고 의병을 일으켰다. 의병들은 주민들과 합세하여 무기고를 부수고 1천6백여 정의 소총과 4만여 발의 탄환으로 무장했으니, 대단한 기세였다. 그들은 군청, 경찰서, 우편취급소, 일인 가옥 등을 파괴하고 원주읍을 완전 장악했다. 이 소식은 인근에 알려져 여주·충주·안동 등지의 군인들도 의병 대열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전국의 해산군인들이 의병투쟁을 벌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덕제와 민공호는 원주를 떠나 각각 평창·강릉 방면과 제천·여주·충주·홍천 방면으로 나아갔는데, 민공호는 주변의 의병과 군인들을 규합하여 막강한 의진을 형성하였다.

원(元) 한병(韓兵) 폭도의 거괴(巨魁:일본 군경이 대규모 의진의 의병장을 가리키는 말-필자 주) 민공호 및 오정묵(吳正默), 최순인(崔順仁:崔仁順의 오기-필자 주)이 인솔하는 폭도 8백 명은 목하(目下) 횡성군 청일면 동평리(銅坪里:원주로부터 5리¹⁾)에 둔집하여 민가에 들어가 미곡, 의류 등을 약탈, 폭행을 자행하고 있다.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8권. 93쪽

운강이 이끄는 호좌의진이 이미 제천을 점령하고 있을 때 민공호 의진이 제천으로 들어오니 두 의진은 연합하여 의병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을 알게 된 일제는 병력을 급파했지만 운강과 민공호가 이끄는 의병에게 패배하고 충주로 물러나고 말았으니, 이날이 8월 15일(음력 7월 7일)이었다.²⁾

일본군을 물리쳤다는 소식은 울분에 쌓였던 배달겨레를 고무하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크고 작은 의진이 곳곳에서 형성되어 제천으로 몰려들었다. 일본군은 제천전투에서의 패배에 따른 보복과 의병의 근거지를 없애기 위해 제천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으니,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었다.

8월 중순을 넘기자 강릉·원주·지평·충주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의병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니, 이에 놀란 일제는 47·50·51·52연대를 동원하여 강원·경기·충북 각지에 수비대를 설치하였고, 점차 대구 이남의 영·호남 전역에도 1·2·14연대를 동원하여 무자비한 살육전을 벌이게 되었다.³⁾

1) 우리나라 거리 단위로는 50리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24~225쪽

3) 이태룡, 앞의 책. 141~142쪽

운강은 이만원과 권용일 등으로 하여금 원주진위대 해산 때 배양산에 묻어 두었던 무기와 탄환을 가져 오게 하여 문경 모항령전투, 갈평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제천 싸리재와 죽령 등지에서 일본 군경·한국인 순검·헌병 보조원 등 2백여 명을 사로잡기도 하였다.

운강은 의병투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도총독장과 중군장만 붙박이로 했고, 그 외의 부장은 형편에 따라 교체하거나 필요에 따라 새로이 임명하여 부장 중심으로 소규모 의진을 형성하여 의병투쟁을 효율적으로 전개하였다. 호좌의진에서 주요 장임을 거쳤던 의병장이 김상태 등 40여 명에 이르고, 총독장 신숙(申肅) 외 13명의 참모부, 69명의 종사부, 95명의 좌종사부를 두었으니, 운강은 거대한 의진을 이끌었던 것이다.

2) 13도창의대진 호서창의대장으로 활약하다.

1907년 여름부터 해산군인이 합세하여 전국 각지에서 의병투쟁이 펼쳐졌으나 거의의 궁극적 목표인 일제를 몰아내는 데 한계가 있음을 자각한 관동의진의 의병장 이인영은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전국 의병이 연합으로 의병투쟁을 전개해야 함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관동의진에 참여한 의병은 2천여 명이 넘었는데, 그 근거지는 지평·횡성·원주의 중간 지점인 지평 삼산리(三山里:현 양평군 양동면 속리)였다. 그곳에 대규모의 의병이 모이는 것을 원주분견소 보좌관보 가노(狩野近造)가 경시총감 시게토시(丸山重俊)에게 보고하자 일제는 일본군 1개 대대를 급파하였다.¹⁾

그 해 11월 7일, 이인영이 이끈 관동의진은 삼산리 서쪽 구둔치에서 일본군을 급습, 기선을 제압하였으나 대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제압할 수 없어 일시 분산하여 의병투쟁의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인영은 산발적인 의병투쟁으로는 일본군에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전국 의병들에게 격문을 보내 13도창의대진을 구성하여 서울로 들어가서 일시에 일제를 몰아낼 것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이미 2개월 전에 서울 주재 각국 영사에게 우리 의병이 국제 공법상 교전 단체임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해외동포에게도 격문을 보내어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었다.

이인영의 호소에 따라 전국의 주요 의병장들은 의병을 이끌고 서울로 들어가서 일제를 몰아낼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동의진의 중군장 이은찬(李殷瓚)과 전기의병장 출신이자 전 의정부참찬 허위가 협의했는데, 두 사람은 전기의병 때 이기찬(李起燦) 의진에서 활약한 바 있었다. 협의 결과 13도창의대진을 통할하는 원수부를 설치하고, 각도의 의병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병력은 약 1만 명으로 추산하고, 그 중 3천 명은 해산군인으로 구성하여 서울로 들어가서 일제와 외교 담판을 벌이고자 하였다.

기려자(騎驢子) 송상도(宋相燾)는 운강이 북상 이전과 북상하여 서울진공 때의 상황, 그리고 13도 창의대진의 격전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8권, 93쪽

八月 入永春 移檄于伊藤博文 進攻寧越 拔倭站. 九月 宣諭員洪祐錫 率守備兵百餘而來. 康年使右先鋒白南奎 設伏 寺里峙 大破之 至丹陽 又與賊大戰. 於是 畿湖嶺諸賊并至 衆數千兵 共戰至十三日 乃力竭.

(1907년) 8월 영춘으로 들어가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격문을 보내고, 영월로 들어가서 왜의 병참을 쳤다. 9월 선유위원 홍우석(洪祐錫)이 수비대 병사 100여 명을 이끌고 오므로 이강년은 우선봉 백남규(白南奎)로 하여금 사리치(寺里峙:짜리재)에 매복하게 하여 대파하고 단양에 이르러 또 적과 대전을 치렀다. 이리하여 경기·호남·영남의 적들이 몰려들어 수천의 의병들이 13일 동안 싸우는 바람에 전력이 고갈되었다.(필자 역)

- 송상도, 「기려수필」, 『한국사료총서』 제2집. 123쪽

『운강선생창의일록』의 기록을 보면, 운강은 이인영의 구상에 동참하기로 하고, 음력 연말까지 경기도 양주로 집결하기 위해 의병을 이끌고 복상을 서둘렀다. 운강은 강원도 홍천에서 거의했던 화남(華南) 박장호(朴長浩) 의진과 연합하여 양주로 진입하는 과정에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면서 북상해야 했다. 특히 “수천의 의병들이 13일 동안 싸웠다”는 것은 양주 인근에 모여든 13도창의대진이 서울진공을 위해 13일 동안 격전을 치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1908년) 12월 1일(양력 1월 4일) 밤에 강을 건너다가 나루터를 잃었다. 삽교(插橋)에서 점심을 먹고 졸운(卒雲)에서 저녁을 먹은 다음, 인제강을 건너려 하였는데, 밤이 어두워 나루터를 찾지 못하고, 강가로 오르내리기를 얼마 동안 하다가 간신히 건넜다. 다시 산으로 6, 7리를 가서 다라항(多羅項)에 당도했다. 낭천(狼川 : 현 화천-필자 주) 간척리(看尺里)에 이르러 소를 잡아 군사들을 먹였다.

12월 3일 해 뜰 무렵에 급한 보고가 있어,

“적이 동구에 이르렀다.”

하므로, 군사들을 재촉하여 마을 뒤 송림 사이로 올라가니, 적이 먼저 사격하여 왔다. 우리 군사들이 산에 의지하여 싸우는데 적의 탄환이 화남(華南:박장호-필자 주)의 오른쪽 불기에 맞고, 또 공의 오른쪽 불기에도 맞았다. 공이 부대를 나누어 반격하게 하자, 좌선봉과 별포(別砲) 한병선(韓秉善)·임차손(林次孫)이 앞장서 나가며 힘써 싸우고, 양총을 가진 군사 수십 명이 일제히 둘러싸여 공격하니, 적이 탄환에 맞아 네 놈이 죽고 나머지는 모두 달아나 낭천읍으로 돌아갔다.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61쪽

운강은 화남과 함께 적탄에 부상을 입고서 서울진공작전에 참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폭설과 혹독한 추위로 인하여 식량과 탄약의 조달이 매우 어려웠다. 운강은 의병들을 분산시켜 원주·횡성·화천·인제 방면에서 서울로 향하게 하고, 핵심 인물들로 구성된 의진을 이끌고 양주로 향했다.

이에 대하여 구완회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당시의 상황을 보도한 신문에도 13도창의진에 참여한 의병장으로 ‘호서창의대장 이강년’을 들었다. 이 인영이 체포된 뒤 진술한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그의 진술에 따르면, 서울진공에 참여한 의병장은 다음과 같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호서창의대장’이란 칭호가 고유명사는 아니라는 점이다. 전국의 대표적인 의병대가 모두 참여한다는 뜻에서 그리 표현한 것인데, 이를 마치 총대장이 호서창의대장으로 임명하였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강년 부대의 공식 명칭은 어디까지나 ‘호좌의진’, ‘호좌창의진’이었다.

명칭이야 어떻든 이강년은 이인영이 주도하는 서울진공작전에 동참하기는 했다. 그러나 이 작전과 관

련하여 이강년이 취한 조치로 짐작되는 것은 1월 17일(음력 12월 14일)에 홍종선¹⁾을 시켜 서울에 격문을 보냈다는 기록 말고는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 구완회, 앞의 책. 139~140쪽

이 내용을 살펴보면, 13도창의대진 대장 이인영이 운강을 호서창의대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주장한 것이 이채롭다. 『운강선생창의일록』은 이름과는 달리 1907년 음력 11월과 12월은 기록이 없는 날이 더 많지만, 그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²⁾ 그러나 운강의 호좌의진이 서울진공을 위해 경기도 가평·영평 등지로 나아가면서 일본군과 수차례 싸운 내용도 보이고, 호서창의대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사유가 「이인영진술조서」에 드러나고 있다.

문 : 각 군의 호칭은 무엇인가?

답 : 전라도는 전라창의대장, 전라창의유진소라고 하고, 충청도는 호서창의대장, 경상도는 교남창의대장, 경기·황해도는 진동창의대장, 강원도는 관동창의대장, 평안도는 관서창의대장, 함경도는 관북창의대장이라 하며, 유진소의 칭호를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문 : 내가 명명하였는가?

답 : 각 진의 대장이 협의한 다음에 하였습니다.

- 국사편찬위원회, 「이인영진술조서」, 『통감부문서』 8권. 1909년 6월 30일

「이인영진술조서」 속에 “각 진의 대장이 협의한 다음에 하였다.”는 것은 각도에서 참여한 의진이 대장이 협의한 다음에 13도창의대진 대장이었던 이인영이 임명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구완회는 이색적인 주장을 하였다.

이강년을 언급할 때 그가 ‘도창의대장’인가, ‘호서창의대장’인가 하는 문제는 논쟁적이다. 이는 그가 전국의 의병을 지휘하라는 고종의 밀지를 받고 ‘도체찰사’의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운강선생창의일록』 때문이다.

- 구완회, 앞의 책. 184쪽

운강이 ‘도창의대장’에 올랐던 것은 3도 16군에서 모여든 40여 의진의 도창의대장으로 추대된 것이지, 전국 도창의대장이 아니었다. ‘호서창의대장’은 서울진공작전에 참여한 충청도 지방 의진에서 충청창의유진소라 하지 않고 호서창의유진소라 정하고, 그 대표되는 의병장을 호서창의대장이라고 한 것이며, 이에 추대된 인물이 운강이었다는 것이다.

8월(1907년 음력-필자 주) 그(이인영-필자 주)는 3진의 장으로 8도에 격문을 보내 병사를 소집하고 정부 백관의 죄악을 헤아려 통감 및 각국 총영사에게 글을 보내 일본이 전약(前約)을 어기는 행위가 있음을 호소하였음. 그러는 사이에 지평에 이르자 16진의 병사를 합하여 8,000여 명에 달하였는데 군사를 머물게 하고, 2개월 간 통감의 회답을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음. 이 동안 3차례의 접전하였음.

11월에 이르러 흥천, 춘천을 거쳐 양주에 이르자 이때 허위, 이강년이 와서 합하여 무릇 48진, 약 1만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운강선생창의일록」,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권. 263쪽에는 홍봉곡(洪鳳谷)으로 기록됨

2) 김희진(金晦鎭)은 『운강선생창의일록』의 「지(識)」에서 “태반이나 벌레와 쥐의 손상을 당하였으며, 없어진 것도 적지 않았다.”는 데 주목하고 싶다. 그리고 13도창의대진 대장 이인영이 서울진공 때의 기록을 남겼을 것인데,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알 길은 없으나 그 일부는 「이인영진술조서」에 나온다.

에 달하였음. 허위를 군사로, 이강년을 호서장으로, 이태영(李泰榮)을 진동장으로, 김준수(金俊洙)를 안무장(安撫將)으로, 연기우(延起羽)를 대대장으로 삼아 바야흐로 경성에 들어가려고 하여 약 30리 지점에 달하였음. 이 동안 전투가 38회에 달함.

- 국사편찬위원회, 『통감부문서』 8권. 1909년 6월 12일

이것은 이인영이 1909년 6월 7일 충북 황간에서 대전분견소장 쿠라토미(倉富和三郎) 중위가 이끄는 변장수색대에 의해 피체되어 신문을 받았는데, 대전분견소장이 이인영을 경성 헌병대본부로 이첩시킬 때의 문서 「적괴중의 거벽 이인영 체포시말 이인영의 공술」¹⁾ 일부이다.

“허위, 이강년이 와서 합하여 무릇 48진, 약 1만에 달하였음”이라는 것을 보면, 종전보다 32진이 불어났다는 것이니, 운강과 허위가 직접 이끈 의진 외에 많은 의진이 함께 참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 보니 운강이 이끈 호좌의진 이름으로 할 수 없고, ‘호서창의유진소’, ‘호서창의대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허위를 군사로, 이강년을 호서장으로, 이태영(李泰榮)²⁾을 진동장으로, 김준수(金俊洙)³⁾를 안무장으로, 연기우(延起羽)를 대대장으로 삼아 바야흐로 경성에 들어가려고 하여 약 30리 지점에 달하였음. 이 동안 전투가 38회에 달함”의 내용을 볼 때 운강은 호서창의대장으로서 당시 서울진공작전에 참여하여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하여 격전을 치른 중심인물이었다고 본다.⁴⁾

문 : 당시 경성 부근에 온 적이 없는가?

답 : 있습니다.

문 : 문(동대문-필자 주) 밖 20~30리 되는 곳에 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답 : 한리(韓里) 30리 되는 곳에 갔습니다.

문 : 무슨 용건이 있어서 왔는가?

답 : 대(隊)를 데리고 갔습니다. 인원은 약 2,000명이었습니다.

문 : 경성에 침입할 목적이었나?

답 : 정월을 기해 침입할 예정이었습니다.

- 국사편찬위원회, 「이인영진술조서」, 『통감부문서』 8권. 1909년 6월 30일

이인영이 이끈 13도창의대진은 “열은동 부근으로 진격하게 하여 일본군 개성수비대와 전투를 벌였고, 일본군이 동대문 밖에 속사포(기관총)를 설치했다.”라는 기록이 「황성신문」(1908.01.25)과 “일본군 북부 수비관구 사령관 오카자키(岡崎) 중장이 직접 이끄는 제51연대에 막혀 물러섰다.”는 일제의 『조선폭도토벌지』⁵⁾ 등에 나온다. 그리고 1908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근교에서 서울로 진격하려는 의진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기록이 수차례 나오고, 1907년 12월부

1) 원문은 「賊魁中ノ巨擘李麟榮逮捕始末附李麟榮ノ供述」이다.

2) 이태영(李泰榮) : 이인영의 아우 이은영(李殷榮, 1868~1921)으로 보인다.

3) 김준수(金俊洙) : 김수민(金秀敏, 1867~1909)의 이명 또는 가명이다. “그가 가장 존숭(尊崇)한 것은 이인영(李麟榮)으로 그는 이(李)로부터 ‘지방안무’라는 칭호를 받았다.”(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9권. 649~650쪽)

4) 오랫동안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여 귀가한 후 허위가 300명을 이끌고 동대문 밖까지 진출했다’는 것이 정설처럼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인영은 1월 28일(음력 12월 25일) 부음을 듣고 귀가하였다. 서울진공작전은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 1907년 겨울부터 이듬해 1월 28일까지 서울 인근에서 38차례 전투를 벌였던 것이다.

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3권. 727~728쪽

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에서 1백여 리 떨어진 경기도 지역에서 의병들이 일본군과 전투를 벌인 것이 수십 차례 나온다. 이 모든 것이 이인영이 1월 28일 귀가하면서 허위에게 각 의진에 통문을 내어 서울진공을 중지할 것을 선언하기 전의 일이었다.

송상도는 서울진공 때 이인영이 직접 300명을 이끌고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출하여 분전했으나 후퇴하였다고 기술하였는데, 이것마저 국역을 잘못하여 허위가 이끈 것처럼 알려져 있다.

會者萬餘人 於是 欲進軍入京 擊破統監府 繳消脅約 剋復國權. 先遣心服人 潛入京城 訪各國領事 細陳其由 以請其援. 軍師其整頓軍旅 準備其進發. 於是麟榮 令各道義旅 促一齊進軍 自率三百人 先至東門外三十里 各軍未至. 日兵先迫 相與奮戰 不可抵敵 乃退軍.

(서울진공을 위해) 모인 사람 1만여 명은 장차 서울로 진군하여 통감부를 격파하고 협약(脅約:을사늑약)을 격소(繳消:繳銷, 흔적을 없앴)하여 국권을 회복(恢復)하고자 하였다. (이인영은) 먼저 심복¹⁾으로 하여금 서울로 잠입시켜 각국 영사관을 방문하여 (의병을 일으킨) 사유를 진술하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군사(軍師: 허위)는 군려(軍旅:군대, 13도창의대진)를 정돈하여 준비한 후 진격하였다. 이에 이인영은 각도의 의려(義旅:의진)에 일제히 진군할 것을 재촉하고, 스스로 300인을 인솔하여 동대문 밖 30리에 이르렀으나 각 의진은 이르지 못하였다. 일본군이 먼저 공격하니 분전하였으나 적의 저항에 퇴군하였다.(필자 역)

- 송상도, 앞의 책, 127쪽

3) 서울진공작전 후 경기·강원 지역에 머무르다

운강은 의병들을 분산시켜 원주·횡성·화천·인제 방면으로부터 서울로 향하게 하고, 자신은 의진의 핵심 인물들만 이끌고 서울진공작전에 참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진공 중지 통문을 받기 하루 전인 1908년 1월 27일(음력 12월 24일) 서울진공작전 집결지였던 경기도 양주로부터 40여 리 떨어진 영평(포천)에 머무르고 있었다. 일자를 보면, 운강이 이끈 호좌의진이 13도창의대진의 하나로서 서울진공을 위해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격하는 전투를 치른 후의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운강선생창의일록』에는 1907년 음력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3~5일씩 빠진 날짜가 많아서 기록되지 않은 날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군량미로 “벼 120석을 쌀로 찢어다 바치라”고 한 점에서 의진의 규모가 상당히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월 24일(양력 1월 27일) 영평 동면을 갈 양으로 성덕령을 넘어서 논남기에 이르러 점심을 먹고, 도성령을 넘어 배일리에서 저녁을 먹었다. 나아가 백일평에 주둔하고, 판서 조동면(趙東冕)의 사음(舍音) 황금복·동장 심정섭을 불러 벼 120석을 쌀로 찢어다 바치게 하였다. 동민들이 돼지·술을 가지고 와서 대접하였다. 오후에 행군하여 영선동에 당도했다.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운강선생창의일록」,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권, 264쪽

1908년 1월 28일(음력 12월 25일) 이인영은 부친의 부음을 듣고 각 의진에 서울진공을 중지하

1) 이인영은 원주에서 관동창의대장의 이름으로 각국에 호소하는 격문을 초하여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주사로 있을 때 의 부하였던 전 감찰 김세영(金世榮)을 서울로 잠입시켜 격문을 등사케 한 후 서울 주재 각국 영사관에 전달 호소케 하였다.(이태룡, 『한국 의병사』(하), 145쪽)

라는 통문을 보내고, 후사를 군사장 허위에게 부탁한 후 문경으로 돌아가자, 결국 서울진공작전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고, 운강은 경기·강원도 지역에서 한겨울을 보내면서 일본군과 격전을 펼치게 되는데, 왜 본거지 충북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서 의병투쟁을 전개했을까?

1월 11일(양력 2월 12일) 척후장 조정희(趙正熙)를 보내어 곡운 등지로 가서 군량을 1백 말[斗] 가량 마련하게 하였다. 수밀리에서 급히 보고하기를,

“적이 본동에 와서 병참을 설치하려 한다.”

하므로, 좌선봉을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고소파 동구를 파수하게 하였다. 좌선봉이 적을 공격하려 하므로 공이 명령하여 굳게 지키며 움직이지 말게 하고, 용소동의 유치복(柳致福)을 보내어 적의 정세를 탐지하게 하였다.

영평 도팔리의 이길승(李吉承)이 쌀 54말을 운반하여 오고, 검단리에서 쌀 35말을 운반하여 왔다.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66쪽

운강은 서울진공이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의병으로 구성된 의진을 이끌면서 경기도 영평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구완회는 운강이 어떤 시도를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강년이 가평 일대에 주둔하면서 어떤 시도를 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강년에게 협조하던 곡운의 홍종선이 노구를 이끌고 철원으로 떠났던 날이 2월 12일(음력 1월 11일)이었고, 홍종선이 철원에서 성과 없이 돌아와 ‘시도하던 것이 허사가 되었음’을 알게 된 날이 2월 27일(음력 1월 26일)이다. 홍종선으로 하여금 시도하도록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이강년이 시도하려던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 구완회, 앞의 책, 145쪽

구완회는 「창의사실기」를 바탕으로 기술하였으나 『운강선생창의일록』에는 운강이 1월 17일(음력 12월 14일) 홍봉곡(洪鳳谷)으로 하여금 격문을 가지고 서울을 다녀오게 했고, 2월 27일(음력 1월 26일) “철원에서 돌아왔는데, 경영하던 것이 모두 와해되었다.”는 기록이 보이지만, “2월 12일(음력 1월 11일) ”곡운의 홍종선이 노구를 이끌고 철원으로 떠났다.”는 기록은 볼 수 없다.

1월 17일(양력 2월 18일) 박화남이 긴급한 군무를 띠고 길을 떠나 조종(朝宗) 각지로 향하였는데, 김진홍(金振弘)이 모시고 갔다. 이튿날 박화남이 역시 급보를 듣고 돌아와서 오무동에 주둔하였다. 박화남은 적의 정세를 알 수 없어서 조종으로 가는 것을 정지했었는데, 이제 와서야 내일 아침에 떠나려고 하였다.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67~268쪽

여기서 ‘조종’은 경기도 가평의 옛 지명인데, “긴급한 군무”를 띠고 가평을 향해 길을 떠났지만 왜적의 정세를 알 수 없어서 정지했다가 내일 아침에 떠날 것이라고 하였다. ‘긴급한 군무’는 무엇이었을까?

이 무렵 일제는 운강의 의진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통감부 장관대리 이시즈카(石塚)는 함경북도 성진이사청 부이사관 오에(大枝)에게 「남도 의병대장 이강년 북도 김학만과 총기구입 등 밀의」라는 이름으로 급히 전보를 쳤던 내용이 그것이다.

남도 의병대장 이강년이 북도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김학만(金學萬, 일찍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세력을 가졌던 자라고 함)¹⁾과 밀의하여 이(李)는 무산, 갑산 지방의 사냥꾼 및 회령, 북청 등의 해대(解隊) 병사를 선동하여, 김(金)은 그 비용을 담당하고 상해에서 총기를 구입해 블라디보스토크에 숨겨두고 이것을 급여하는 등 극력 의병의 세력을 창궐시키는 일에 노력하고 있다고 밀고한 자가 있음.

- 국사편찬위원회, 『통감부문서』 5권, 1908년 1월 28일

운강이 남하하지 않고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 머물렀던 이유가 일제의 전보 내용처럼 함경도 지역에서 의병투쟁을 하기 위함이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3월 하순 이후 함경남도 인근 지역까지 북상하였다.²⁾ 이와 유사한 사례로 주러 공사 이범진(李範晉)이 상주 출신 조운식(趙雲植)의 병장에게 사자를 보내 의병 350명과 무기 전부를 휴대하고 연해주로 이동할 것을 전해 듣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다 피체되어 순국하게 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³⁾에 나온다.

그런데, 3월 14일(음력 2월 12일) 의암이 아들과 김낙원(金洛元)으로 하여금 서신과 친히 지은 격문을 운강에게 전하게 하였다. 운강은 그 은혜와 의리에 감동하여 답서를 써서 두 사람과 함께 박화남 의진으로 가서 함께 사문(師門)의 의리를 말하고, 최준기(崔俊基)를 보내어 동행하여 돌아가게 하였는데, 그 답서에서 운강이 남하하지 않은 한 가지 이유가 담겨져 있다.

군사 100여 명을 뽑아 거느리고 동쪽으로 달려가 박화남과 함께 깃발을 나란히 한 채 평산(平山)으로 전진하여 삼가 좌우에서 지휘를 기대하며 양서(兩西)의 여러 인사들을 격려하여 일으켜 합쳐서 한 군데 의병의 근거지를 마련하여 오래 버틸 계책을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도적을 만나 몇 차례 교전하고 겨우 가평의 광악산에 이르러 장수와 군사가 모두 피곤하고 눈보라와 추위가 점점 심해지며, 또 서쪽의 군대가 떨치지 못함을 듣고, 잠시 이곳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⁴⁾

서울진공이 무위로 끝난 후 허위와 이은찬, 박정빈, 김수민, 연기우 등이 이끈 의진은 경기도 임진강 유역과 황해도 해주·평산 등지로 나아갔다. 운강은 전기의병 이후 관서와 해서 지방의 의암 문인과 교류를 공고히 했던 터였기에 황해도 평산으로 가서 근거지를 마련하여 오랫동안 의병투쟁을 모색하려고 경기·강원도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한 것이 의암에게 보낸 서신 속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그 후 운강은 서북으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인 인제, 강릉 등지로 나아갔으니, 김학만과 함께 또 다른 계책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서신 하나만으로 “박화남이 긴급한 군무를 띠고”라는 구절 속에 담긴 의문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구완회는 “이강년 부대의 북상을 서울진공작전의 맥락에서만 볼 수는 없다. 이강년은 그때까지 소백산 일대에서 벌였던 투쟁이 한계에 부딪히자 겨울을 무사히 견디면서 재기할 기회를 노리고자 북상하기로 마음먹었고, 서울진공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었다.”⁵⁾라고 하였다.

1) 김학만 : 1907년 5월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 계동학교 등 교장, 1908년 1월경에는 함북에서 이강년 의진에 재정을 지원함. 1910~1914년 한인거류민회 회장, 유인석·이상설·이범운 등 6인이 모여 성명회 조직, 권업회 총재, 대한독립선언서(이른바 戊午獨立宣言書)에 서명했던 민족지도자. 2012년 공적에 비해 련격히 낮은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2) 김학만의 공훈록에는 이강년 의진에 재정 지원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3)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권. 535쪽

4) 구완회, 앞의 책. 143쪽

5) 구완회, 앞의 책. 146쪽

운강이 이끈 의진은 1907년 여름 민공호 등의 의진과 연합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고, 늦가을부터 그 해 겨울까지 서울진공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북상하는 과정에서 수십 차례 격전을 벌이면서 다수의 의병이 살상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겨울을 나기 위한 북상이었다고 보는 것은 운강이 호서창의대장으로서 서울진공에 나서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출했다는 『통감부문서』 8권의 내용과 배치된다.

송상도는 「기려수필」에서 운강의 서울진공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였다.

大喪其師 與左先鋒河漢紹 率殘兵 退避加平之鑛岳山中. 又賊兵至 與戰大破之 軍勢復振 戊申(隆熙二年) 二月.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자, (이강년은) 좌선봉 하한소(河漢紹)¹⁾와 더불어 잔병들을 이끌고 가평의 광악산 속으로 물러났다. 다시 적병들이 오므로 전투를 벌여 대파하여 군세가 다시 떨치게 되었으니 1908년 2월이었다.(필자 역)

- 송상도, 앞의 책. 123~124쪽

4) 남하하여 격전을 벌이다

1908년 3월로 접어들자 편강렬(片康烈)이 의병을 이끌고 오고, 박내병(朴來秉)이 참여하겠다는 소식에 의진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박화남 의진이 합세하여 의병투쟁의 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방민들이 호응이 좋아 군수품과 군량미를 많이 가져왔다.

3월 19일(음력 2월 17일) 새벽 가평 관청리(官廳里)에서 수백 명의 일본군과 격전을 치러 100여 명을 잡고 많은 군수품을 노획했는데, 사흘 뒤 이른 아침에 대규모 일본군이 습격해 왔다.

날이 아직 밝지 않았는데 적의 총성이 뇌성처럼 울리며 남쪽에서 달려 들어오니, 온 군중이 나가 싸우게 되었는데, 문득 진 뒤에서 적이 산으로 쳐들어오므로 군사를 나누어 힘껏 싸웠다.

적양이 되어서는 우리 편 군사들의 기갈이 너무 심하여 더 싸울 용기가 없었고, 적도 두려워서 감히 나오지 못하였다. 새벽에 적은 물러가고 우리 군사들도 모두 본진으로 돌아왔는데, 공만이 보이지 않으므로 군중이 크게 놀랐다.

이튿날 날이 썰 무렵에 여러 장수와 여러 종사들이 울면서 공을 찾았다.

우리 군사들이 다 돌아왔는데 공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니, 여러 장병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방으로 찾았다. 종사 강병수(姜炳秀)와 별포 이상옥(李尙玉)이 통곡하면서 말하기를

“공이 반드시 탄환에 맞았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지성으로 찾았다. 과연 공을 절벽 아래서 만났는데, 의관엔 서리가 덮이고 수염에 얼음이 달렸지만 신색(神色)이 평시와 다름없었다. 그래서 강·이 두 사람이 부축하여 돌아왔다. 우리 편 군사는 하나도 부상한 사람이 없는데 적의 시체는 골짜기를 메워서 그 수효를 알 수 없었다.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73쪽

일본군의 공격이 그치지 않은 가운데, 4월 2일(음력 3월 2일) 박화남이 병이 생겨 돌아간 후 운강은 의진을 이끌고 행군하여 10일에는 백담사에 이르렀을 때 우군선봉 최동백(崔東白)이 수십 명의 의병을 모집해 왔기로 좌익장을 임명하고, 군중에 명령하여 교련을 시행하게 하였다.

1) 하한소(河漢紹) : 하한서(河漢瑞)의 이명이다.

4월 12일 박화남 의진의 선봉 이춘화(李春和)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막하(幕下)에 의지하기를 원하므로 우익장을 삼고 나아가는데, 이튿날 새벽에 파수병이 3번이나 급한 정세를 보고하였다.

“5백여 명의 적이 북쪽에서 온다.”

의진의 의병들이 모두 나가 좌우로 독려하며 반날을 격전하니, 적이 크게 무너지므로 추격하여 무찔렀는데, 적의 죽은 자가 수백여 명이며, 의진의 사상자도 수십여 명이었다. 이날 간성 신흥사로 옮겨 군사들을 교련시키고, 다음날 오세암으로 옮겨 주둔한 후 흥천으로 나와 일본군과 소규모 전투를 벌이면서 점차 남쪽으로 내려와서 마침내 경북지역에 다다랐다.

운강은 서울진공 때 분산했던 부장들의 의진이 점차 합세하고, 강원과 경북 등지에서 의병을 이끌던 성익현(成益鉉) 의진과 연합하게 되자, 봉화 내성을 점령하여 진지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여기저기를 지나 상동 운기리에 주둔하고 백남규·권용일을 만났다. 전번 영춘싸움에서 패한 다음, 공은 백남규를 호남창의장(湖南倡義將)¹⁾으로 임명하여 호·영 지방에서 의병을 소모하게 하고, 공은 호좌로 향하여 양평에까지 이르렀는데, 이 지방은 서울과의 거리가 멀지 않아 서울의 적이 밤낮으로 침노해 와서 소란을 피우므로 외로운 군사로는 오래 머무를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호·영 지방을 향해 가는데, 백(白)·권(權) 두 장수가 군사 4천여 명을 모집해 가지고 서벽(西壁)에 주둔해 있다가, 공이 상동에 왔다는 말을 듣고 정예병을 거느리고 와 뵈므로 서로 손을 잡고 반가워하며 서벽으로 가서 머물렀다.

안동 서벽²⁾에 머물렀다가 적 수백을 잡았다. 삼척의병장 성익현이 부하 병력을 거느리고 와서 불이므로 공이 골짜기 어귀를 지키게 하였다. 문득 보고하기를

“대구의 적이 쳐들어온다.”

하므로, 공이 삼척진의 선봉장 김상인(金相寅)·박흥록(朴興錄)으로 하여금 뒤에 있어 후원하게 하고, 도선봉 백남규, 선봉 권용일, 우군장 변학기로 하여금 좁은 목에 매복하게 한 다음, 도총독 이만원과 함께 3백 명을 거느리고 직접 중군이 되어 세 길로 나뉘어서 대기하였다. 적이 과연 쳐들어오므로 적을 포위하고 사격하여 20여 명을 목베었다.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78쪽

이때의 상황을 일제의 비밀기록인 『폭도에 관한 편책』에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5월 17일 오전 4시 20분, 고갯마루에서 동쪽으로 약 2,500미터를 내려왔을 때, 약 400미터 동쪽 좌전방에서 백·흑의의 적 4, 50명이 있음을 보는 동시에 우리 일행을 향해 사격을 개시하였다. …

정보에서 얻은 바와 같이 약 1,000명이라고 한 것은 과언이 아닐 것으로 믿고 더 이상 대적하는 것은 불이익함을 인정하였다. 그래서 덕산동으로 되돌아와서 시환 오장의 풍기대와 순흥주재소원은 그곳에서 풍기와 순흥으로 돌아가게 하고 영천으로부터의 출장자는 오록동을 경유하여 급행, 오전 2시 영천에 귀착하였다.

이 정찰의 결과 우세한 약 1천의 적은 서벽리 일대 지구에 있으면서 얼마 안 있어 내성·영천·순흥을 습격하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곧 영천수비대장에게 통보하여 이에 대한 계획을 요구하는 동시에 밀정을 활용하여 경계에 크게 힘쓰고 또 대장에게 급히 응원 요청을 요구하였다.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11권, 72~73쪽

연합의진의 규모가 과장된 것이라고 믿고 정찰 및 진압에 나섰던 일본 군경이 복병을 만나 후퇴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인데, “약 1,000명이라고 한 것은 과언이 아닐 것으로 믿고 더 이상 대

1) 호남(湖南) : 제천 의림지(義林池)를 기준으로 남쪽 지역을 말함.

2) 예전에는 안동부에 속했던 지역이다. 현 봉화군 춘향면 속리이다.

적하는 것은 불이익함을 인정”하고 급히 후퇴하여 영천으로 돌아가서 영천수비대 응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7일 영천경찰분서 부내 봉화군 내성면에 폭도가 무릇 1,500명이 나타나 교전했으나 병사의 수가 적고, 탄약이 결핍하였으므로 일시 철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다시 공격할 작전 계획에 대해 지극히 급한 응원이 있기를 바란다는 청구에 의해 예천순사주재소 순사 노산의영(櫨山義英) 외 2명은 오후 11시 그곳으로 출발하여 토벌 원조의 길에 올라 밤을 새워 다음날 영천 읍내에 도착하였다.

그곳 수비대장과 경찰분서원에게 폭도의 정황을 듣건대, 폭도는 그 수가 무릇 1천7, 8백 명으로 오늘 아침부터 봉화군 내성면 순사주재소와 그곳 헌병분견소를 포위 공격중인 모양이다.

그런데, 그 통보를 받은 채 이곳에서 응원을 파견할 여유가 없고 연락이 끊겨서 상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적세는 심히 창궐하다.

-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01쪽

5월 18일의 내성전투를 기록한 일제 비밀문서엔 ‘의병의 수가 1천7, 8백 명이라고 했고, 의병들이 봉화 내성순사주재소와 헌병분견소를 포위 공격중인 것 같고 의병이 창궐하다’고 한 기록에서 일본 군경의 당혹감과 긴박감이 묻어난다.

1908년 5월에 있었던 봉화지역 의병투쟁은 5월 7일 재산전투, 16~17일 서벽전투, 17~18일 내성전투였다. 이들 전투는 윤강의 호좌의진 3개 부대와 성익현의 관동의진 4개 부대가 일본군 제47연대장 나마타메 신(生田目 新) 대좌가 지휘하는 봉화·상주·안동·영천·예천 등지의 일본 군경 ‘합동토벌대’와 싸웠던 대규모 전투로 한말 후기 의병투쟁에서 가장 큰 규모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일본 군경과 싸워 승리한 전투로서 한말 의병사에 길이 빛나는 것이었다.

IV. 운강의 피체와 순국 과정

1. 운강의 피체

운강 의진의 각 부대는 10여 일 동안 봉화지역에서 일본군과 신나는 전투를 벌인 후 다시 부장들이 이끌고 분산되었다. 대규모 의진을 계속 유지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분산한 것이다. 운강은 6월 21일(음력 5월 23일) 제천 오미리(五美里)에 머무르며 적을 유인하여 들이쳤고, 이어 배양산, 사자산을 거쳐 주천에 이르렀다. 영월 무동곡(舞童谷)을 지나 영춘 석교(石橋)에 당도하여 유숙하니, 이날이 6월 30일이었다.

7월 2일(음력 6월 4일) 일본군이 줄기차게 운강의 뒤를 추적하여 영월에서 청풍으로 와서 나룻배를 끊어 놓았기 때문에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영춘의 산길을 경유하여 능강동(綾江洞)으로 향하려 하다가 소금장수의 배를 만나 겨우 건너서 까치성[鵲城]에 주둔하였다. 마침 장맛비가 내리는데 적이 갑자기 들이닥치니 운강은 힘써 반나절 동안 싸우다가 적탄이 왼쪽 복사뼈에 맞아서 피체되었다. 이때 도선봉 하한서 및 의병 7명이 전사하였다.¹⁾

운강은 제천수비대를 거쳐 충주수비대에서 신문을 받았다.

어제 보고한 비괴(匪魁:비도의 우두머리라고 했지만 의병장을 뜻함-필자 주) 이강년을 어제 저녁 이곳 수비대로 호송해 왔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비대에서 신문하였으므로 본직도 배석하였다. 이(李)는 오른쪽 족종부(足踵部:발꿈치-필자 주)에 부상을 당하고 있었다.

수비대장이 먼저 이(李)에게 말하기를,

“너도 한 사람의 위인으로 듣고 있었다. 이제 잡힌 이상 신문에 대해 어떤 일이든지 숨김없이 진술하라!”

라고 하자, 이(李)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나는 38세 때부터 의병이 되어 국가를 위해 행동하여 지금 51세이니, 13년간 거의 시종 국가를 위해 신력(身力)을 다하다가 이제 불행히도 사로잡힌 몸이 되었으니, 후사는 이로써 희망이 끝났다. 무엇이든지 신문하라! 어찌 마음속에 둘 것이 있겠는가?”

수비대장이 말하기를,

“너는 폭도(暴徒:일본 군경이 의병을 일컫던 말-필자 주)로서 행동하였다. 이는 국가를 위해서라고 말하나, 매우 세상 대세를 달관하지 못한 미혹함과 그릇된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인정하는데, 어찌 생각하는가?”

이(李)는 이에 대해 일찍이 민비(閔妃)의 횡사(橫死)에서부터 황제의 양위 등의 일에 이르기까지 거듭 일러 친절히 설명하기 시작하여 그런 까닭에 의거를 일으킨 이유를 진술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일은 이미 누누이 공개한 바로서 지금 새삼 들을 필요가 없는 고로 다른 신문으로 옮기려 하는데, 이(李)가 말하기를,

“나는 의병의 대장으로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내가 잡혔다고 하면, 부하들이 크게 낙담할 것이다. 그러나 하는 수 없다. 이에 바라건대, 일본국이 한국 정치에 관여하는 진의를 들을 수 있다면, 진실로 다행이겠다.”

“그 뜻은 너를 여기서 수원을 거쳐 경성으로 호송할 것이니, 그곳에 이르거든 일·한의 대관에게 자세

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81쪽. 박민영은 앞의 책 213쪽에서 운강이 1908년 5월 피체되었다고 하였다.

히 설명해 줄 것을 청하라. 나도 너의 희망하는 것을 보고해 둘 것이다.”

그리고 수비대장은 이(李)의 그 동안의 행동과 부하의 배치 등의 일을 신문해도 이를 감추고 진의를 말하지 않는 것 같았다.

-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373 ~ 374쪽

2. 운강의 순국 과정

운강은 일본군 제천수비대와 충주수비대를 거쳐 서울에 도착하여 일본군 사령부에 구금되었다가 7월 8일(음력 6월 10일) 평리원¹⁾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평리원 판사 박제선(朴齊璿)²⁾이 묻기를

“어찌하여 의병을 하였느냐?”

하니, 운강이 말하기를,

“너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어찌 의병을 모르느냐? 나는 왕실의 후손으로 국가가 위급한 때를 당하여 차마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의병을 일으켜 적을 토벌하다가 불행히 잡힌 몸이 되었으니 빨리 죽여주기를 바란다. 선비에게는 죽음을 줄지언정 욕을 보여서는 안 되는 법이다.”

하였다. 박제선이 말하기를

“국가의 세금을 빼앗는 것이 의병인가?”

하자, 운강이 말하기를

“임금의 마음을 받들어 국가의 어려운 일에 앞장서서 나라를 위하여 공금을 사용한 것이 역적이냐, 원수인 적의 세력에 의지하여 임금을 협박하며 적을 섬기면서 국가의 녹을 먹는 것이 역적이냐? 너도 조선 사람인데 어찌 거의한 이유를 모른단 말이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수치스럽다.”

하며, 의병을 일으킨 이유를 글로 썼다.

‘의병을 일으켜 왜놈들을 섬멸하고, 5적과 7적을 죽여 국가에 보답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 후 운강은 종로감옥이라고 일컬었던 평리원 관할 감옥에서 서대문에 새로 지은 경성감옥으로 이감되었고, 9월 22일 경성공소원 형사부에서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 모리시마(森島彌四郎), 판사 유키(結城朝陽)·이면우(李冕宇)는 운강에게 내란죄를 적용하여 교수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운강은 큰아들 승재(承宰)와 사촌동생 강수(康壽), 동지들에게 이별하는 유서를 써 간수에게 맡겼다.

1) 평리원은 1907년 12월 23일 「재판소 구성법」이 개정되고, 19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경성공소원과 대심원으로 되는 개편되는 바람에 이강년은 처음에 평리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그 이름만 경성공소원이 된 것이다. 그 후 경성공소원은 공소를 담당하는 법원으로 오늘날 고등법원이 되었다. 구완회는 앞의 책 174쪽에서 “일본군 사령부에서 취조 받은 이강년은 9월 1일에 경성지방법판소로 옮겨졌다.” 라고 하였고, 박민영은 앞의 책 197쪽에서 “이강년은 일제 헌병대에서 신문을 받은 뒤 1908년 9월 1일 경성지방법판소로 옮겨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였다. 이강년은 경성공소원이 1심이자 마지막 법원이었다.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83쪽에는 평리원 원장으로 기록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이른바 평리원 원장이라고 일컫기도 했던 당시 평리원 재판장은 홍종억(洪鍾億)이었다. 박제선(朴齊璿)으로 되어 있어 바로잡았다.

승재가 급보를 듣고 밤을 새워 서울로 올라와서 접견을 금지하는 것을 뿌리치고 들어가서 보니, 윤강이 말하기를,

“내가 고심 노력하여 토벌한 지 13년에 원수의 적을 섬멸하지 못하고 도리어 살해를 당하게 되었으니 천운을 어찌하라! 너는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 집안일에 대한 것은 대략 유서에 있으니 다시 말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살리려고 적당(賊黨)에게 애걸한다면 이것은 자식이 아니니 아예 하지마라.”

하였다.

윤강이 남긴 유서는 ‘장례를 예장으로 치르지 말 것과 효령대군 묘소 구역에 죄수 때 입은 복장 그대로 하라’는 것이었다.

왕사(王事)에 죽는 것이 나의 소원이니 어찌 한을 하라마는 지사(志事)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힘이 있더라도 예제(禮制)를 갖추지 말 것이며, 집은 가난하고 길은 멀어서 고산(故山)에 반장(返葬)함이 어려우니 선조인 대군(大君:효령대군) 묘소 국내(局內)에 죄수 때 입던 옷 이대로 3일 만에 박장(薄葬)하라.

윤강은 상고를 하지 않고 순국하는 소회를 시로 남겼다.

한평생 이 목숨 아껴본 바 없거늘
죽음을 앞둔 지금 삶을 어찌 구하라마는
왜적을 쳐부술 길 다시 찾기 어렵구나.
이 몸 비록 간다한들 얼마저 사라질까?

10월 8일 일제앞잡이 내각은 윤강에 대한 재판 결과를 융희황제께 상주(上奏)하여 재가를 받기에 이르렀다.

내란죄인(內亂罪人) 이강년을 교수형에 처하였다. 법부에서 상주하였기 때문이다.¹⁾

1908년 10월 13일(음력 9월 19일) 10시, 일제 관헌은 교수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순검을 시켜 옥중의 윤강을 불러내게 하였다. 순검이 옥문을 열고 차마 말을 못하며 묵묵히 한참을 서 있으니, 윤강이 말하기를

“나더러 나가자는 것이냐?”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윤강이 말하기를,

“오늘 내가 죽는 모양이다.”

하고, 옥문을 나가 천천히 걸으면서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형을 집행할 때 일본인 승려가 재를 올리려 하니 윤강이 꾸짖어 물리쳤다. 경성감옥 전옥(典獄) 카미오(神尾虎之助)가 말

1) 『조선왕조실록』, 1908년 10월 8일

하기를,

“공이 술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 잔 마시려는가?”

하자, 운강이 말하기를,

“설령 내가 술을 좋아한들 어찌 네 술을 마시겠느냐? 빨리 나를 죽여라.”

하고, 크게 외쳐 말하기를,

“우리나라 2천만 동포가 장차 차례로 나처럼 죽게 될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으랴!”

하였다.

마침내 일제 관헌이 어깨를 결박하고 목을 매달았는데, 바지가 허리춤 아래로 내려가니 운강이 결박된 손으로 잡아서 벗겨지지 않았다. 운강은 형 집행 14분 만에 별세하고 말았다.¹⁾

운강의 아들 승재와 금재가 흉보를 듣고 옥문을 차고 들어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여 말하기를,

“왜적이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를 죽였느냐? 너희 놈들이 우리 임금님을 위협하여 우리 강토를 빼앗고 우리 겨레를 못살게 하므로, 우리 아버지가 의병을 일으켜서 너희를 섬멸하려 한 것인데, 너희가 감히 우리 아버지를 죽였느냐?”

하니, 경성감옥 전옥은 경찰로 하여금 두 아들을 옥에 가두었다가 이튿날 풀어주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의사요, 아들은 효자라!”

라고, 칭송하였다.²⁾

운강이 경성감옥³⁾에서 순국했다는 소식이 널리 전해지자 뜻있는 선비는 물론, 관리들조차 붓을 던졌고, 민중들은 일터에서 일손을 놓고 목 놓아 울었다. 일제 관헌의 삼엄한 경계를 무릅쓰고 원근에서 모여든 수많은 조객들의 애도 속에 장례를 치렀는데, 조객들은 먼 길을 마다않고 운구 행렬을 뒤따랐다. 운강의 시신은 그의 유언에 따라 과천(현 서울 서초구 방배동) 태종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묘 아래에 안장되었다. 그 후 전국의 유림들에 의해 제천으로 이장하였는데, 일제가 의도적으로 운강의 묘 위쪽으로 한길을 내어 다시 경북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로 이장하였다.

1) 이른바 '경성감옥 사형수 1호'는 왕산 허위로 알려져 있으나 왕산은 1908년 9월 18일 경성공소원에서 교수형을 받고, 상고하여 10월 3일 대심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었으며, 10월 13일 융희황제의 재가에 의해 10월 21일 교수형이 집행되었기에 운강보다 8일 뒤에 순국하였다.

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81~285쪽 정리.

3) 구완회는 앞의 책 175쪽에서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라고 하였다. 경성감옥은 정식 준공일이 1908년 10월 21일이지만, 그해 8월 1일부터 종로감옥(실명 ‘종로전옥서’) 죄수 일부를 이감하였고, 1912년 9월 3일부터 ‘서대문감옥’이라 하였으며, 1923년 6월 1일부터 ‘서대문형무소’라고 명명하였다.

V. 마무리

뒤바보¹⁾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에 「의병전」을 연재하면서 운강의 삶과 의병투쟁에 관한 글을 실었는데, 비록 짧은 글이지만 주요 행적이 모두 담겨 있다.

이강년은 일찍이 민후(閔后) 살해한 그때에 유인석과 호상간에 결모거의(決謨擧義)한 일이 유(有)하였고, 또 5조약의 늑결(勒結)됨을 제하여 다시 용복(戎服)을 피(披)하고 호서창의대장의 기를 거(擧)하여 총대장이인영의 지휘 하에서 경성 동대문의 교전이 유(有)하였다. 그리고 이인영, 허위 등 제 장군이 차제 피금(被擒)되었으나 그 의기가 일호(一毫) 좌절함이 없이 의려(義旅)를 대연합하여 문경, 영춘, 각처에서 수십 차례의 대소전이 유하여 그동안 승첩도 많이 하였으나 소지(素志)를 경성(竟成)치 못하고 적수(敵手)의 형을 수(受)하였다.²⁾

필자는 『독립운동사』 1권과 『운강선생창의일록』 등이 수록된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권, 『기려수필』, 『주한일본공사관기록』과 『통감부문서』, 일제의 『폭도에 관한 편책』을 번역한 『한국독립운동사』, 그리고 최근 출판된 운강 이강년 평전을 중심으로 운강이 도체찰사로 제수되기 전후의 의병투쟁 및 순국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운강의 거의

운강은 을사늑약 이듬해인 1906년 의병을 모아 그 해 겨울 배양산에서 훈련을 시켰고, 1907년 봄에 여러 곳의 동지를 규합하던 중, 5월 11일(음력 3월 29일) 관군·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전투를 벌였으니, 거의의 시작은 1906년 겨울 이전이었다고 본다.

2. 도체찰사 제수와 13도창의대진 참여

1) 도체찰사 제수

운강은 1907년 7월 11일(음력 6월 2일) 이조판서, 의정부참정, 궁내부대신 등을 역임하고 당시 경리원경 육군부장(陸軍副將) 심상훈으로부터 “선전관 이강년을 도체찰사로 삼는다.”는 비밀칙령을 받았고, 8월 9일(음력 7월 1일) 3도(강원·경북·충북) 16군 지역의 40여 진의 도창의대장에 올랐으며, 이어 8월 15일(음력 7월 7일) 제천에서 민공호 의진과 연합하여 일본군을 대파하였다.

1) 뒤바보 : 본명은 계봉우(桂奉瑠, 1880~1959)이다. 1908년 신민회 참여 후 북간도로 망명하여 이동휘와 함께 광복활동을 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북간도 대표로서 국무위원을 지냈으며, 연해주에서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 후 사망하였다.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됨.

2) 뒤바보, 「의병전」, 『의병전쟁연구』(상). 55~56쪽 재인용. 한글맞춤법에 맞게 몇 군데 고쳤다.

2) 13도창의대진 호서창의대장으로서의 활약

운강은 호좌의진을 이끌고 늦가을부터 그 해 겨울까지 서울진공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복상하는 과정에서 수십 차례 격전을 벌이면서 경기도 양주 방면으로 나아가 13도창의대진 호서창의대장으로 활약한 사실이 「이인영진술조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에 앞서 대전분견소장 쿠라토미 중위가 경성 헌병대본부에 이인영을 이첩시키기 전에 조사한 것은 「賊魁中ノ巨擘李麟榮逮捕始末附李麟榮ノ供述」로 모두 『통감부문서』 8권에 실려 있다.

이 공술서에서 운강은 13도창의대진의 호서창의대장으로서 이인영, 허위 등과 더불어 경성(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하면서 전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인영이 38차례 전투를 벌였다는 것은 13도창의대진이 서울진공을 하면서 본인이 싸운 횟수라기보다 13도창의대진 전체가 싸운 횟수가 아닌가 한다. 이 문서가 아닌 「이인영진술조서」에 나온 내용에는 ‘이인영이 직접 2천 명을 이끌고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기려수필』에서 13도창의대진이 서울진공 때 13일 동안 격전을 치렀다고 한 것에 주목한다.

3. 피체 및 순국 과정

운강은 1908년 7월 2일(음력 6월 4일) 작성산 기슭에서 체천수비대와 격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피체되어 제천수비대, 충주수비대를 거쳐 일본군 사령부로 이송되었다.

운강은 그곳에서 신문을 받고 평리원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던 중, 평리원이 1907년 12월 23일 「재판소구성법」이 개정되어 19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성공소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평리원 관할 종로감옥에서 아직 준공식도 하지 않은 경성감옥으로 이감되었는데, 그해 9월 22일 경성공소원 형사부 재판장 모리시마(森島彌四郎), 판사 유키(結城朝陽)·이면우(李冕宇)는 운강에게 내란죄를 적용하여 교수형을 선고하였다.

운강은 대심원에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고, 법부는 10월 8일 재판 결과를 상주하여 융희황제의 재가에 의해 10월 13일(음력 9월 9일) 오전 10시 경성감옥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는데, 경성감옥에서 순국한 의병장으로는 처음이었다.

4. 평가 및 기타

1) 평가

운강의 의병투쟁에 관한 기록은 『독립운동사』 1권의 「의병항쟁사」의 첫머리에 ‘1. 이강년의병부대의 활약’이란 제목으로 나올 만큼 비중이 크고, 그 평가가 높다. 여기에는 주요 의병투쟁의 내용을 기술하고, 『운강선생창의일록』 속에 실려 있는 「장임록」 소개했는데, “이강년 의병부대의

장임(將任)들은 경북·충북·강원도 등 넓은 범위의 지역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 사정에 밝아 일본군과의 투쟁에 있어서는 대단히 유리하게 게릴라전을 전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처에서 커다란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였다.

「창의사실기」를 국역하는 데 심혈을 쏟은 세명대학교 구완희 교수는 그의 저서 『영원한 의병장 윤강 이강년』을 마무리하면서, “보수적인 선비로서 낡은 시대의 자취를 버릴 수는 없었지만, 병사들과 함께 전선을 달리면서 민중성을 획득했던 그는 영원한 의병장”이라 했고,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박민영 책임연구위원은 그의 저서 『의병전쟁의 선봉장 이강년』 말미에 “이강년은 한말 의병전쟁의 중앙에서 이를 이끈 선봉 의병장으로 산하처럼 영원하고, 일월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극찬하였다.

정부는 윤강의 공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고,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 공동으로 ‘이달의 독립운동가’(1995년 10월)로 선정하였다.

2) 기타

1916년 불과 몇 개월 만에 급히 마무리한 필사본 「창의사실기」의 원본은 일제강점기 일본 경찰에 압수당하고, 광복되기 몇 년 전에 제천 박약재(博約齋) 기왓장 속에 감추어 두었던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벌레와 쥐의 침해로 인해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윤강의 둘째아들 금재와 화서학파 문인을 비롯한 윤강의 호좌의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윤강의 시문을 수집하여 문집으로 엮은 것이 『윤강선생유고』이다. 이 책은 「창의사실기」와 호좌의진에 참여했던 민순호의 「윤강사실추록」 등이 실렸다. 광복 후 『윤강선생유고』에 새로 발견된 윤강의 시문과 서간, 제문 등의 자료들을 보완하고 정리하여 『윤강선생창의일록』(1948)과 『윤강선생문집』(1949)이 나오게 되었다.

김희진은 『윤강선생창의일록』의 「지」에서, “왜적들 때문에 문자가 더욱 숨겨서 감히 나오지 못했고, 태반이나 벌레와 쥐의 손상을 입어 없어진 것도 많았는데, 아들 금재와 이정규가 사방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다.”고 하니, 「창의사실기」 부분을 수정, 보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윤색 내지 허구라고 한다면, 1916년 이후 발견된 자료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정부문서 및 자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권, 1970

_____,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권, 1971

_____,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권, 197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8권~14권, 1968~1985

_____,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및 『통감부문서』, 1986~2000

단행본

송상도, 『기려수필』, 국사편찬위원회, 1955

김의환, 『의병운동사』, 박영사, 1974

박성수, 『독립운동사연구』, 창작과 비평사, 1980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의병전쟁연구』, 지식산업사, 1990

리석재, 『의병대장 윤강 이강년』, 사단법인 청권사, 1993

오영섭, 『고종황제와 한말의병』, 선인출판사, 2007

홍영기, 『한말 후기의병』,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이태룡, 『한국 근대사와 의병투쟁』(1~4), 증명출판사, 2004~2006

_____, 『한국 의병사』(하), 푸른솔나무, 2014

구완희, 『국역 창의사실기』,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14

_____, 『영원한 의병장 윤강 이강년』, 지식산업사, 2015

박민영, 『의병전쟁의 선봉장 이강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논문

김의환, 「한말 의병운동의 분석」-이강년 의병부대를 중심으로-, 『한일문화』 1집, 부산대학교
한일문화연구소, 1962

박성수, 「1907~1910년간의 의병전쟁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1968

조동걸, 「의병전쟁의 한국민족주의상의 위치」(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 1986

김상기, 「조선말 의병전쟁 연구의 현황과 문제」, 『의병전쟁연구』(상), 지식산업사, 1990

이구용, 「윤강 이강년의 항일의병활동」, 『강원사학』 7, 1991

정제우, 「구한말 의병장 이강년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그 외 다수의 논저가 있음

운강 이강년의 도체찰사 제수와 순국과정 연구(토론문)

전영복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이태룡 박사의 「운강 이강년의 도체찰사 제수와 순국과정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독립운동사』 1권과 『운강선생창의일록』 등이 수록된 『독립운동사자료집』 1권, 『기려수필』, 『주한일본공사관기록』과 『통감부문서』, 일제의 『폭도에 관한 편책』을 번역한 『한국독립운동사』, 그리고 최근 간행된 운강(雲岡) 이강년(李康年) 평전을 중심으로 운강이 도체찰사로 제수되기 전후의 의병투쟁 및 순국 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코자 한다.

1. 의병 거의의 시점에 대한 재고

운강 선생은 을사늑약 소식을 듣고 재거(再舉)를 위해 동분서주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에서는 운강의 후기의병 거의 시점을 막연하게 1907년이라고 보았다.

이강년은 1896년 1월 그의 출생지인 경북 문경에서 처음 기의(起義)한 후 1896년 7월(음력)에 의병을 일단 해산하였다. 이로부터 1907년 다시 기의할 때까지의 10년간은 의암 유인석 밑에서 유학 공부에 전념하던 때로, 그의 유학적인 사상과 조예는 이때 닦은 것이었다.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1권, 1970. 554쪽

그러나 최근 두 분(구완희, 박민영)이 출간한 단행본에서 거의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강년의 봉기는 1907년 봄에 구체화되었다.

- 구완희, 『영원한 의병장 운강 이강년』, 지식산업사, 2015. 41쪽

이강년이 재기향전의 기치를 내건 것은 중기의병이 재기한 후 전국적인 향전으로 확대, 격화되어가던 1907년 5월쯤이다.

- 박민영, 『의병전쟁의 선봉장 이강년』,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7. 75~76쪽

또한, 『운강선생창의일록』에는 거의한 것을 1907년 3월(음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융희 원년(1907) 3월(음력)에 공이 다시 의병을 일으켰다.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운강선생창의일록」, 『독립운동사자료집』 1권, 1971. 219쪽

이태룡 박사는 『운강선생창의일록』에 구체적인 언급된 내용으로 보아 이미 1906년부터 거의를 준비한 것으로 보았다.

지난해 겨울에 공이 배양산에 들어가 군사들을 휴양시키고 있는데, 판서 심상훈이 친히 몸종을 데리고 초피(貂皮) 갑옷과 금침(衾枕)을 가지고 와서 위로하며 말하기를,

“이 물건이 보잘것없지만, 장군의 겨울철 소용이 된다면 조금이나마 나라를 위하는 노고에 보답이 되겠습니다.”

하였다. 공이 사퇴하며 말하기를,

“대감께서 이 비천한 몸을 마다 얹으시고 이렇게 후하게 물건을 주시니 극히 황감하오나, 군사들이 춥고 굶주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강년(康年) 혼자만이 이 물건을 사용한다면 천지신이 어찌 나를 벌주지 않겠습니까. 감히 사퇴합니다.”

하였다.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223쪽

일반적으로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서 통문(通文)을 내어 동지를 규합하고, 동지들이 모여 부서를 정한 후 격문(檄文)을 통하여 의병 모집하여 거의하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운강은 1906년 의병을 훈련시킨 내용이 드러나고 있으니, 거의 시기에 대한 재고와 함께 거의의 개념에 대한 것도 보다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본다.

2. 도체찰사 제수 밀지에 대한 연구

이태룡 박사는 고려 말 이후 도체찰사 제수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한 후 전·후기 의병 때 체찰사 제수에 관한 정리를 하였다.

전기의병 전후의 국왕의 밀지는 이춘영과 민용호에게 전달된 것은 동일한 내용이나 김하락에게 전달된 것은 김병시를 도체찰사라 하지 않고 삼남창의도지휘사라고 했기에 차이가 있으며, 노응규에게 전달된 밀지의 내용은 큰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김병시로 하여금 도체찰사로 삼는다’는 것과 당시 밀지가 세 종류였음을 파악한 것도 중요한 성과로 본다.

그리고 을사늑약 이후 후기의병 때의 광무황제의 밀지는 그 수령자가 충신이라고 판단되는 특정인이나 주요 의병장에게 전달된 점이 특이하였다.

특히 광무황제 퇴위 직전에 심상훈을 통하여 운강을 도체찰사로 삼는 밀지를 내린 것은 그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1916년 박정수가 기록을 정리하다가 발병으로 인해 강순희·이화중 정리하였다는 「창의사실기」에는 언급된 적이 없는 ‘칙령’이 광복 직전에 엮어진 『운강선생유고』에 실렸고, 광복 직후인 1948년 『운강선생창의일록』에 실린 것에 대해 상술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단행본 저자들의 주장은 「창의사실기」에 실리지 않은 것이

후대에 나왔으니, “개작하는 과정에서 대대적으로 윤색한 흔적이 너무나 분명하다.”고 하였고, “전시에 정승급 관료에게 부여하는 도체찰사의 지위를 관료 경력도 없는 이강년에게 내렸다는 것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고 주장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본다.

밀지와 관련이 없는 의병장 문집도 대부분이 광복 이후에 나왔듯이, 이는 시대 상황에 비추어 비장(秘藏)해야 할 광무황제의 밀지와 관련된 것이므로 광무황제가 생존했을 당시에 언급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광무황제로부터 밀지를 받은 의병장의 유고는 대부분 광복 이후에 그 사실이 밝혀졌다.

관동의병장 복재(復齋) 민용호(閔龍鎬)의 『복재집』뿐만 아니라, 저의 조부 해산(海山) 전수용(全垂鏞)의 『해산창의록』은 광복 후 장수향교 등이 중심이 되어 호남 유림에서 발간했는데, 해산공이 부친과 사촌형에게 보낸 서신에서 ‘의대조칙’을 받았음이 드러나고 있다. 유고는 모두 5권이었는데, 그 종사관 집의 대나무 울타리의 대나무 속 등을 이용하여 분산·보관돼 오다가 광복 후에야 비로소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그 사이 눈비와 벌레의 침해 등 여러 사정으로 겨우 2권 분량만 거둘 수 있었기에 조칙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해산공의 스승이었던 당천(唐川) 이한룡(李漢龍) 선생의 『당천집』이 일제강점기에 ‘불순하고 부적절한 내용’이 담겼다 하여 책을 편집한 제자들이 투옥당하고, 문집은 모두 압수되었던 시대적 상황에서 광무황제의 조칙이 공공연히 드러낼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 문집의 경우에도 그 관련 문건을 찾고 정리하기 위해 오랜 시일이 걸리는데, 향차 의병장 행적을 불과 수개월 만에 정리한 것을 어찌 완전하다 할 수 있겠으며, 또한 함부로 공개할 수 없는 밀지의 성격상 비장되어 온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13도창의대진의 호서창의대장으로서의 활동

운강 선생이 13도창의대진의 호서창의대장으로 활동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태룡 박사는 이 연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에 게재되었던 뒤바보(실명 계봉우)의 「의병전」에 “(이강년은) 호서창의대장의 기를 거(擧)하여 총대장 이인영의 지휘 하에서 경성 동대문의 교전이 유(有)하였다.”라는 내용과 송상도의 『기려수필』의 내용을 번역하여 13도창의대진이 “서울진공 때 13일 동안 격전을 치렀다.”는 것을 밝혀 낸 것은 새로운 사실이다.

특히, 13도창의대진 총대장 이인영이 피체되어 대전 헌병대에서 신문한 『통감부문서』를 찾아내어 ‘1만여 명의 의병 중에 양주에 집결된 3천여 명 중, 직접 2천 명을 이끌고 동대문 밖 30리까지 진출하였고, 이때 운강도 적극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문경 운강이강년 기념관 전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508 LG트윈텔2차 1607호
TEL 02)508-5399

운강이강년기념관
운강이강년의병대장순국11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경북 문경시 가은읍 대야로1683(완장리 96)
TEL 054)550-6415

